

제19차(2016)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

www.kli.re.kr

김유빈 · 이지은 · 김지경
신선옥 · 이혜정 · 김기홍



KLI
한국노동연구원

목 차

제1장 머리말	(김유빈)	1
제2장 한국노동패널 19차 조사의 개요	(이지은)	4
제1절 한국노동패널조사란?		4
제2절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6
제3절 조사 방법과 조사 결과		8
1. 조사 과정 및 조사 방법		8
2. 조사 결과 및 원표본유지율		14
제4절 응답가구와 가구원의 특성		15
1. 응답가구의 특성		15
2. 조사성공가구원의 특성		18
제5절 이사 및 분가가구와 신규 조사자의 특성		20
1. 이사 및 분가가구의 특성		20
2. 비성공가구의 특성		20
3. 신규 가구원의 특성		24
제6절 통합표본 자료의 특성		27
1. 통합표본의 개요		27
2. 통합표본유지율의 개요		29
3. 응답가구의 특성		31
4. 이사 및 분가가구의 특성		34
5. 비성공가구의 특성		35
6. 신규 조사자의 특성		36
제3장 조사가구의 특성	(이혜정)	39

제1절 가구 및 세대 구성	39
제2절 가구주 및 가구원의 특성	43
1. 가구주의 특성	44
2. 가구원의 특성	45
제3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	46
 제4장 가계경제	(이혜정) 50
제1절 가구소득	51
1. 가구의 총소득	52
2.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53
제2절 가구지출	54
1. 생활비	55
2. 저 축	58
3.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59
제3절 주거형태 및 비용	61
1. 입주형태 및 주거비용	62
2. 주택의 종류	64
3. 주거지의 선택	65
제4절 자산 및 부채	66
1. 부동산자산	67
2. 금융자산	68
3. 가구의 부채	70
제5절 자녀 교육비	71
 제5장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신선옥) 74
제1절 경제활동상태	74
제2절 취업자의 특성	78
제3절 미취업자	83
1. 구직활동	83

2. 희망 일자리의 특성	85
제6장 임금근로자의 특성 (김기홍)	88
제1절 임금근로자의 특성	89
제2절 근로시간	92
1. 평균근로시간	92
2. 초과근로시간	96
제3절 임 금	97
1. 임금 지급주기 및 임금 산정방식	97
2. 월평균임금	99
제4절 비정규직 근로자	103
1. 비정규직의 규모	104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106
제7장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김기홍)	107
제1절 종사상 지위	108
제2절 근로시간	110
1. 근로시간의 규칙성과 주평균 근로일수	110
2. 주당 근로시간	112
제3절 월평균소득	115
제4절 사업체의 창업	118
제8장 경제활동상태의 동태적 변화 (이지은)	120
제9장 청년세대 이행기 삶의 자신감 및 사회인식 (김지경)	127
제1절 청년세대 이행기 삶의 자신감	128
1. 청년세대의 이행기 삶의 자신감 수준: 다섯 가지 항목	

비교	128
2. 청년 특성별 이행기 삶의 자신감 차이	130
제2절 청년세대 사회 인식	135
1.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 네 가지 항목 비교	135
2. 청년 특성별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차이	138
3. 청년 특성별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의 차이	142

표 목 차

<표 2- 1> 1~19차년도 조사결과 비교	5
<표 2- 2> 1~19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7
<표 2- 3>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주요 연혁	7
<표 2- 4> 조사 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	10
<표 2- 5> 응답자의 본인/대리 응답 비중	11
<표 2- 6> 조사성공가구의 평균 방문 횟수	12
<표 2- 7> 시기별 조사 진행률 추이	13
<표 2- 8> 지역별 원표본가구유지율	16
<표 2- 9> 1~19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응답 횟수	17
<표 2-10> 1~19차년도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 횟수(15세 이상)	18
<표 2-11> 이사가구의 분포	21
<표 2-12> 각 연도별 비원표본가구수	22
<표 2-13> 각 연도별 비성공 사유	23
<표 2-14> 각 비성공가구 접촉 횟수	24
<표 2-15> 가구원 중 신규 가구원의 비중	25
<표 2-16> 개인 조사에 성공한 신규 조사자의 구성	27
<표 2-17> 1~8차년도 조사 결과 비교(통합표본)	30
<표 2-18> 조사 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통합표본)	30
<표 2-19> 응답자의 본인/대리인 응답 비중(통합표본)	31
<표 2-20> 조사성공가구의 평균 방문 횟수(통합표본)	31
<표 2-21> 조사성공가구의 응답 횟수(통합표본)	32
<표 2-22>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 횟수(15세 이상, 통합표본)	33
<표 2-23> 이사가구의 분포(통합표본)	34
<표 2-24> 각 연도별 비원표본가구수(통합표본)	35
<표 2-25> 2~8차년도 비성공 사유(통합표본)	35

<표 2-26> 비성공가구 방문 횟수(통합표본)	36
<표 2-27> 가구원 중 신규 가구원의 비중(통합표본)	37
<표 2-28> 신규 조사자의 구성(통합표본)	38
<표 3- 1> 연도별 가구원수 변화 추이(통합표본)	41
<표 3- 2> 연도별 세대 구성 변화 추이(통합표본)	42
<표 3- 3> 연도별 가족구성 형태별 변화 추이(통합표본)	43
<표 3- 4> 연도별 가구주의 성별 · 연령별 · 교육수준별 분포 추이 (통합표본)	44
<표 3- 5> 연도별 조사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통합표본)	46
<표 3- 6> 연도별 출생자의 특성(통합표본)	47
<표 3- 7> 연도별 사망자의 특성(통합표본)	48
<표 3- 8> 연도별 사망자의 사망 원인(통합표본)	48
<표 4- 1> 연간 가구의 총소득(통합표본)	53
<표 4- 2> 8차('15) 소득원천별 연간 가구소득(통합표본)	54
<표 4- 3> 연도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통합표본)	56
<표 4- 4> 8차('15) 주요 항목별 생활비 비중(통합표본)	57
<표 4- 5> 연도별 가구의 저축 유무 및 월평균 저축액(통합표본) ..	58
<표 4- 6> 8차('15)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여부 (통합표본)	60
<표 4- 7> 8차('15)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액수 (통합표본)	60
<표 4- 8> 연도별 가구의 입주형태 분포(통합표본)	62
<표 4- 9> 연도별 가구의 주택 종류 분포(통합표본)	65
<표 4-10> 8차('16) 가구의 현재 거주지로의 이사 동기(통합표본) ..	66
<표 4-11> 연도별 부동산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통합표본)	67
<표 4-12> 연도별 금융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통합표본)	69
<표 4-13> 연도별 부채 잔액 분포(통합표본)	71
<표 4-14> 8차('16) 가구 내 자녀 유무 및 자녀수(통합표본)	73

<표 4-15> 8차('16) 자녀의 사교육비 및 부담 정도(통합표본)	73
<표 5- 1> 연도별 분석 자료의 사례수(통합표본)	75
<표 5- 2> 연도별 경제활동상태 비교(통합표본)	77
<표 5- 3> KLIPS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2009~2016년)	79
<표 5- 4> 경찰조사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2009~2016년)	79
<표 5- 5> KLIPS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2009~2016년)	80
<표 5- 6> 경찰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2009~2016년)	80
<표 5- 7> 8차('16)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산업 분포 (통합표본)	81
<표 5- 8> 8차('16)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 분포 (통합표본)	82
<표 5- 9> 8차('16) 특성별 구직방법(통합표본)	85
<표 5-10> 8차('16) 미취업자가 구직 시 주로 겪는 어려움 (통합표본)	86
<표 6- 1> 임금근로자수와 비중(통합표본)	88
<표 6- 2> 임금근로자의 특성별 분포(통합표본, 2016년)	91
<표 6- 3>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통합표본)	93
<표 6- 4>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평균근로시간(통합표본, 2016년)	94
<표 6- 5>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통합표본, 2016년)	95
<표 6- 6>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통합표본, 2016년)	95
<표 6- 7> 임금근로자의 초과근로(통합표본, 2016년)	96
<표 6- 8> 임금 지급주기 및 임금 지급방법(통합표본, 2016년)	97
<표 6- 9> 임금근로자 특성별 성과급제 실시 여부(통합표본, 2016년)	98
<표 6-10> 월평균임금 비교(통합표본)	100

<표 6-11>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임금(통합표본, 2016년)	101
<표 6-12>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통합표본, 2016년)	101
<표 6-13> 임금근로자의 산업별·직종별 및 사업체 특성별 임금 (통합표본, 2016년)	102
<표 6-14>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통합표본, 2016년)	104
<표 7- 1> 각 연도별 비임금근로자의 수와 비중(통합표본)	107
<표 7- 2> 비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비교(통합표본)	108
<표 7- 3>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산업별 종사상 지위 분포(통합표본, 2016년)	109
<표 7- 4>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 및 주평균 근로일수 (통합표본, 2016년)	111
<표 7- 5>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통합표본)	112
<표 7- 6>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통합표본, 2016년)	113
<표 7- 7>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통합표본, 2016년)	114
<표 7- 8> 월평균소득 비교(통합표본)	115
<표 7- 9> 비임금근로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월평균 명목소득 (통합표본, 2016년)	116
<표 7-10>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월평균 소득(통합표본, 2016년)	117
<표 7-11>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적자액(통합표본, 2016년)	118
<표 7-12> 사업체의 창업 여부와 상속 여부(통합표본, 2016년)	118
<표 7-13> 종사상 지위별 자본금 구성비(통합표본, 2016년)	119
<표 8- 1>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121

<표 8- 2> 성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122
<표 8- 3> 연령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123
<표 8- 4> 학력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125
<표 9- 1> 이행기 삶의 자신감: 다섯 가지 항목 응답 분포	128
<표 9- 2>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이행기 삶의 자신감	131
<표 9- 3> 취업 특성별 이행기 삶의 자신감 차이	132
<표 9- 4> 경제적 여건 특성별 이행기 삶의 자신감 차이	133
<표 9- 5> 심리·정서 특성별 이행기 삶의 자신감 차이	135
<표 9- 6> 항목별 응답 분포	136
<표 9- 7>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사회 인식 차이	139
<표 9- 8> 취업 특성별 사회 인식 차이	140
<표 9- 9> 경제적 여건 특성별 사회 인식 차이	141
<표 9-10> 심리·정서 특성별 사회 인식 차이	142
<표 9-11>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사회적 지지 및 자존감 차이	143
<표 9-12> 취업 특성별 사회적 지지 및 자존감 차이	144
<표 9-13> 경제적 여건 특성별 사회적 지지 및 자존감 차이	145

그림목차

[그림 2-1] 조사성공가구원 대비 원표본가구원수 추이	19
[그림 2-2] 신규 가구원 추가 이유	26
[그림 2-3] 통합표본의 개요	28
[그림 2-4] 조사성공가구원 대비 원표본가구원수 추이(통합표본)	33
[그림 2-5] 신규 가구원 추가 이유(통합표본)	37
[그림 3-1] 8차('16) 3세대 가구의 지역별 비중(통합표본)	42
[그림 4-1] 8차('15) 가구총소득 대비 소득원천별 비중(통합표본)	54
[그림 4-2] 8차('15) 가구의 저축 목적 분포(통합표본)	58
[그림 4-3] 8차('16) 거주지별 자가의 대지면적 · 연건평 및 시가(통합표본)	63
[그림 4-4] 8차('16) 거주지별 전세 거주자 임대보증금(통합표본)	63
[그림 4-5] 8차('16) 거주지별 월세 거주자 임대보증금 및 월세(통합표본)	64
[그림 4-6] 8차('16) 소유 부동산자산의 종류 분포(통합표본)	68
[그림 4-7] 연도별 금융자산의 종류별 평균금액 추이(통합표본)	70
[그림 5-1]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비교(2009~2016년) ...	77
[그림 5-2] 연도별 실업률 비교(2009~2016년)	78
[그림 5-3] 8차('16) 미취업자의 구직방법(통합표본)	84
[그림 5-4] 8차('16) 성별 · 근로시간 형태별 평균 희망임금 (통합표본)	86
[그림 6-1] 임금근로자의 학력 분포(통합표본, 2016년)	90

[그림 6-2] 임금근로자의 연령 분포(통합표본, 2016년)	90
[그림 6-3]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통합표본, 2016년)	105
[그림 6-4]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임금(통합표본, 2016년)	106
[그림 7-1]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통합표본)	113
[그림 9-1] 이행기 삶의 자신감 수준: 다섯 가지 항목 비교	129
[그림 9-2]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 네 가지 항목 비교 ...	137

요약

○ 본 보고서의 목적

- 제19차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의 조사 과정 및 조사 진행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한편, 자료 정제(data cleaning)를 마친 조사 자료(data)를 분석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것임.
- 1998년에 제1차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매년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16년에 제19차 조사가 완료되었음. 제19차 조사는 고용노동부의 지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자체 예산 투입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수행하였음.

◆ KLIPS 19차 조사의 개요

○ 19차년도 조사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98표본 기준,

- 조사 성공가구는 총 5,714가구로 원표본 3,393가구와 분가한 2,321가구이고, 개인 응답자는 전체 11,652명으로 기존 조사자 11,346명, 새로 진입한 신규 가구원 306명임.
- 표본유지율을 살펴보면, 1차년도 원표본 5,000가구 대비 원표본유지율은 67.9%로 전년도 원표본유지율에 비해 0.5%포인트 하락, 소멸가구를 제외한 유효표본가구(19차년도 4,687가구) 대비 표본유지율은 72.4%로 전년도 유효표본유지율에 비해 0.4%포인트 하락

○ 응답형태를 살펴보면,

- 개인 응답자 중 본인 응답 비율은 96.3%임.
- 계속응답 가구의 비율은 원가구 대비 43.4%이고, 1차 조사 당

시 원표본가구에 속해 있던 원표본가구원 대비 계속응답 개인의 비율은 22.2%임.

- 비성공가구의 비성공 사유로는 ‘이사추적 실패’가 51.3%, ‘강력 거절’이 33.7%로 나타나, 향후에 KLIPS의 조사 성과를 유지해 나가는 데 이사가구를 어떻게 추적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임.

○ 통합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 2009년부터 축적된 통합표본은 1차년도 6,721가구로 시작되어 8차년도(2016년도)에는 원가구 5,728가구, 분가가구 906가구 조사 성공
- 1차년도 원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8차년도 원표본유지율은 85.2%로 KLIPS 98표본의 8차년도 76.4%보다 월등히 높아 표본 유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개인 응답자는 13,520명으로 이 중 기존 응답자는 13,175명, 신규로 진입한 응답자는 345명임.

◆ 조사가구의 특성

○ 가구별 특징을 살펴보면,

- 평균 가구원수는 2.7인이고, 4인 가구의 비중은 27.7%로 가장 높음.
- 세대별로 보면, 2세대 가구가 56.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1인 가구의 비중은 23.7%임.

○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 남성이 77%로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매년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
- 평균연령은 52.7세이고,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대가 가구주의 3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15세 이상 전체 개인 응답자의 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 여성의 비중이 50.3%로 남성보다 약간 높음.
- 평균연령은 45.6세로 남성과 마찬가지로 60세 이상의 고령자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
-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및 대졸 이상 학력소지자가 각각 26.7%와 2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무학력자의 비중은 2.9%로 가장 낮음.

○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을 살펴보면,

- 1~8차년도 기간 동안 출생한 가구원은 총 1,590명이며, 8차년도 출생아는 149명으로 남아가 74명(49.7%), 여아가 75명(50.3%)임.
- 1~8차년도 기간 동안 총 561명이 사망하였고, 8차년도 사망자는 73명이며 사망자의 평균연령은 78.5세임.

◆ 가계경제

○ 가구의 총소득을 살펴보면,

- 8차년도의 명목 연간 총소득은 4,781만 원(월평균 398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43만 원 정도 증가
- 실질소득으로 환산하면 7차년도에 비해 110만 원 정도 증가한 4,781만 원임.

○ 월평균 생활비 및 저축에 대해 살펴보면,

- 월평균 생활비의 증가폭은 3차년도가 전년 대비 12만 원 증가로 가장 크게 상승하였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가져 8차년도에는 239만 원임.
- 저축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72.4%이고, 월평균 저축액은 70만 4천 원임.

○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를 살펴보면,

- 가구주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이 있다는 응답이 28.8%였으며,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이 있는

경우는 28.4%임. 반면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도움이 있다는 응답이 80.9%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임.

- 반대로 가구주의 부모님과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께 드린 경제적 도움은 각각 85.1%, 88.8%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따로 사는 자녀에게 준 도움은 38.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됨.
- 경제적 교류가 있을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드린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주거형태 및 비용을 살펴보면,

- 입주형태의 분포는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가 59.7%로 가장 높고, 이어서 전세 17.5%, 월세 16.8%로 나타남.
- 대지면적의 경우에는 도 지역이 서울과 광역시의 약 2배로 높게 나타났으나, 연건평이나 시가는 서울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주거지의 시가는 서울이 가장 높은 3억 9,385만 원인 데 비해 광역시는 서울의 57% 정도에 해당하는 2억 2,277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도 지역의 경우에는 이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 2억 1,681만 원임.

○ 부동산자산을 살펴보면,

-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20.1%로 전년도에 비해 0.2%포인트 증가
-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자산의 시가총액이 1억~3억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7.5%로 가장 높음.

○ 금융자산에 대해 살펴보면,

-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는 1차년도가 58.2%로 가장 낮을 비중이며 8차년도에는 77%로 나타나, 금융자산의 추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각 연도별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4차년도를 제외하고는 1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8차년도에는 전년

에 비해 315만 원이 증가하여 3,377만 원임.

○ 부채를 살펴보면,

- 부채가 있는 가구는 43.7%이고, 평균 부채 잔액은 1차년도 3,396만 원에서 8차년도에는 4,683만 원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살펴보면,

-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0세~만 5세 이하는 36.2%, 만 6세~재수생 이하는 75.5%이며, 대학생 이상은 15.8%임.
-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중 자녀수가 1명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0세~만 5세 이하는 70%, 만 6세~재수생 이하는 56.3%, 대학생 이상은 74.7%).
-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는 0세~만 5세 이하 자녀의 경우에는 가구당 월평균 43만 원(자녀당 월평균 교육비는 32만 6천 원), 만 6세~재수생 이하 자녀의 경우에는 가구당 월평균 60만 9천 원(자녀당 월평균 교육비는 41만 9천 원)이며, 대학생 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연평균 1,192만 7천 원(자녀당 연평균 948만 3천 원)임.
- 사교육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0세~만 5세 이하 자녀의 경우에는 31.1%, 만 6세~재수생 자녀의 경우에는 74.9%이며, 대학생 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83.9%임.

◆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 조사연도별로 경제활동상태를 요약하면,

- 통합패널 1차년도(2009년) 조사 당시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54.1%로 나타난 취업자 비중은 꾸준히 소폭 증가 추세를 보여 8차년도(2016년)의 경우 56.4%로 조사됨.
- 실업자의 비중은 1차년도 2.3%에서 3차년도까지 하락하였다가 4차년도에 소폭 증가한 다음, 5차년도에 다시 감소하여 8

차년도에는 1.3%를 기록함.

-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8차년도에 42.3%임.

◆ 임금근로자의 특성

○ 8차(2016)년도에 조사된 임금근로자는 5,483명으로, 취업자의 74.3%

- 특성별로는 고졸(35.7%) 및 40대(26.4%)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산업별로는 기타서비스업(31.6%)이, 직종별로는 생산직(34.3%)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 임금근로자의 8차(2016)년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3.5시간으로 나타남.

-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보다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추세는 동일함.
- 특성별로는 남성(45.5시간)이 여성(40.6시간)보다 장시간 근로하며, 40~50대(44.2시간)의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음.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근로시간이 짧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는 임금근로자의 27.6%로 비교적 낮은 비중을 보였으며, 주당 평균초과근로시간은 8.5시간으로 조사됨.

○ 임금근로자의 대부분(96.7%)이 ‘한 달’ 주기로 임금을 받고 있으며, 월급제의 비중(72.7%)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봉계약제의 비중(15.2%)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임금근로자의 8차(2016)년도 월평균임금은 250만 7천 원

- 여성의 월평균임금(183만 7천 원)이 남성(298만 8천 원)의 61.5%에 불과했으며, 40대의 월평균임금(295만 원)이 가장 높았음.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임금이 높았음.
- 산업별 및 직종별 월평균임금은 전기·가스 수도업(345만 원)과 전문관리직(303만 5천 원)이 가장 높았음.

- 기업형태별로는 외국인 회사(404만 5천 원)가, 종업원 규모별로는 500인 이상 기업(388만 7천 원)이 월평균임금이 가장 높았음.
- 8차(2016)년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35.6%
 - 유형별 비중은 한시적근로자(27.5%), 비전형근로자(13.4%), 그리고 시간제근로자(9.9%)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40.9%)이 남성(31.4%)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시간제근로자 비중(15.1%)은 남성(5.8%)의 3배에 가까움.
 -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임금(168만 8천 원)은 정규직의 58.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 8차(2016)년도에 조사된 비임금근로자는 2,244명으로 취업자의 25.7%
 - 각 종사상지위의 비중은 자영업자(55.6%), 고용주(27.2%),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17.2%) 순으로 나타남.
 -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주의 비중은 높아지는 반면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비임금근로자의 8차(2016)년도 주당 근로일수는 5.7일로 평균 근로시간은 48.5시간으로 조사됨.
 - 1차(2009)년도 52.0시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
- 비임금근로자의 8차(2016)년도 월평균소득은 327만 9천 원
 - 1차(2009)년도 이후 전반적인 증가 추세
- 8차(2016)년도에 조사된 창업자의 89.8%가 창업주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74.4%가 본인 또는 가족, 친지를 통해 자본금을 조달했으며, 정부의 보조를 받은 경우는 0.7%에 불과

◆ 경제활동상태의 동태적 변화

- 취업과 실업 및 비경제활동상태 간의 이동을 먼저 분석한 뒤, 성과 연령 그리고 학력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들의 이동 경로에 대해 분석
 - 18차와 19차에서 모두 조사된 개인들에 대한 동태적 분석뿐 아니라 제17차와 18차에서 모두 조사된 개인들에 대한 분석도 비교
 - 18차 취업자가 19차에 계속 취업으로 남아 있을 확률은 93.3%, 실업할 확률은 1.0%, 비경제활동으로 이동할 확률은 5.7%임.
 - 여성의 취업지속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상당히 낮은 반면(남성 : 94.8%, 여성 : 90.9%), 비경제활동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은 훨씬 높음(남성 : 4.3%, 여성 : 8.0%).
 - 연령별로는 취업상태를 지속할 가능성이 40대(97.1%), 50대(93.3%), 30대(93.0%) 순으로 높고, 20대가 88.2%로 가장 낮아, 한 직장에 머물기보다는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분주히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청년세대 이행기 삶의 자신감 및 사회 인식

- 다중격차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국 청년세대의 이행기 삶에 대한 자신감 수준을 살펴봄.
 - 다섯 가지 항목(인간관계, 연애 및 결혼, 일자리, 내 집 마련,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이행기 삶의 자신감의 수준을 청년들 특성별로 비교 분석
 - 첫째, 청년세대의 이행기 삶의 자신감 수준은 보통 수준(3.0점)보다 다소 높은 수준(3.32점)임. 인간관계 → 연애 및 결혼 → 일자리 → 내 집 마련과 출산 및 양육 순으로 자신감의 수준이 보임.

- 둘째, 청년들의 특성 중 교육수준, 가구소득, 사회적 지지, 자존감에 따른 삶의 자신감의 차이가 상당하여, 이미 세대 내 경제적 격차 및 삶의 질적 격차가 미래 삶에 대한 심리적 격차로 확대되었음이 확인됨.
-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네 가지 항목(패자부활, 공정성, 세대 간 연대, 세대 자존감)으로 측정하여 사회인식 수준을 살펴봄.
 - 청년세대의 자존감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 청년들은 동의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40%로 높아, 청년세대에 대한 관심과 지원 수준이 청년이 직면한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함.
 - 청년세대의 인식은 세대 간 연대(3.19) → 패자부활(3.16) → 공정성(3.14) → 세대 자존감(2.68) 순으로 나타남.
 - 취업자가 미취업자에 비해 공정성과 세대 간 연대인식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고,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패자부활, 공정성, 세대 간 연대, 세대 자존감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또는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에 네 가지 항목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남.

제 1 장

머리말

본 보고서는 제19차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의 조사 과정 및 조사 진행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한편, 자료 정제(data cleaning)를 마친 조사 자료(data)를 분석하여 KLIPS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LIPS는 단편적인 조사만으로 알기 어려운 노동시장에 관한 미시자료(micro data)들을 패널로 얻기 위해 실시하는 종단 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KLIPS는 1998년 제1차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매년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16년에 제19차 조사가 완료되었다. KLIPS는 고용노동부의 지원하에 한국노동연구원 이 생산·점검·관리·공개 등 전 단계에 걸쳐 전담수행하고 있다.

KLIPS는 1998년 제1차 조사에서 표본으로 추출한 5,000가구와 이들 가구를 구성하는 13,321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다. 패널 조사의 핵심은 우선적으로 최초 추출된 표본을 이후 조사에서 얼마나 많이 성공적으로 조사하는가에 달려 있다. KLIPS는 이번 제19차 조사에서 원표본 5,000가구 중 3,393가구를 성공적으로 조사하여 67.9%의 원표본유지율을 기록하였다. KLIPS는 기본조사와 부가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조사는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가조사는 시대적 상황 및 KLIPS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주제를 발굴, 기본조사에 덧붙여 실시하는 추가적인 조사이다. 기본조사는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의 경제활동을 주로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에 대한

2 제19차(2016)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조사는 가구의 구성과 가구 소득 및 소비, 주거 등의 내용을 조사한다. 가구원에 대한 조사는 가구를 구성하는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실시하며, 취업자 개인(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과 미취업자 및 신규 진입자에 대한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내용은 개인의 경제활동, 노동력 상태, 소득, 노동이동 등 노동시장과 경제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KLIPS는 패널자료의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노동패널팀은 조사원 교육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조사원들의 KLIPS에 대한 이해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조사 현장을 조사원과 함께 방문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욱 원만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KLIPS는 자료 사용자들의 편의 제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패널자료 분석기법의 대중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패널자료를 이용한 연구의 양적·질적 간극이 존재함을 고려하여, KLIPS는 학술대회에서 특별세션을 마련하여 패널자료 분석 방법론에 대한 강연을 실시해 온 바 있다. 패널자료 분석 방법론 강연은 난해하던 패널자료 분석기법들을 일반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연자료는 노동패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품질개선과 패널자료 분석의 대중화를 위한 KLIPS의 노력은 한국 노동시장 및 경제전반에 대한 연구분석 활성화와 학제 간 연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KLIPS 유저가이드 및 홈페이지에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를 마련하고 보충한 것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FAQ는 KLIPS의 사용·분석 등 활용전반에 관련하여 빈도가 높은 27개 질문 위주로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KLIPS 자료 정제 및 분석에 관한 코드는 통계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SAS와 SPSS, STATA로 3원화하여 제공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R 사용자들의 사용편의를 반영하여 R버전의 프로그램도 함께 작성하여 제공토록 하였다. 한국노동패널팀은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기 위한 자체적 노력과 더불어 사용자들로부터

의 제언을 바탕으로 FAQ 내용 및 문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며, 이에 자료 사용 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에 대한 이용자의 적극적인 문의는 FAQ의 발전 및 확충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KLIPS 이용자들의 편의성 제고의 연장선에서, 한국노동패널팀은 연구 목적에 따라 개인 및 가구 데이터의 변수를 선택하고, 이의 연도별 결합을 용이하게 하는 SMART_KLIPS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있다. 현재 SMART_KLIPS는 STATA 버전만 제공되고 있지만, 추후 기타 통계 프로그램을 위한 SMART_KLIPS 버전의 확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KLIPS 설문구조와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제19차 조사에 대해 개관하고, 제3장과 제4장은 가구에 대한 주요 조사 자료들을 분석하여, KLIPS 조사가구의 특성과 가계경제에 대해 다룬다. 제3장은 가구와 가구원의 현황 및 구성 변화를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제4장은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등 가계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데 차이가 있다. 제5장부터 제7장은 가구원 개인에 대한 조사 내용에 집중한다. 제5장은 개별 가구원, 즉 개별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제6장과 제7장은 개별 근로자의 노동상태에 따른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 근로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제8장은 패널자료의 동학(dynamics) 분석을 통해 개별 경제 주체들의 동태적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둔다. 제9장은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1~19차년도(1998~2016년) 자료이다. 세부적으로 조사개요부분인 제2장 제1절~제5절은 추가표본을 제외하고 1차년도에 설계된 98표본(5,000가구 기준) 위주로 분석하였다. 제2장 제6절, 제3장~제9장은 전국단위의 통계를 보여주기 위해, 2009년에 추가된 표본을 포함한 통합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통합1~8차년도(2009~2016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제 2 장

한국노동패널 19차 조사의 개요

제1절 한국노동패널조사란?

KLIPS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 표본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로서,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¹⁾

1998년에 표집된 가구를 기준으로 KLIPS의 진행 상황을 조사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1차년도에 조사된 가구는 5,000가구, 면접에 성공한 15세 이상 가구원은 13,321명이었다. 이후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원표본유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각각 87.6%, 80.9%에 그쳤다. 이 당시 아직 한국에서 패널조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서 실사(fieldwork)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4차년도 이후 패널유지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양상을 보인다.

2016년에 실시된 제19차 KLIPS 조사에서는 원표본 3,393가구 및 분가한 2,321가구를 합하여 총 5,714가구에 대한 조사를 성공하였으며, 가구

1) 한국노동패널조사와 연구는 고용노동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울러 본 조사는 통계청의 공식 승인을 받아 수행되고 있다(통계청 승인번호: 33601).

기준 원표본유지율은 67.9%로 전년도에 비하여 0.5%포인트 하락하였다. 한편 개인 응답자는 총 11,652명이다.

〈표 2-1〉 1~19차년도 조사결과 비교

	조사대상 원가구- 소멸가구	조사성공 가구수 ¹⁾	원표본 가구수 ²⁾	원표본 유지율 ³⁾	유효표본 유지율 ⁴⁾	분가 가구수	가구원 응답자수 ⁵⁾	실사 기간 ⁶⁾
1차('98)	5,000	5,000	5,000	100.0	100.0	-	13,321	6~10월
2차('99)	5,000	4,507	4,378	87.6	87.6	129	12,037	7~12월
3차('00)	5,000	4,266	4,044	80.9	80.9	222	11,205	4~10월
4차('01)	5,000	4,248	3,866	77.3	77.3	382	11,051	4~10월
5차('02)	5,000	4,298	3,798	76.0	76.0	500	10,966	4~10월
6차('03)	4,993	4,592	3,862	77.2	77.3	730	11,541	5~9월
7차('04)	4,949	4,761	3,862	77.2	78.0	899	11,660	5~10월
8차('05)	4,935	4,849	3,822	76.4	77.4	1,027	11,580	4~10월
9차('06)	4,914	5,001	3,820	76.4	77.7	1,181	11,756	4~10월
10차('07)	4,899	5,069	3,775	75.5	77.1	1,294	11,855	4~9월
11차('08)	4,862	5,116	3,710	74.2	76.3	1,406	11,734	4~10월
12차('09)	4,833	5,306	3,658	73.2	75.7	1,648	11,739	3~10월
13차('10)	4,803	5,379	3,607	72.1	75.1	1,772	11,582	7~12월
14차('11)	4,787	5,404	3,528	70.6	73.7	1,876	11,376	7~익년2월
15차('12)	4,771	5,469	3,517	70.3	73.7	1,952	11,442	6~12월
16차('13)	4,742	5,501	3,472	69.4	73.2	2,029	11,330	6~12월
17차('14)	4,742	5,552	3,451	69.0	72.8	2,101	10,756	3~10월
18차('15)	4,702	5,632	3,421	68.4	72.8	2,211	11,445	4~11월
19차('16)	4,687	5,714	3,393	67.9	72.4	2,321	11,652	4~11월

주: 1) '조사성공가구'는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유효표본가구
와 조사 성공한 분가가구를 포함한 총 조사성공가구임.

2) '원표본가구'는 1차년도 조사 당시 원표본이었던 5,000가구 중 해당 연도에 실사
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의미함.

3) '원표본유지율'은 1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해당 연도에
조사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4) '유효표본유지율'은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가구원의 사망 등으로 소멸한 원가
구를 제외한 가구 대비 조사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5)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수.

6) 14차 조사는 조사 익년 1월에 16건, 2월에 8건의 조사가 진행되었음.

제2절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KLIPS는 10차년도 release 버전 자료부터 대대적인 구조 개편을 단행하였다. 그동안 각각의 연도별로 상이한 구조를 가졌던 설문지의 종류와 자료 및 변수들을 통합하고 재구조화하여 종단면 일치성(longitudinal consistency)을 갖도록 하였다. 개편된 자료는 크게 가구용 자료, 개인용 자료, 부가조사 자료, 그리고 직업력 자료로 나뉜다. <표 2-2>를 통해 자료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구용 자료는 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과 같은 인적 특성에 관한 문항 및 소득, 소비, 거주형태, 자산, 부채 등 가구 단위의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된다.

개인용 자료는 크게 조사 당시 갖고 있던 주된 일자리의 특성과 관련된 문항, 15세 이상의 모든 개인 응답자에 관련된 문항, 그리고 조사에 진입할 당시에 한 번만 조사되는 문항들(출생지, 14세 당시 거주지, 부모님의 직업, 교육수준 등)로 나눌 수 있다.

직업력 자료는 개인의 주된 일자리뿐만 아니라 15세 이후 가졌던 모든 일자리의 산업, 직업, 근로시간, 근로소득 등에 대해 ‘일자리 단위’로 누적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자료들이 조사 차수별로 각각 존재하는 반면, 직업력 자료는 1개의 데이터셋만을 가지게 된다.

가구용 및 개인용으로 구성되어 매년 비슷한 내용을 반복 조사하는 본조사 자료와는 달리, 3차년도부터는 중요한 쟁점에 대한 심층조사를 위해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2차년도 조사가 진행된 2009년 이후부터 고용형태 관련 설문이 본조사 설문으로 편입되면서 응답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고용형태와 관련된 별도의 부가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KLIPS 연혁을 살펴보면 <표 2-3>과 같다. 1998년 1차 조사가 시작된 이후 9차년도까지는 표본유지율을 최대한 높이고 실사를 안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9차 조사(2006년)부터 중요한 조사전략상의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조사도구를 서면조사(Pensile and Paper Interviewing :

〈표 2-2〉 1~19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내 용	
가구용 자료	KLIPS__H	가구의 기본정보 가구 특성 관련 설문(소득, 소비, 주거 등)	
개인용 자료	KLIPS__P	주된 일자리의 특성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응답자 공통	취업자 미취업자
		신규 조사자 문항	
부가조사 자료	KLIPS__A	청년층 조사(3차) 건강과 은퇴(4차) 중고령자 조사(6차) 근로시간과 여가(7차) 노동조합과 노사관계(8차)	청년층 조사(9차) 고용형태 조사(10차) 교육(11차) 시간 사용과 삶의 질(17차) 장년층, 삶의 인식(18차) 청년층 조사(19차)
직업력 자료	KLIPS__W	개인이 가졌던 모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	

〈표 2-3〉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주요 연혁

	조사 연혁
1차	1998년 노동패널 시작, 5,000가구 및 그 가구원
10차	2007년 노동패널 실사, CAPI 부분 도입
11차	2008년 노동패널 실사, CAPI 전면 도입
12차	2009년 노동패널 실사, 1,415가구 표본 추가

PAPI에서 노트북을 이용한 면접조사(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 CAPI)로 이행하기로 한 의사결정이었다. 이를 위해 네덜란드 통계청에서 개발한 패널조사 전용 소프트웨어인 Blaise에 기반한 조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007년에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전·충청 지역의 560가구(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각 280가구)를 추출하여 조사도구 변경이 표본의 응답 패턴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즉 모드효과(mode effects)에 대한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두 조사도구 간에 체계적인 응답 패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2008년 11차 조사부터 전체 표본에 대해 CAPI로의 전면적인 이행을 실시하였다.

2009년(12차 조사)에는 표본의 전국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 약 1,500개 가구의 표본을 추가하였다.²⁾ 1998년에 추출된 표본(이하 KLIPS 98표본)은 제주도를 제외한 도시가구를 표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국인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009년 표본 추가에 따라 제주도 및 농촌 지역을 포괄함으로써 전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제3절 조사 방법과 조사 결과

1. 조사 과정 및 조사 방법³⁾

KLIPS의 실사는 민간 조사업체인 ‘한국리서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19차년도 조사는 2016년 4월부터 11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방법은 면접원이 질문하고 그 응답을 면접원이 기록하는 면접 타계식(face-to-face interview)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심야 귀가 등의 원인으로 면접원이 조사 대상자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용 설문지에 한하여 유치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 방법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원칙은 가구용 설문지는 반드시 직접면접을 통하여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개인용 설문지는 직접면접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사정에 따라서 장기 출타 중인 경우 설문지를 가정 내에 유치하기도 하고, 밤 늦은 시간에만 접촉이 가능한 경우 전화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지 답변을 받기 위해 한 가지 방식만을 채택한 것이 아니라, 면접을 한 후 부족한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은 전화로 재확인 작업을 하는 등 설문지 답변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응답 시기는 가구용 설문지와 각각의 개인용 설문지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면접원이 가구원 중 한 명과 만나서 가구용 설문지에

2) 추가 표본에 대한 분석 결과는 본장 제6절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3) 한국노동패널의 표본 크기, 표본 틀 및 추출 방법에 대한 내용은 노동패널 인터넷 사이트(<http://www.kli.re.kr/klips>)를 참고.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가구의 표본 대상 가구원을 파악한 후에 개인용 설문지를 면접하거나, 면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치를 해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KLIPS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유학, 출장, 여행, 입원, 실종, 행상 등의 이유로 함께 거주하지 않아 면접조사에 응할 수 없는 가구 구성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 조사하였다. 첫째, 실사기간 중 가구로 일시 또는 완전 복귀하는 사람은 직접 조사하였다. 둘째, 가구로 복귀하지 않은 사람은 가능한 범위에서 전화조사를 하였다. 셋째, 전화면접 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일 현재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가구원(예: 영내 거주 군인 및 전투경찰, 취학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 교도소·소년원·요양원 등 사회보호시설 수용자 등)은 개인용 설문지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단, 이들의 인적사항 등은 가구용 설문지에서 질문하였다. 넷째, 전화면접 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일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예: 취업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 사업상 장기간 출타 중인 사람, 아르바이트 학생, 영내 거주 직업군인 및 경찰 등)에 대한 개인용 설문지는 해당 가구원에 가장 가까운 조사 대상자가 대리 응답하였다. 또한 정신박약, 허약, 치매, 노환 등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응답할 수 없는 성인도 가장 가까운 조사 대상자가 대리 응답하였다.

<표 2-4>는 각 연도별 조사 방식이 어떤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면접조사의 비중이 1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차년도 당시 면접조사의 비중은 64.4%에 그쳤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11차년도에는 95.7%까지 증가하였다. 11차 조사에서 전년 대비 면접조사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CAPI 도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트북을 이용한 조사의 경우 유치나 전화 등의 다른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접조사 비중이 증가한 것이다. 이후 19차년도까지 평균적으로 93~94% 내외의 면접조사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유치조사는 1차년도에 21.8%나 되었지만 19차년도에는 0.4%에 불과하였다.

<표 2-5>는 본인 및 대리 응답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KLIPS 조사는 응답자의 병환 등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

〈표 2-4〉 조사 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

(단위: 명, %)

	개인 응답자수	전체 비중	면접	유치	전화	면접+ 전화	유치+ 전화	면접+ 유치	면접+ 유치+ 전화
1차('98)	13,321	96.5	64.4	21.8	1.5	2.6	3.7	2.6	0.1
2차('99)	12,037	100.0	77.8	7.6	7.4	4.7	2.5	0.1	0.0
3차('00)	11,205	99.8	83.0	5.1	5.3	3.9	1.5	0.9	0.2
4차('01)	11,051	100.0	83.7	3.4	4.6	4.9	1.2	1.8	0.5
5차('02)	10,966	100.0	83.8	2.6	3.9	6.4	1.0	1.0	1.3
6차('03)	11,541	100.0	86.3	1.7	3.8	5.7	0.9	1.3	0.4
7차('04)	11,660	100.0	88.0	1.8	4.1	3.7	0.4	1.6	0.5
8차('05)	11,580	100.0	85.4	1.6	2.8	6.1	1.4	1.7	1.0
9차('06)	11,756	100.0	89.7	1.5	2.9	2.8	0.7	2.3	0.3
10차('07)	11,855	100.0	91.3	1.1	3.2	3.1	0.6	0.6	0.1
11차('08)	11,734	100.0	95.7	0.6	1.8	1.3	0.3	0.2	0.1
12차('09)	11,739	100.0	92.4	1.7	2.7	2.2	0.6	0.3	0.1
13차('10)	11,582	100.0	94.0	0.5	2.7	2.4	0.3	0.1	0.1
14차('11)	11,376	100.0	93.0	0.8	3.2	2.2	0.4	0.3	0.1
15차('12)	11,442	100.0	93.6	0.4	4.5	1.3	0.1	0.0	0.0
16차('13)	11,330	100.0	95.2	0.5	3.0	1.1	0.1	0.1	0.0
17차('14)	10,756	100.0	96.6	0.3	2.3	0.7	0.1	0.1	0.0
18차('15)	11,445	100.0	95.2	0.5	3.2	0.9	0.2	0.1	0.1
19차('16)	11,652	100.0	96.4	0.4	2.0	0.7	0.4	0.0	0.0

주: 1차년도와 3차년도의 전체 비중이 100%가 안 되는 것은 '모름' 비중 때문임.

고 원칙적으로 대리 응답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1차년도 조사 당시 본인 응답은 74.0%, 대리 응답은 19.7%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차년도에는 본인 응답 비중이 88.7%로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전반적으로 대리 응답의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19차년도 기준 본인 응답 비중은 96.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면접원 방문 횟수는 평균 1.3회로 추정되었다(표 2-6 참조). 범주별로는 1회 방문이 76.8%, 2~3회 방문이 21.1%

〈표 2-5〉 응답자의 본인/대리 응답 비중

(단위: 명, %)

	개인 응답자수	전체비중	본인	대리인	본인+대리인
1차('98)	13,321	94.1	74.0	19.7	0.4
2차('99)	12,037	100.0	88.7	11.3	-
3차('00)	11,205	100.0	88.3	8.1	3.6
4차('01)	11,051	99.8	83.3	11.0	5.5
5차('02)	10,966	100.0	83.8	9.8	6.4
6차('03)	11,541	100.0	83.1	11.2	5.8
7차('04)	11,660	100.0	85.7	9.7	4.7
8차('05)	11,580	100.0	87.3	5.0	7.7
9차('06)	11,756	100.0	90.0	3.0	7.1
10차('07)	11,855	100.0	90.7	5.6	3.7
11차('08)	11,734	100.0	91.7	5.8	2.6
12차('09)	11,739	100.0	91.4	4.0	4.6
13차('10)	11,582	100.0	93.3	3.9	2.8
14차('11)	11,376	100.0	92.9	4.7	2.4
15차('12)	11,442	100.0	94.5	3.5	2.0
16차('13)	11,330	100.0	94.4	3.6	2.0
17차('14)	10,756	100.0	95.2	3.5	1.4
18차('15)	11,445	100.0	94.9	2.9	2.3
19차('16)	11,652	100.0	96.3	2.2	1.5

주: 1차년도, 4차년도의 전체 비중이 100%가 안 되는 것은 '모름' 비중 때문임.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성공가구의 방문 횟수는 해가 거듭될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데, 동일한 표본을 반복 추적함에 따라 일단 표본가구가 조사를 수용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대부분 1~2회 방문으로 조사를 완료하기 때문이다.

조사 시기별 진행 정도를 살펴보면 <표 2-7>과 같다. KLIPS 각 연도 별로 조사에 진입하기 1~2주 전 5개 권역(수도권/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라, 부산/경남)별로 면접원 교육을 실시한 후 본격적인 실사에 진입하게 된다. CAPI 도입 첫해에는 별도의 노트북 및 프로그램 교

〈표 2-6〉 조사성공가구의 평균 방문 횟수

(단위: 회, %)

	사례수	평균값	표준편차	1회	2~3회	4~5회	5회 이상	전체
1차('98)	5,000	2.4	1.6	38.1	42.1	14.9	5.0	100.0
2차('99)	4,507	2.3	1.6	41.7	40.5	11.7	6.2	100.0
3차('00)	4,266	2.6	2.0	34.2	43.2	15.4	7.3	100.0
4차('01)	4,247	3.0	2.2	27.3	42.2	19.8	10.7	100.0
5차('02)	4,298	2.6	1.7	31.2	43.7	19.3	5.9	100.0
6차('03)	4,592	2.9	1.9	28.1	39.9	22.3	9.7	100.0
7차('04)	4,761	3.0	2.0	26.3	40.9	21.0	11.8	100.0
8차('05)	4,849	3.3	2.1	22.6	38.4	23.9	15.2	100.0
9차('06)	5,001	3.0	1.9	23.8	42.4	24.1	9.6	100.0
10차('07)	5,064	2.6	1.8	34.4	39.6	18.9	7.2	100.0
11차('08)	5,116	2.3	1.4	39.4	43.5	14.2	3.0	100.0
12차('09)	5,306	1.3	0.8	79.7	17.4	2.5	0.4	100.0
13차('10)	5,379	1.3	0.8	79.1	18.3	2.4	0.3	100.0
14차('11)	5,404	1.3	0.8	78.8	18.1	2.4	0.7	100.0
15차('12)	5,469	1.4	0.9	75.1	21.7	2.3	0.9	100.0
16차('13)	5,501	1.2	0.6	86.8	12.1	0.9	0.2	100.0
17차('14)	5,552	1.5	1.0	71.1	24.7	3.6	0.7	100.0
18차('15)	5,632	1.3	0.8	78.7	19.3	1.5	0.5	100.0
19차('16)	5,714	1.3	0.7	76.8	21.1	2.0	0.1	100.0

육을 실시하였으나, 다음 해부터 대부분의 면접원들이 이미 프로그램 사용에 익숙하게 되어 별도의 CAPI 교육기간을 두지 않고 통합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사 시작은 면접원 교육이 종료된 직후부터 이루어졌으며, 매 주 조사업체로부터 실사 상황을 보고받는다.

〈표 2-7〉에서 볼 수 있듯이, 2차년도를 제외하고는 1~12차 조사까지 통상 4·5월부터 10월까지 조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차 조사의 경우 가구 경제활동 및 개인 일자리 특성 변화와 관련된 회고 설문 이 추가됨에 따라 전체적인 조사 체계가 패널조사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 되어 조사가 늦어졌으나, 이후부터 4·5월 조사로 안정화되었다.

〈표 2-7〉 시기별 조사 진행률 추이

(단위: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례 수
1차('98)	0.0	0.0	0.0	0.0	0.0	27.9	30.3	27.9	13.2	0.7	0.0	0.0	4,518
2차('99)	0.0	0.0	0.0	0.0	0.0	0.0	5.0	22.8	22.6	27.3	20.2	2.1	4,519
3차('00)	0.0	0.0	0.0	0.2	15.1	28.1	26.1	23.6	5.2	1.7	0.0	0.0	4,520
4차('01)	0.0	0.0	0.0	1.6	16.1	27.2	15.7	23.3	13.0	3.2	0.0	0.0	4,521
5차('02)	0.0	0.0	0.0	4.7	31.3	25.9	26.4	7.2	4.4	0.1	0.0	0.0	4,522
6차('03)	0.0	0.0	0.0	0.0	12.7	25.6	30.1	21.3	10.2	0.0	0.0	0.0	4,523
7차('04)	0.0	0.0	0.0	0.0	16.7	26.4	24.8	21.1	10.8	0.2	0.0	0.0	4,524
8차('05)	0.0	0.0	0.0	13.9	23.8	24.0	20.1	12.1	5.9	0.3	0.0	0.0	4,525
9차('06)	0.0	0.0	0.0	8.1	25.4	20.5	20.9	14.6	8.6	1.8	0.0	0.0	4,526
10차('07)	0.0	0.0	0.0	14.4	27.0	26.9	20.7	8.3	2.8	0.0	0.0	0.0	4,527
11차('08)	0.0	0.0	0.0	8.7	27.9	23.8	21.0	9.7	4.3	4.6	0.0	0.0	4,528
12차('09)	0.0	0.0	0.5	35.7	31.7	12.4	9.3	5.2	3.8	1.4	0.0	0.0	4,529
13차('10)	0.0	0.0	0.0	0.0	0.0	0.0	7.7	33.9	19.1	28.6	8.8	2.0	4,530
14차('11)	0.3	0.2	0.0	0.0	0.0	0.0	2.2	39.8	19.8	20.4	16.1	1.3	4,531
15차('12)	0.0	0.0	0.0	0.0	0.0	0.9	32.7	28.5	19.1	10.5	6.4	2.0	4,532
16차('13)	0.0	0.0	0.0	0.0	0.0	7.5	29.4	21.3	16.4	15.7	6.5	3.2	4,533
17차('14)	0.0	0.0	19.1	31.9	24.9	17.1	3.9	1.6	1.5	0.1	0.0	0.0	4,534
18차('15)	0.0	0.0	0.0	6.9	29.2	18.8	21.8	13.2	3.7	4.0	2.6	0.0	4,535
19차('16)	0.0	0.0	0.0	16.5	31.2	20.6	16.6	8.1	2.6	2.9	1.6	0.0	4,536

주: 1) 1차년도는 조사월의 모름/무응답 482건을 제외하였음.

2) 14차년도에는 응답률 제고를 위해 익년 1월에 16건, 익년 2월에 8건의 조사가 진행되었음.

8차년도 조사부터는 전체적인 조사 일정을 앞당기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KLIPS는 전년도 소득과 일자리에 대한 회고 정보가 많기 때문에 조사 시점이 늦어질수록 회고 오차(recall errors)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무더위가 시작되고 여름철 휴가가 본격화되는 7월 말경부터는 응답가구를 접촉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조사 시작 이후 통상 3~4개월 정도가 지나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다수의 조사가 마무리된다. 다만 패널조사에 대한 저항이 매우 커서 조사 이탈 위험이 큰

표본의 경우에는 높은 숙련을 가진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마지막 1~2개월 동안 설득과정을 거쳐 한계성공률을 높이게 된다. 13~15차년도 조사는 조사 주체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사 시작 시점이 6·7월로 변경되었다. 16차년도에는 조사 주체가 다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이관되었으며, 17차년도부터는 조사 시작 시점이 다시 3·4월로 앞당겨졌다.

2. 조사 결과 및 원표본유지율

조사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표본이탈(sample attrition)을 최소화하여 일정한 수준의 표본유지율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998년 표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차년도 KLIPS의 총 응답가구는 5,714가구와 그 가구 내에 포함된 15세 이상 가구원 11,652명이다(표 2-1 참조).

원표본유지율은 두 가지 기준에서 산출할 수 있다. 첫째, 1차년도 당시 원표본이었던 5,000가구를 기준으로 조사성공률을 산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멸가구를 고려하여 성공률을 조정할 수도 있다. 예컨대, 1인 단독가구에서 그 가구원의 사망이나 이민 등으로 인해 가구가 소멸한 경우, 이를 분모가 되는 원표본가구수에서 빼고 계산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전자를 원표본유지율, 후자를 유효표본유지율이라고 하겠다.

KLIPS의 19차년도 원표본유지율은 67.9%, 유효표본유지율은 72.4%였다(표 2-1 참조). 흔히 패널조사의 신뢰성 지표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원표본유지율의 추세를 살펴보면, KLIPS뿐 아니라 다른 패널조사의 경우에도 2차년도에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패널조사 초기에 표본이탈률이 높다는 일반적인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5차년도 KLIPS는 외국의 패널조사에 비해 그 하락폭이 컸으나, 6차년도 이후 표본유지율이 안정세를 찾으면서 19차년도를 기준으로 다른 패널조사와 비교했을 때 독일의 SOEP(72.4%, 가구 기준), 미국의 PSID(56.0%, 개인 기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표본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표본유지율은 1차년도 표본추출 당시의 거주지를 기준⁴⁾으로

4)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그 지역에서 조사에 성공하였더라도, 1차 당시 서울 거주자

살펴보기로 한다(표 2-8 참조).

지역적으로 서울, 대구,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지역의 표본유지율이 19차년도 기준 70% 미만이었고, 전남이 약 80%의 표본유지율을 보였다.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의 원표본유지율을 보이고 있으나, 도 지역이 광역시 지역에 비해 표본유지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광역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도 지역 응답자들에 비해 더 자주 이사를 하는 등 패널 추적이 어려운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응답자의 성향, 면접원의 특성과 숙련도, 지역의 실사 단위의 체계, 지역별 정치적·문화적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유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4절 응답가구와 가구원의 특성

1. 응답가구의 특성

패널조사의 조사성공률과 함께 패널응답 가구의 지속응답 여부 또한 자료의 질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표 2-9>는 1~19차년도 기간 동안 조사성공가구들이 조사에 몇 번 응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 한 번 이상 조사에 응답했던 가구의 수는 8,143가구이고, 이 중 원가구는 61.4%(5,000가구), 2차년도 이후 분가한 분가가구는 38.6%(3,143가구)이다. 원가구 중에서는 1~19차년도 기간 동안 모두 응답한 가구가 4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1차년도에 응답한 후 아직까지 조사에 복귀를 하지 않고 있는 원가구는 3.7%(183가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가가구들은 2차년도 이후 새롭게 형성된 가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19회 모두 응답한 가구가 존재할 수 없다. 또한, 분가가구의 경우 자녀의 경

였다면 서울 지역으로 계산하였다.

〈표 2-8〉 지역별 원표본가구유지율

(단위: 가구, %)

	원표본 수	2차 (‘99)	3차 (‘00)	4차 (‘01)	5차 (‘02)	6차 (‘03)	7차 (‘04)	8차 (‘05)	9차 (‘06)	10차 (‘07)	11차 (‘08)	12차 (‘09)	13차 (‘10)	14차 (‘11)	15차 (‘12)	16차 (‘13)	17차 (‘14)	18차 (‘15)	19차 (‘16)
전체	5,000	87.6	80.9	77.3	76	77.2	77.3	76.4	76.4	75.5	74.2	73.1	72.1	70.6	70.3	69.4	69.0	68.4	67.9
서울	1,353	84.9	77.6	72.4	70.7	74	72.9	72.4	72	71.8	71.4	69.5	69	66.7	66.5	65.9	65.7	65.4	65.1
부산	486	90.5	89.7	88.3	84.4	80.2	78.4	77.8	77.2	77.8	76.1	74.7	72.6	71.6	72.2	71.2	71.4	70.6	70.8
대구	314	84.1	72	67.5	71	77.4	70.1	73.6	72.3	71.3	68.2	69.4	66.6	65.3	66.9	65.9	65.9	65.3	63.7
대전	153	83.7	81.1	79.7	76.5	80.4	79.7	75.8	73.9	69.9	69.3	70.6	68.6	66	64.7	66.0	64.1	66.0	66.7
인천	298	85.6	81.9	73.2	77.9	75.8	79.5	78.2	79.9	75.8	74.8	75.2	77.2	75.5	74.5	73.5	73.8	72.8	72.2
광주	158	78.5	69	77.2	80.4	79.1	77.2	76.6	75.3	73.4	74.7	70.9	74.1	68.4	67.7	67.1	66.5	65.8	65.8
울산	116	96.6	96.6	89.7	86.2	83.6	82.8	79.3	79.3	74.1	72.4	74.1	75	72.4	72.4	70.7	70.7	71.6	70.7
경기	856	90.2	80	72.7	70.2	75.5	79.7	78.3	77.6	77.3	74.8	73.9	71.6	71.9	70.7	69.7	68.5	67.3	65.7
강원	130	87.7	86.2	73.8	65.4	63.8	67.7	71.5	73.8	75.4	75.4	72.3	70	71.5	70	65.4	66.9	65.4	63.1
충북	113	87.6	75.2	77	75.2	70.8	69.9	67.3	70.8	68.1	69	68.1	70.8	68.1	70.8	71.7	70.8	69.0	70.8
충남	131	91.6	87.8	84	83.2	80.9	80.9	79.4	79.4	81.7	80.2	79.4	77.1	76.3	75.6	77.1	75.6	74.8	74.8
전북	199	88.9	74.4	84.9	83.4	81.9	81.9	80.4	81.9	82.4	81.9	79.4	77.4	74.4	74.4	72.4	71.9	69.4	69.4
전남	127	92.1	89.8	89.8	89	84.3	89	86.6	87.4	88.2	86.6	85.8	84.3	83.5	81.9	80.3	80.3	80.3	79.5
경북	274	89.4	82.5	80.3	82.1	83.6	84.3	82.1	83.2	77.7	76.3	75.9	74.8	72.3	72.3	71.2	69.3	70.1	70.4
경남	292	89.7	88.4	89.4	84.9	83.2	81.2	79.8	80.8	79.8	77.1	76	75.7	74.3	75	73.3	74.0	73.3	72.3

주: 지역 구분은 1차년도 조사 당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함(당해 연도 조사가구수/원표본가구수)×100.

제적 독립이나 혼인 등의 사유로 분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소 추적이 어렵고 이탈 가능성 역시 상대적으로 높다. 분가가구의 경우 1회 응답 가구의 비중이 10.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당해 연도 분가가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에서 이탈한 가구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전체적으로 분가가구의 응답 횟수는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9〉 1~19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응답 횟수

(단위: 가구, %)

	전체		원가구		분가가구	
	가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1회	524	6.4	183	3.7	341	10.8
2회	424	5.2	157	3.1	267	8.5
3회	376	4.6	157	3.1	219	7.0
4회	381	4.7	137	2.7	244	7.8
5회	299	3.7	125	2.5	174	5.5
6회	273	3.4	80	1.6	193	6.1
7회	314	3.9	87	1.7	227	7.2
8회	352	4.3	98	2.0	254	8.1
9회	249	3.1	109	2.2	140	4.5
10회	270	3.3	110	2.2	160	5.1
11회	281	3.5	122	2.4	159	5.1
12회	274	3.4	128	2.6	146	4.6
13회	286	3.5	126	2.5	160	5.1
14회	285	3.5	130	2.6	155	4.9
15회	254	3.1	156	3.1	98	3.1
16회	300	3.7	196	3.9	104	3.3
17회	331	4.1	274	5.5	57	1.8
18회	501	6.2	456	9.1	45	1.4
19회	2,169	26.6	2,169	43.4	-	-
전체	8,143	100.0	5,000	100.0	3,143	100.0

2. 조사성공가구원의 특성

KLIPS는 조사 대상 가구에 소속된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성공률과 관련된 가구원의 특성들 또한 전적으로 가구의 성공률에 의해 좌우된다. <표 2-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1차년도에서 19차년도 조사까지 한 번 이상 조사에 응답한 개인은 20,386명이다. 조사 기간 동안 한 번도 누락되지 않고 모두 응답한 개인은 3,801명으로 한 번이라도 응답한 전체 원표본가구원 대비 22.2%

<표 2-10> 1~19차년도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 횟수(15세 이상)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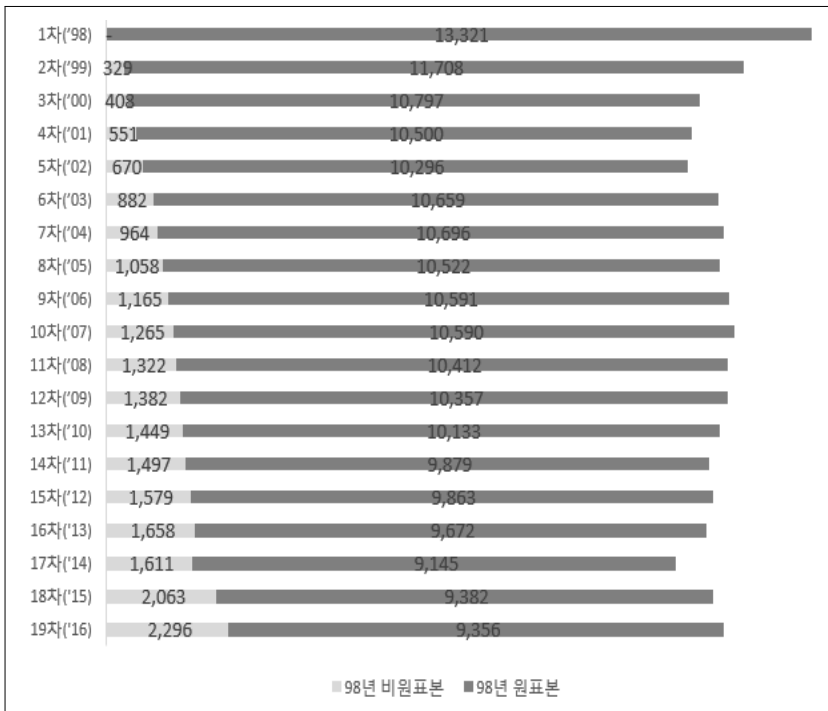
	전체		원표본가구원		비원표본가구원	
	가구원수	비중	가구원수	비중	가구원수	비중
1회	1,432	7.0	957	5.6	475	14.5
2회	1,335	6.5	903	5.3	432	13.2
3회	1,001	4.9	746	4.4	255	7.8
4회	1,038	5.1	792	4.6	246	7.5
5회	1,026	5.0	782	4.6	244	7.5
6회	877	4.3	675	3.9	202	6.2
7회	844	4.1	647	3.8	197	6.0
8회	850	4.2	680	4.0	170	5.2
9회	772	3.8	620	3.6	152	4.7
10회	772	3.8	628	3.7	144	4.4
11회	762	3.7	648	3.8	114	3.5
12회	709	3.5	585	3.4	124	3.8
13회	710	3.5	577	3.4	133	4.1
14회	673	3.3	565	3.3	108	3.3
15회	761	3.7	681	4.0	80	2.4
16회	816	4.0	729	4.3	87	2.7
17회	955	4.7	892	5.2	63	1.9
18회	1,252	6.1	1,212	7.1	40	1.2
19회	3,801	18.6	3,801	22.2	0	0.0
전체	20,386	100.0	17,120	100.0	3,266	100.0

이며, 원표본가구원 중에서 1회만 조사에 응답한 원표본가구원은 957명으로 5.6%를 차지하였다. 여기에서 개인 단위의 원표본가구원은 각 연도별로 만 15세가 되면서 새롭게 개인조사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매년 변동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1회 응답이라 하더라도 이는 19차년도에 처음으로 개인조사에 진입한 원표본가구원(즉, 1차조사 당시 원표본가구에 소속되었던 가구원)을 포함한 숫자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 연도별로 응답한 15세 이상 원표본가구원의 수를 살펴보면 [그림 2-1]과 같다. 1차년도 조사 당시 전체 조사 대상 가구의 총 가구원인 17,505명 중 개인조사에 성공한 15세 이상 가구원은 총 13,321명이었다. 2차년도부터 원표본가구원의 비중이 계속 감소하여 19차조사에서는 개인조사에 성공한 전체 표본 11,652명 중 80.3%인 9,356명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1] 조사성공가구원 대비 원표본가구원수 추이

(단위 : 명)



제5절 이사 및 분가가구와 신규 조사자의 특성

1. 이사 및 분가가구의 특성

경제활동, 주택, 교육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인구이동은 인구사회학적으로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지만, 동일한 가구를 추적 조사해야 하는 패넬조사의 경우 조사 성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KLIPS 19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의 이사 여부에 대한 설문은 2016년에 새롭게 분가한 가구를 제외한 5,629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9차년도 조사에서 파악된 이사가구는 총 691가구로 분가가구를 포함한 전체 성공가구의 12.3%이다. 원표본가구 중 이사가구는 매년 그 비중이 감소하여 19차년도 조사에서는 8.2%에 그쳤으나, 비원표본가구 중 이사가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19차년도 조사에서는 1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1 참조).

<표 2-12>에 따르면, KLIPS 19차년도 분가가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조사성공 5,714가구 중 40.6%인 2,321가구가 분가가구로 나타났다. 이 중 이전 차수에 분가하여 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2,236가구이며 19차년도에 신규로 분가하여 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85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조사성공가구 중에서 이들 분가가구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차년도에는 조사성공가구 중에서 비원표본가구의 비중이 2.9%에 그쳤으나,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여 19차년도에는 40.6%에 이르고 있다.

2. 비성공가구의 특성

KLIPS에서 조사 실패는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조사 대상이 되는 표본을 추적하여 위치를 파악하는 단계로 신규 주소지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조사에 실패하게 된다. 횡단면조사와 달리 패넬조사에서는 이사추적 실패의 문제를 추가적으로 등장하는 방

법론상의 이슈로 다루고 있으며 이를 위치 파악(locating) 혹은 추적(tracking) 문제로 규정한다.

둘째, 응답자가 기존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이사추적에 성공하더라도 응답자 접촉 자체에 실패할 수 있는데, 응답자의 귀가가 늦거나, 연락처 변경으로 인해 주소가 식별되더라도 응답자 접촉에 실패하는 경우이다.

〈표 2-11〉 이사가구의 분포

(단위: 가구, %)

	전체			원표본가구			비원표본가구		
	전체 가구수 ¹⁾	이사가구		가구수	이사가구		가구원 수	이사가구	
		사례수	비중		사례수	비중		사례수	비중
1차('98)	5,000	-	-	5,000	-	-	-	-	-
2차('99)	4,378	709	16.2	4,378	709	16.2	-	-	-
3차('00)	4,142	456	11.0	4,044	439	10.9	98	17	17.3
4차('01)	4,111	688	16.7	3,864	589	15.2	247	99	40.1
5차('02)	4,189	718	17.1	3,798	599	15.8	391	119	30.4
6차('03)	4,437	976	22.0	3,862	726	18.8	575	250	43.5
7차('04)	4,619	868	18.8	3,862	598	15.5	757	270	35.7
8차('05)	4,723	707	15.0	3,822	438	11.5	901	269	29.9
9차('06)	4,862	787	16.2	3,820	464	12.1	1,042	323	31.0
10차('07)	4,953	752	15.2	3,775	437	11.6	1,178	315	26.7
11차('08)	5,027	712	14.2	3,709	407	11.0	1,318	305	23.1
12차('09)	5,174	606	11.7	3,657	266	7.3	1,517	340	22.4
13차('10)	5,235	946	18.1	3,606	470	13.0	1,629	476	29.2
14차('11)	5,292	637	12.0	3,528	269	7.6	1,764	368	20.9
15차('12)	5,380	488	9.1	3,517	209	5.9	1,863	279	15.0
16차('13)	5,405	668	12.4	3,472	271	7.8	1,933	397	20.5
17차('14)	5,481	461	8.4	3,451	183	5.3	2,030	278	13.7
18차('15)	5,534	721	13.0	3,421	287	8.4	2,113	434	20.5
19차('16)	5,629	691	12.3	3,393	279	8.2	2,236	412	18.4

주: 1) 전체 가구수는 조사성공가구수에서 당해 연도에 새로이 분가한 가구를 제외한 숫자임.

〈표 2-12〉 각 연도별 비원표본가구수

(단위: 가구, %)

	전체가구수	기존분가	신규분가	분가가구	
				가구수	비중
2차('99)	4,507	-	130	130	2.9
3차('00)	4,266	98	124	222	5.2
4차('01)	4,248	247	135	382	9.0
5차('02)	4,298	391	109	500	11.6
6차('03)	4,592	575	155	730	15.9
7차('04)	4,761	757	142	899	18.9
8차('05)	4,849	901	126	1,027	21.2
9차('06)	5,001	1,042	139	1,181	23.6
10차('07)	5,069	1,178	116	1,294	25.5
11차('08)	5,116	1,320	87	1,407	27.5
12차('09)	5,306	1,517	132	1,649	31.1
13차('10)	5,379	1,630	143	1,773	33.0
14차('11)	5,404	1,763	112	1,875	34.7
15차('12)	5,469	1,863	89	1,952	35.7
16차('13)	5,501	1,933	96	2,029	36.9
17차('14)	5,552	2,030	71	2,101	37.8
18차('15)	5,632	2,113	98	2,211	39.3
19차('16)	5,714	2,236	85	2,321	40.6

셋째, 이상의 단계들을 거치더라도 응답가구가 패널조사를 거절할 수 있다. 패널조사의 경우 방대한 설문 문항과 민감한 조사 내용이 반복됨에 따라 패널응답자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조사 차수가 지날수록 강력거절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표본가구원의 사망, 이민 등으로 인해 표본 자체가 소멸되거나,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표 2-13>에서 2~19차년도 기간 동안 가구 비성공 사유를 살펴보면, 조사 초기에는 강력거절의 비중이 높았으나 점차 이사추적 실패의 비중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4차년도부터 이사추적 실패가 급증하여 강력거절을 제치고 최다

〈표 2-13〉 각 연도별 비성공 사유

(단위: 가구, %)

	유효표본수	강력거절	이사추적실패	접촉불가	기타	전체
2차('99)	621	59.1	20.9	15.9	4.0	100.0
3차('00)	938	66.0	17.4	15.1	1.5	100.0
4차('01)	809	53.3	25.7	13.0	8.0	100.0
5차('02)	1,315	46.7	23.3	12.7	17.3	100.0
6차('03)	1,402	46.6	28.9	13.1	11.3	100.0
7차('04)	1,435	47.0	29.8	18.5	4.7	100.0
8차('05)	1,539	50.5	27.2	15.3	7.0	100.0
9차('06)	1,610	51.1	29.8	7.0	12.2	100.0
10차('07)	1,777	49.9	36.0	8.8	5.4	100.0
11차('08)	1,907	56.6	31.8	7.3	4.2	100.0
12차('09)	2,013	50.4	35.6	10.9	3.1	100.0
13차('10)	2,116	42.0	37.1	18.8	2.1	100.0
14차('11)	2,291	37.3	44.5	16.1	2.1	100.0
15차('12)	2,381	41.3	44.3	12.4	2.0	100.0
16차('13)	2,497	36.8	46.5	14.1	2.6	100.0
17차('14)	2,596	38.1	46.9	12.3	2.7	100.0
18차('15)	2,617	32.4	54.0	12.3	1.3	100.0
19차('16)	2,721	33.7	51.3	12.0	3.0	100.0

주: 각 연도 거절 사례수가 기록된 유효표본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비성공 사유로 등장하게 된다. 이 시기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 응답자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9차년도의 경우 이사추적 실패가 5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은 강력거절 33.7%로 나타났다.

비성공가구에 대한 면접원의 접촉 횟수는 평균 1.3회로 성공가구의 평균 면접 횟수 1.3회보다 낮게 나타났다(표 2-6, 표 2-14 참조).

성공가구의 경우 사전 전화 접촉 등을 통해 조사 수락 여부를 확인한 후 일정을 조율하여 표본가구를 방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방문 횟수가 1~2회에 그친다. 반면 강력거절 가구의 경우 최종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가구를 방문하여 설득과정을 거친다. 이사

〈표 2-14〉 각 비성공가구 접촉 횟수

(단위: 빈도, 횟수)

	유효표본수	강력거절	이사추적실패	접촉 불가	기타	전 체
2차('99)	621	4.1	2.3	4.0	2.6	3.6
3차('00)	938	5.4	3.5	5.8	2.3	5.1
4차('01)	809	4.1	1.7	4.3	2.0	3.3
5차('02)	1,315	3.9	2.8	3.8	3.4	3.5
6차('03)	1,402	3.4	2.8	3.9	2.3	3.2
7차('04)	1,435	3.6	2.5	3.7	1.7	3.2
8차('05)	1,539	3.9	1.9	5.1	2.0	3.4
9차('06)	1,610	4.1	2.7	4.5	2.6	3.6
10차('07)	1,777	2.9	1.2	3.4	1.2	2.2
11차('08)	1,907	2.8	2.4	3.5	1.6	2.6
12차('09)	2,013	2.4	2.2	2.5	2.1	2.4
13차('10)	2,115	3.6	3.3	3.2	3.5	3.4
14차('11)	2,309	3.4	3.1	3.9	1.9	3.3
15차('12)	2,379	3.3	3.2	3.4	3.0	3.3
16차('13)	2,497	3.1	2.8	1.9	1.4	2.8
17차('14)	2,596	3.4	3.3	3.6	3.0	3.4
18차('15)	2,625	1.8	1.3	1.9	1.6	1.5
19차('16)	2,760	1.4	1.0	1.1	1.2	1.2

주: 당해 연도 분가 비성공가구인 104가구는 방문 횟수가 기록되지 않음.

가구의 경우에도 방문 횟수가 적지 않은데 사전적으로 이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가구를 방문하였다가 사후적으로 이사가구로 확인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 신규 가구원의 특성

〈표 2-15〉는 전체 가구원 중 신규 가구원의 비중을 보여준다. 이 표에서 가구원은 가구 조사 시 파악된 가구 구성원으로, 개인조사에 성공한 개인 응답자보다 많음에 유의해야 한다. 19차년도 전체 가구원은 15,528명이고, 이 중 신규 가구원은 297명으로 전체 가구원(15,528명)에서 1.9%

를 차지한다.

[그림 2-2]는 비원표본가구원의 신규 추가 이유에 대한 결과이다. 그림에 따르면, 차수별로 다소간 변동은 있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출생’으로 19차년도의 경우 49.2%(146/297명)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혼인’으로 35.4%(105/297명)였으며, 이전 차수에서 분가했다가 다시 원래의 가구로 합친 ‘합가’의 비중은 15.2%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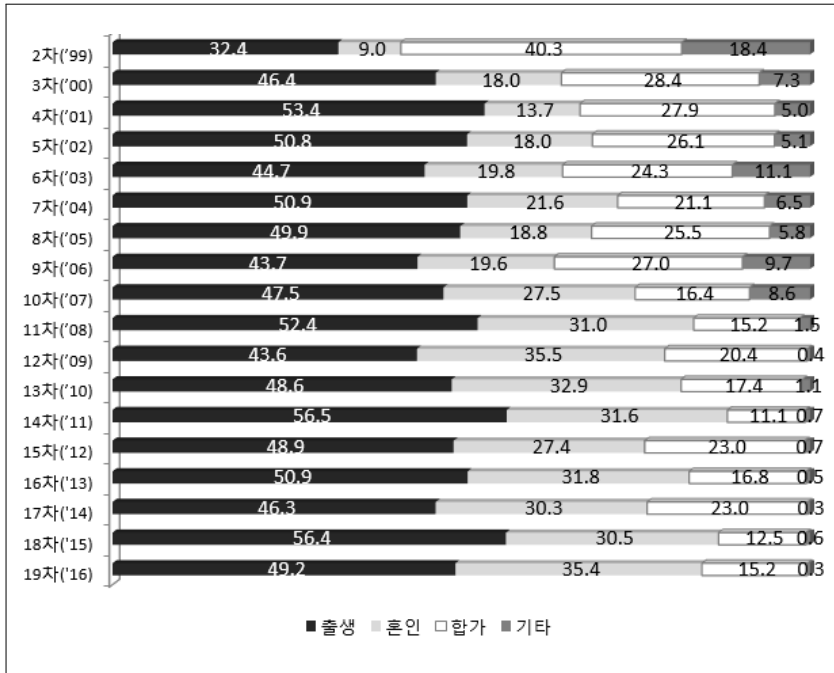
〈표 2-15〉 가구원 중 신규 가구원의 비중

(단위: 명, %)

	전체 가구원수	기존가구원		신규가구원		15세 이상		15세 미만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1차('98)	17,504	17,504	100.0	0	0.0	13,853	79.1	3,651	20.9
2차('99)	15,753	15,191	96.4	562	3.6	12,608	80.0	3,145	20.0
3차('00)	14,662	14,338	97.8	324	2.2	11,838	80.7	2,824	19.3
4차('01)	14,412	13,943	96.7	469	3.3	11,659	80.9	2,753	19.1
5차('02)	14,309	13,930	97.4	379	2.6	11,636	81.3	2,673	18.7
6차('03)	14,956	14,356	96.0	600	4.0	12,186	81.5	2,770	18.5
7차('04)	15,252	14,746	96.7	506	3.3	12,440	81.6	2,812	18.4
8차('05)	15,210	14,768	97.1	442	2.9	12,459	81.9	2,751	18.1
9차('06)	15,416	14,899	96.6	517	3.4	12,691	82.3	2,725	17.7
10차('07)	15,414	14,963	97.1	451	2.9	12,711	82.5	2,703	17.5
11차('08)	15,214	14,746	96.9	468	3.1	12,561	82.6	2,653	17.4
12차('09)	15,460	14,917	96.5	543	3.5	12,828	83.0	2,632	17.0
13차('10)	15,433	14,886	96.5	547	3.5	12,826	83.1	2,607	16.9
14차('11)	15,312	14,898	97.3	414	2.7	12,701	82.9	2,611	17.1
15차('12)	15,388	14,983	97.4	405	2.6	12,794	83.1	2,594	16.9
16차('13)	15,370	14,989	97.5	381	2.5	12,784	83.2	2,586	16.8
17차('14)	15,418	15,118	98.1	300	1.9	12,863	83.4	2,555	16.6
18차('15)	15,501	15,149	97.7	352	2.3	12,912	83.3	2,589	16.7
19차('16)	15,528	15,231	98.1	297	1.9	12,996	83.7	2,532	16.3

〔그림 2-2〕 신규 가구원 추가 이유

(단위: %)



마지막으로 15세 이상 개인조사에 성공한 신규 조사자의 구성을 살펴 보면 <표 2-16>과 같다. 19차년도 조사성공가구에서 15세 이상으로 파악된 가구원은 모두 12,996명이었으며 이 중 89.7%가 개인조사에 응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차년도의 경우 개인조사 대상자 중 96.2%가 성공하였는데, 개인조사 비중은 2차년도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다. 19차년도 개인조사 가구원 중 신규 응답자의 비중은 2.6%(306명)로 이 중에서 만 15세가 됨에 따라 조사에 진입한 비중은 74.2%, 기존 가구원 중 혼인이나 합가 등의 이유로 개인조사에 추가된 개인은 25.8%(79명)로 조사되었다.

〈표 2-16〉 개인 조사에 성공한 신규 조사자의 구성

(단위: 명, %)

	15세 이상 가구원	개인조사 성공가구원		기존가구원		신규가구원		만 15세		기타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1차('98)	13,853	13,321	96.2	13,321	100.0	0	0.0	0	-	0	-
2차('99)	12,608	12,037	95.5	11,236	93.3	801	6.7	478	59.7	323	40.3
3차('00)	11,838	11,205	94.7	10,738	95.8	467	4.2	322	69.0	145	31.0
4차('01)	11,659	11,051	94.8	10,606	96.0	445	4.0	250	56.2	195	43.8
5차('02)	11,636	10,966	94.2	10,564	96.3	402	3.7	234	58.2	168	41.8
6차('03)	12,186	11,541	94.7	10,984	95.2	557	4.8	283	50.8	274	49.2
7차('04)	12,440	11,660	93.7	11,218	96.2	442	3.8	255	57.7	187	42.3
8차('05)	12,459	11,580	92.9	11,199	96.7	381	3.3	227	59.6	154	40.4
9차('06)	12,691	11,756	92.6	11,359	96.6	397	3.4	241	60.7	156	39.3
10차('07)	12,711	11,855	93.3	11,459	96.7	396	3.3	263	66.4	133	33.6
11차('08)	12,561	11,734	93.4	11,343	96.7	391	3.3	257	65.7	134	34.3
12차('09)	12,828	11,739	91.5	11,376	96.9	363	3.1	219	60.3	144	39.7
13차('10)	12,826	11,582	90.3	11,215	96.8	367	3.2	223	60.8	144	39.2
14차('11)	12,701	11,376	89.6	11,063	97.2	313	2.8	220	70.3	93	29.7
15차('12)	12,794	11,442	89.4	11,127	97.2	315	2.8	211	67.0	104	33.0
16차('13)	12,784	11,330	88.6	11,077	97.8	253	2.2	181	71.5	72	28.5
17차('14)	12,863	10,756	83.6	10,677	99.3	79	0.7	33	41.8	46	58.2
18차('15)	12,912	11,445	88.6	11,026	96.3	419	3.7	346	82.6	73	17.4
19차('16)	12,996	11,652	89.7	11,346	97.4	306	2.6	227	74.2	79	25.8

제6절 통합표본 자료의 특성

1. 통합표본의 개요

KLIPS는 도시 지역 5,000가구를 대상으로 1998년부터 시작되어 19차년도 현재 원가구 3,393가구와 분가가구 2,321가구가 조사되었다. 원가구 5,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원표본유지율은 67.9%, 원가구 중 소멸가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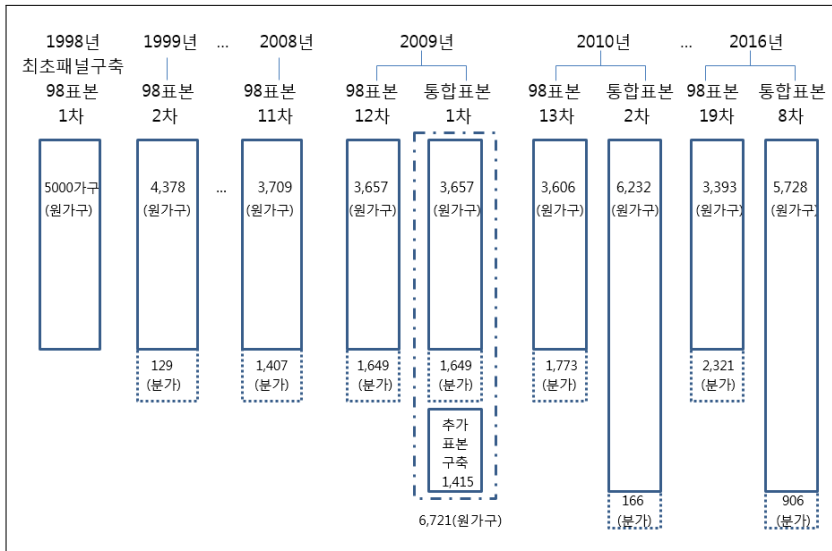
제외한 4,687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유효표본유지율은 72.4%로 높은 유지율을 보이고 있다(표 2-1 참조).

그러나 패널 이탈에 의한 표본 마모와 도시 지역 표집에 따른 대표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09년 전국 단위의 가구로 모집단을 확장하는 표본 추가가 실시되었다.⁵⁾ 표본 추가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되어 총 1,415가구에 대한 조사가 성공되었다. 이에 KLIPS는 1차년도부터 이어온 98표본과 2009년 표본 추가를 통한 통합표본으로 두 개의 패널을 한 데이터에 동시에 가지고 있다.

통합표본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그림 2-3]을 살펴보면, 98표본은 1998년부터 2016년까지 19년 동안 원가구 5,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된 패널이다. 통합표본은 2009년 당시 98표본 원가구 5,000가구 중 조사

[그림 2-3] 통합표본의 개요

(단위: 당해 연도 조사성공가구)



주: 98표본 원가구 중 2009년도에 조사되지 않은 원가가구가 다음 해인 2010년에 조사된다면, 98표본에는 포함되지만 통합표본의 원가구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통합표본에는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통합표본은 2009년도에 조사된 가구만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하는 패널임에 유의해야 함.

5) 표본 추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김재광(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통계학과)의 『한국노동패널조사 표본 추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09. 3)를 참조.

에 성공한 3,657가구와 분가가구 1,649가구, 추가 표본 1,415가구를 모두 합한 6,721가구가 통합표본 1차 원가구로 형성되어 2016년까지 8년 동안 조사가 실시되었다.

2. 통합표본유지율의 개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된 2009년의 추가 표본을 포함한 KLIPS 통합표본 가구를 기준으로 조사 연도별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표 2-17>과 같다. 통합표본 1차년도(2009년)에 조사된 가구는 6,721가구, 면접에 성공한 15세 이상 가구원은 14,489명이었다. 이후 2차년도에는 원표본유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92.7%로 나타났으나, 기존 패널이 2차년도에 13.4%포인트 감소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8차년도의 원표본유지율은 85.2%로 매우 안정적인 원표본유지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 패널조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15년 이상 축적되었고, 실사(fieldwork)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개선된 시스템과 조사 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에 실시된 제19차 KLIPS 조사에서 통합표본은 원표본 5,728가구 및 분가한 906가구를 합하여 총 6,634가구에 대한 조사가 성공되었으며, 가구 기준 원표본유지율은 85.2%로 전년도에 비해 1.0%포인트 감소하였다.

<표 2-18>은 조사 방식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면접의 비중이 95%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 방식에 도입된 CAPI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19>는 응답자의 본인/대리인 응답 비중을 나타내는데, 본인의 비중이 평균 95% 이상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대리 응답으로 인한 데이터의 신뢰도 하락과 관련된 문제는 더 이상 KLIPS에서 언급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표 2-20>은 조사성공가구의 면접원 평균 방문 횟수를 보여준다. 평균적으로 1.3회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범주별로는 평균 1회 방문이

〈표 2-17〉 1~8차년도 조사 결과 비교(통합표본)

	조사대상 원가구- 소멸가구	조사 성공 가구수 ¹⁾	원표본 가구수 ²⁾	원표본 유지율 ³⁾	유효표본 유지율 ⁴⁾	분가 가구수	가구원 응답자수 ⁵⁾	실사 기간 ⁶⁾
1차('09)	6,721	6,721	6,721	100.0	100.0	0	14,489	4~10월
2차('10)	6,694	6,398	6,232	92.7	93.1	166	13,641	7~11월
3차('11)	6,676	6,388	6,082	90.5	91.1	306	13,409	7~11월
4차('12)	6,641	6,434	6,016	89.5	90.6	418	13,426	6~12월
5차('13)	6,597	6,457	5,904	87.8	89.5	553	13,303	6~12월
6차('14)	6,589	6,493	5,840	86.9	88.6	653	12,595	3~10월
7차('15)	6,530	6,577	5,793	86.2	88.7	784	13,372	4~11월
8차('16)	6,505	6,634	5,728	85.2	88.1	906	13,520	3~11월

주: 1) '조사성공가구'는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유효표본가구
와 조사 성공한 분가가구를 포함한 총 조사성공가구임.

2) '원표본가구'는 1차년도 조사 당시 원표본이었던 6,721가구 중 해당 연도에 실사
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의미함.

3) '원표본유지율'은 1차년도에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 6,721가구 중에서 해당 연도
에 조사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4) '유효표본유지율'은 원표본 6,721가구 중에서 가구원의 사망 등으로 소멸한 원가
구를 제외한 가구 대비 조사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5)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수.

6) 1차 조사는 조사익년 1월에 1건의 조사가, 3차 조사는 조사 익년 1월에 10건, 2
월에 9건의 조사가 이루어졌음.

〈표 2-18〉 조사 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통합표본)

(단위: 명, %)

	개인 응답자수	전체 비중	면접	유치	전화	면접+ 전화	유치+ 전화	면접+ 유치	면접+ 유치+ 전화
1차('09)	14,489	100.0	93.2	1.5	2.3	2.1	0.5	0.3	0.1
2차('10)	13,641	100.0	94.7	0.4	2.3	2.2	0.3	0.1	0.1
3차('11)	13,409	100.0	94.0	0.7	2.5	2.0	0.4	0.3	0.1
4차('12)	13,426	100.0	94.4	0.4	3.9	1.2	0.1	0.0	0.1
5차('13)	13,303	100.0	95.7	0.4	2.7	0.9	0.1	0.1	0.0
6차('14)	12,595	100.0	96.9	0.3	2.0	0.6	0.1	0.1	0.0
7차('15)	13,372	100.0	95.6	0.5	2.8	0.7	0.2	0.1	0.1
8차('16)	13,520	100.0	96.7	0.4	1.8	0.6	0.4	0.1	0.0

〈표 2-19〉 응답자의 본인/대리인 응답 비중(통합표본)

(단위: 명, %)

	개인응답자수	전체비중	본인	대리인	본인+대리인
1차('09)	14,489	100.0	91.7	3.9	4.4
2차('10)	13,641	100.0	93.7	3.7	2.6
3차('11)	13,409	100.0	93.5	4.2	2.3
4차('12)	13,426	100.0	95.0	3.1	1.9
5차('13)	13,303	100.0	95.1	3.2	1.8
6차('14)	12,595	100.0	95.5	3.2	1.3
7차('15)	13,372	100.0	95.3	2.8	2.0
8차('16)	13,520	100.0	96.5	2.0	1.5

〈표 2-20〉 조사성공가구의 평균 방문 횟수(통합표본)

(단위: 회, %)

	사례수	평균값	표준편차	1회	2~3회	4~5회	5회 이상	전 체
1차('09)	6,721	1.5	1.0	68.6	26.9	3.6	1.0	100.0
2차('10)	6,398	1.3	0.7	80.6	17.1	2.1	0.3	100.0
3차('11)	6,388	1.3	0.8	80.3	17.0	2.1	0.6	100.0
4차('12)	6,434	1.4	0.9	76.0	21.0	2.2	0.8	100.0
5차('13)	6,457	1.2	0.6	87.6	11.4	0.8	0.2	100.0
6차('14)	6,493	1.5	0.9	72.2	23.9	3.3	0.6	100.0
7차('15)	6,577	1.3	0.8	79.6	18.4	1.6	0.5	100.0
8차('16)	6,634	1.3	0.6	78.3	19.8	1.8	0.1	100.0

78.3%, 2~3회 방문이 19.8%이다. 패널조사는 동일한 표본을 반복 추적하는 조사로, 일단 표본가구가 조사를 수용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대부분이 1~3회 방문으로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3. 응답가구의 특성

패널조사에서 패널응답 가구의 지속응답은 조사성공률과는 또 다르게 매우 중요한 자료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고려된다.

<표 2-21>은 1~8차년도 기간 동안 조사성공가구들이 조사에 몇 번 응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한 번 이상 응답한 가구는 총 7,738가구이며, 이 중 원가구는 86.9%(6,721가구), 2차년도 이후 분가가구는 13.1%(1,017가구)이다. 1~8차년도 기간 동안 모두 응답한 가구는 원가구 대비 7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1차년도에 응답한 후 아직까지 조사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원가구는 4.1%(278가구)로 나타났다.

분가가구들은 2차년도 이후 새롭게 형성된 가구이기 때문에 8회를 모두 응답한 가구는 존재할 수 없다. 또한 분가가구의 경우 1회 응답가구의 비중이 18.0%인데, 여기에는 해당 연도 분가가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에서 이탈한 가구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표 2-22>는 1~8차년도 기간 동안 조사에 성공한 가구원의 응답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물론 조사가구에 포함된 가구원 중에서도 15세 미만의 가구원은 응답할 수 있는 설문지가 없기 때문에 이 표는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즉 조사성공률은 15세 이상 가구원의 비중과 그 변화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이 표를 통해서 1~8차년도에 응답한 가구원의 특성을 원표본가구원과 비원표본가구원으로 구분해서 살펴보

<표 2-21> 조사성공가구의 응답 횟수(통합표본)

(단위: 가구, %)

	전체		원가구		분가가구	
	가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1회	461	6.0	278	4.1	183	18.0
2회	349	4.5	173	2.6	176	17.3
3회	280	3.6	145	2.2	135	13.3
4회	273	3.5	124	1.8	149	14.7
5회	263	3.4	140	2.1	123	12.1
6회	340	4.4	218	3.2	122	12.0
7회	520	6.7	391	5.8	129	12.7
8회	5,252	67.9	5,252	78.1	-	0.0
전체	7,738	100.0	6,721	100.0	1,01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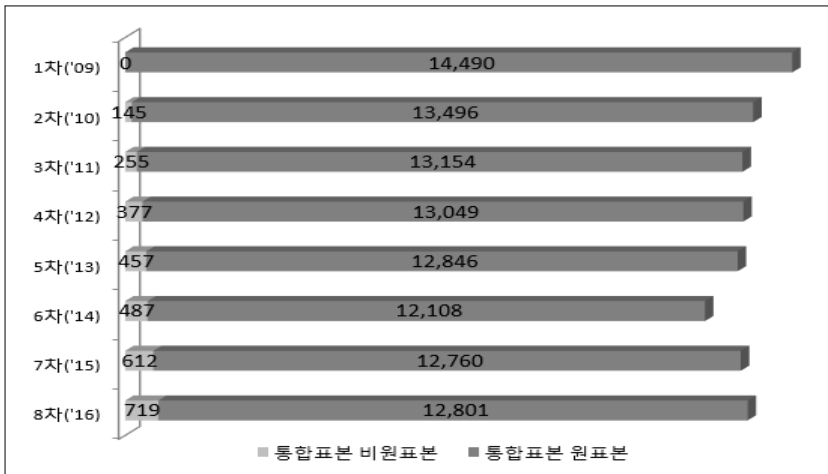
〈표 2-22〉 조사성공가구원의 응답 횟수(15세 이상, 통합표본)

(단위: 명, %)

	전체		원표본가구원		비원표본가구원	
	가구원수	비중	가구원수	비중	가구원수	비중
1회	1,401	8.0	1,182	7.1	219	23.9
2회	1,213	6.9	1,030	6.2	183	20.0
3회	866	4.9	755	4.5	111	12.1
4회	980	5.6	876	5.3	104	11.4
5회	1,133	6.4	1,005	6.0	128	14.0
6회	1,264	7.2	1,168	7.0	96	10.5
7회	1,663	9.5	1,588	9.5	75	8.2
8회	9,065	51.5	9,065	54.4	0	0.0
전체	17,585	100.0	16,669	100.0	916	100.0

〈그림 2-4〉 조사성공가구원 대비 원표본가구원수 추이(통합표본)

(단위: 명)



았다. 한 번 이상 응답한 개인은 17,585명이고, 조사 기간 동안 연속해서 응답한 자는 9,065명으로 원표본 가구원 전체의 54.4%를 차지한다.⁶⁾

6) 개인 단위의 원표본가구원은 각 연도별로 만 15세가 되면서 새롭게 개인조사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매년 변동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1회 응답이라 하더라도 이는 6차년도에 처음으로 개인조사에 진입한 원표본가구원(즉, 1차 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 연도별로 응답한 15세 이상 원표본가구의 수를 살펴보면 [그림 2-4]와 같다. 1차년도 조사 당시 전체 조사 대상 가구의 총 가구원인 19,046명 중 개인조사에 성공한 15세 이상 가구원은 총 14,490명이었다. 2차년도부터 원표본가구의 비중은 소폭으로 감소하여 8차년도 조사에서는 개인조사에 성공한 전체 표본 13,520명 중 94.7%인 12,801명으로 확인되었다.

4. 이사 및 분가가구의 특성

앞서 기존 패널을 소개하면서 이사가구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패널 자료의 질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특성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KLIPS 조사에서 나타난 통합표본 가구의 이사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는 2016년에 새롭게 분가한 가구를 제외한 6,539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8차년도 조사에서 파악된 이사가구는 총 739가구로 전체 조사성공가구(6,539가구)의 11.3%이다. 비원표본가구 중 이사가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8차년도 조사에서는 25.5%로 나타났다(표 2-23 참조).

〈표 2-23〉 이사가구의 분포(통합표본)

(단위: %)

	전체			원표본가구			비원표본가구		
	전체 가구수	이사가구		가구수	이사가구		가구수	이사가구	
		사례수	비중		사례수	비중		사례수	비중
1차('09)	6,721	-	-	6,721	-	-	-	-	-
2차('10)	6,231	1,039	16.7	6,231	1,039	16.7	-	-	-
3차('11)	6,266	680	10.9	6,082	635	10.4	184	45	24.5
4차('12)	6,331	553	8.7	6,016	474	7.9	315	79	25.1
5차('13)	6,349	716	11.3	5,904	590	10.0	445	126	28.3
6차('14)	6,407	508	7.9	5,840	393	6.7	567	115	20.3
7차('15)	6,463	792	12.3	5,793	606	10.5	670	186	27.8
8차('16)	6,539	739	11.3	5,728	532	9.3	811	207	25.5

사 당시 원표본가구에 소속되었던 가구원)을 포함한 숫자다.

〈표 2-24〉 각 연도별 비원표본가구수(통합표본)

(단위: 가구, %)

	전체가구수	기존분가	신규분가	분가가구	
				가구수	비중
2차('10)	6,398		166	166	2.6
3차('11)	6,388	184	122	306	4.8
4차('12)	6,434	315	103	418	6.5
5차('13)	6,457	445	108	553	8.6
6차('14)	6,493	567	86	653	10.1
7차('15)	6,577	670	114	784	11.9
8차('16)	6,634	811	95	906	13.7

〈표 2-24〉는 각 연도별 비원표본가구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8차 연도의 신규 분가가구는 95가구로 전체 가구(6,634가구)의 1.4%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다.

5. 비성공가구의 특성

〈표 2-25〉는 2~8차년도 조사 기간에 발생한 비성공 사유를 보여준다. 8차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성공 사유는 이사추적 실패로

〈표 2-25〉 2~8차년도 비성공 사유(통합표본)

(단위: 가구, %)

	유효표본수	강력거절	이사추적 실패	접촉불가	기타	전체
2차('10)	462	37.0	29.4	28.6	5.0	100.0
3차('11)	679	38.4	32.8	23.9	4.9	100.0
4차('12)	805	43.5	34.6	19.0	3.0	100.1
5차('13)	946	38.6	34.3	21.8	5.3	100.0
6차('14)	1,086	42.3	32.9	18.9	6.0	100.0
7차('15)	1,131	36.3	42.5	18.7	2.6	100.0
8차('16)	1,265	37.5	39.5	16.7	6.4	100.0

주: 각 연도 거절 사례수가 기록된 유효표본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표 2-26〉 비성공가구 방문 횟수(통합표본)

(단위: 빈도, 횟수)

	유효표본수	강력거절	이사추적 실패	접촉불가	기타	전체
2차('10)	460	3.5	3.4	3.4	3.4	3.4
3차('11)	695	3.5	3.4	4.0	2.2	3.5
4차('12)	805	3.5	3.1	3.4	3.0	3.3
5차('13)	946	3.2	2.8	1.9	1.5	2.7
6차('14)	1,086	3.7	3.5	3.7	2.9	3.6
7차('15)	1,251	1.8	1.3	2.0	1.6	1.6
8차('16)	1,398	1.3	1.0	1.1	1.2	1.2

39.5%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강력거절 37.5%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년 약 10%의 이사가구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사가구에 대한 관리 및 대책이 꽤나 성공률 및 자료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2-26〉은 비성공가구에 시도된 조사 과정에서의 방문 횟수를 보여주는데, 8차년도에 평균 1.3회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실패한 것을 알 수 있다. 비성공가구에 시간과 노력이 매우 많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은 패널조사 과정의 어려움을 나타내 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6. 신규 조사자의 특성

〈표 2-27〉은 가구원 중 신규 가구원의 비중을 보여준다. 전체에서 신규 가구원의 비중은 8차년도 1.8%이고, 조사 기간이 증가할수록 소폭 감소되고 있다. 신규 가구원의 증감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림 2-5]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주된 신규 가구원 추가 이유는 출생, 혼인, 합가로 요약할 수 있다. 8차년도 출생으로 추가된 신규 가구원은 47.1%로 나타나며, 그다음으로 혼인으로 인한 신규 가구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5세 이상 개인조사에 성공한 신규 조사자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 〈표 2-28〉이다. 이 표는 가구 데이터에는 가구원으로 조사되었지만,

개인 응답을 하지 않은 가구원은 누락되어 있어 가구원 중에 신규로 진입한 구성원을 설명하는 <표 2-27>과 다른 개념임에 유의해야 한다.

8차년도 조사성공가구에서 15세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 가구원은 모두 15,007명이었고, 이 중 90.1%가 개인조사에 응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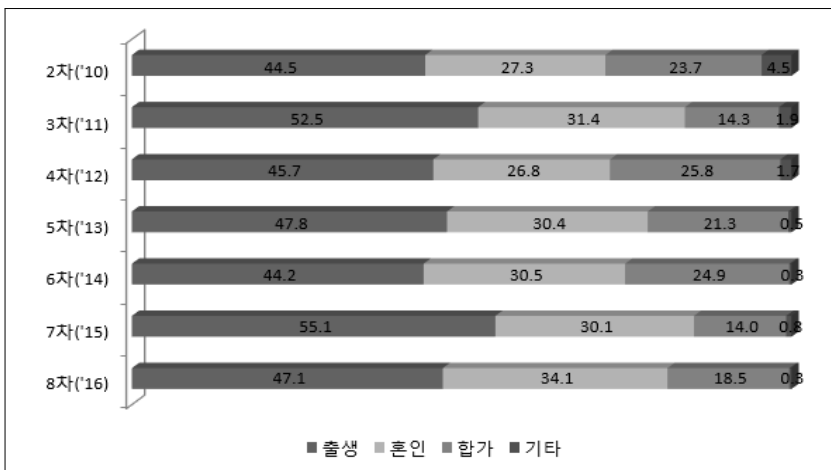
<표 2-27> 가구원 중 신규 가구원의 비중(통합표본)

(단위: 명, %)

	전체 가구원 수	기존 가구원		신규 가구원		15세 이상 가구원		15세 미만 가구원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1차('09)	19,047	19,047	100.0	-	-	15,820	83.1	3,227	16.9
2차('10)	18,055	17,502	96.9	553	3.1	15,014	83.2	3,041	16.8
3차('11)	17,823	17,402	97.6	421	2.4	14,864	83.4	2,959	16.6
4차('12)	17,820	17,402	97.7	418	2.3	14,917	83.7	2,903	16.3
5차('13)	17,778	17,374	97.7	404	2.3	14,916	83.9	2,862	16.1
6차('14)	17,726	17,405	98.2	321	1.8	14,928	84.2	2,798	15.8
7차('15)	17,797	17,424	97.9	373	2.1	14,997	84.3	2,800	15.7
8차('16)	17,723	17,409	98.2	314	1.8	15,007	84.7	2,716	15.3

[그림 2-5] 신규 가구원 추가 이유(통합표본)

(단위: %)



〈표 2-28〉 신규 조사자의 구성(통합표본)

(단위: 명, %)

	15세 이상 가구원	개인조사									
		성공가구원		기존조사자		신규조사자		만 15세		기타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1차('09)	15,820	14,489	91.6	14,489	100.0	-	-	-	-	-	-
2차('10)	15,014	13,641	90.9	13,172	96.6	469	3.4	324	69.1	145	30.9
3차('11)	14,864	13,409	90.2	12,987	96.9	422	3.1	318	75.4	104	24.6
4차('12)	14,917	13,426	90.0	13,047	97.2	379	2.8	262	69.1	117	30.9
5차('13)	14,916	13,303	89.2	12,982	97.6	321	2.4	241	75.1	80	24.9
6차('14)	14,928	12,595	84.4	12,492	99.2	103	0.8	45	43.7	58	56.3
7차('15)	14,997	13,372	89.2	12,897	96.4	475	3.6	400	84.2	75	15.8
8차('16)	15,007	13,520	90.1	13,175	97.4	345	2.6	258	74.8	87	25.2

차년도의 경우 개인조사 대상자 중 91.6%에 성공하였는데, 개인조사 비중은 2차년도 이후 약 90%를 유지하고 있다. 8차년도 개인조사 가구원 중 신규 응답자의 비중은 2.6%(345명)로 이 중에서 만 15세가 됨에 따라 조사에 진입한 비중은 74.8%, 기존 가구원 중 혼인이나 합가 등의 이유로 개인조사에 추가된 개인은 25.2%(87명)로 조사되었다.

제 3 장

조사가구의 특성

본장에서는 통합표본 8차년도 KLIPS에 성공한 6,634가구와 그 가구구성원들의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가구와 가구원들의 현황 및 구성 변화를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1절에서는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가구주 및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지난 8년간의 KLIPS 기간 동안 새로 출생한 아동과 사망한 응답자의 특성을 통해 조사표본 내에서의 인구변동에 대해 다룬다.

이 장에서는 통합표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2009년 통합표본 1차년도 구축함). 분석 대상이 가구일 경우 가구가중치를 사용하였으며,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는 개인 횡단면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단, 제3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분석에서는 해당되는 가중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제1절 가구 및 세대 구성

본절에서는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성을 살펴본다. KLIPS에서 가구란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가구 개념과 같이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

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KLIPS에서 가구원은 함께 살고 있는 친·인척을 비롯하여 교육, 군복무, 시설 및 친지 위탁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는 미혼 자녀의 경우와 미혼 자녀 중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따로 사는 미혼 자녀 중 재학이나 군복무 등의 이유가 아니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와 기혼 자녀 중 따로 사는 경우는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다.⁷⁾ 이와 함께 같이 살고 있으나 가사도우미, 운전사 등 고용인과 하숙생 등 친·인척이 아닌 경우도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통계청의 경우에는 군복무, 학업이나 직장, 시설 수용 등의 이유로 외지에 살고 있는 가구원은 포함되지 않으며, 숙식을 함께 하는 가사도우미와 하숙생은 가구에 포함되는 점에서 KLIPS의 가구원 정의와 약간 다르다.

<표 3-1>은 연도별로 조사된 가구의 가구원수 변화를 보여준다. 표에서 보듯이 1차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는 2.8인이었으며 2, 3차년도를 제외(2.9인)하고는 2.8인을 유지하다가 8차년도에서는 약간 감소한 2.7인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가구원수 분포는 4인으로 구성된 가구가 27.7%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1인(23.7%), 2인(21.4%)과 3인(20.3%)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4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꾸준히 하락한 반면, 1~2인 가구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1인 가구의 비중을 볼 때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자료⁸⁾에서 추정된 1인 가구의 비중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KLIPS의 경우 표본추출 과정에서 1인 가구가 인구센서스에 비해 과소 표집된 탓으로 보인다.

<표 3-2>에서 보듯이 조사가구의 세대 구성⁹⁾을 8차년도를 기준으로

7) 이들은 원가구원일 경우 분가가구 및 분가가구의 가구원으로 조사된다.

8) 장래가구추계에 의한 1인 가구 비중은 2009년 23.1%, 2010년 23.9%, 2011년 24.5%, 2012년 25.2%, 2013년 25.9%, 2014년 26.5%, 2015년 27.2%, 2016년 27.9%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9) 가구의 세대별 구성은 인구주택총조사의 정의에 따랐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가구 구성원이 1명인 가구.

1세대 가구: 가구주와 동일 세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형제로 이루어진 가구, 가구주와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 또 가구주와 배우자, 그리고 그 형제로 이루어진 가구가 이에 속한다.

2세대 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2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이 경우

〈표 3-1〉 연도별 가구원수 변화 추이(통합표본)

(단위: 가구, %)

	전체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평균 (인)
1차('09)	6,721	21.0	20.9	20.4	29.7	6.4	1.6	2.8
2차('10)	6,398	19.9	20.5	20.4	30.8	6.9	1.5	2.9
3차('11)	6,388	21.2	20.3	19.8	30.8	6.6	1.3	2.9
4차('12)	6,434	21.9	20.5	19.2	30.5	6.6	1.4	2.8
5차('13)	6,457	21.9	21.0	19.5	29.8	6.4	1.4	2.8
6차('14)	6,493	22.4	21.1	19.4	29.5	6.4	1.3	2.8
7차('15)	6,577	23.0	21.2	19.2	29.4	6.0	1.2	2.8
8차('16)	6,634	23.7	21.4	20.3	27.7	5.9	1.1	2.7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주와 그의 자녀 혹은 부모가 같이 사는 2세대 가구가 56.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주와 그의 배우자 또는 가구주와 그의 형제,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의 형제로 이루어진 1세대 가구는 16.6%를 차지하였다. 한편 1인 가구가 23.7%이고, 가구주와 그의 자녀, 가구주의 손자·손녀가 같이 살거나 가구주와 그의 부모, 가구주의 자녀가 함께 사는 3세대 가구의 비중은 3.4%였다.

세대 구성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인 가구의 비중은 1차년도 21%에서 8차년도 조사에서는 2.7%포인트 증가한 23.7%로 나타났으나, 3세대 가구는 1차년도 4.9%에서 8차년도 조사에서는 1.5%포인트 감소한 3.4%로 나타나 핵가족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은 3세대 가구의 지역별 비중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8차년도 조사에서 3세대 가구라고 응답한 가구 중 62%가 도 지역에 거주

에는 가구주와 그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가구주와 그 부모가 같이 사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3세대 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3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자녀, 가구주의 손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가구주와 그 부모, 그리고 가구주의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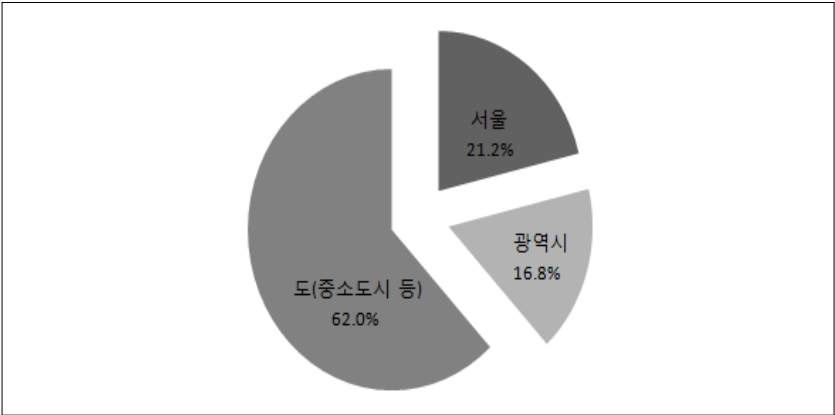
4세대 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4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표 3-2〉 연도별 세대 구성 변화 추이(통합표본)

(단위: 가구, %)

	전 체 (가구수)	1인 가구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	4세대 가구
1차('09)	6,721	21.0	16.4	57.7	4.9	0.0
2차('10)	6,398	19.9	15.9	59.4	4.8	0.1
3차('11)	6,388	21.1	15.9	58.5	4.4	0.1
4차('12)	6,434	21.9	15.7	58.3	4.1	0.0
5차('13)	6,457	21.9	16.2	58.0	3.9	0.0
6차('14)	6,493	22.4	16.4	57.3	3.9	0.0
7차('15)	6,577	23.0	16.2	57.1	3.6	0.0
8차('16)	6,634	23.7	16.6	56.3	3.4	0.0

〔그림 3-1〕 8차('16) 3세대 가구의 지역별 비중(통합표본)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지역에는 21.2%, 광역시 지역에는 16.8%만이 거주해 중소도시일수록 확대가족 형태를 지닌 가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3-3>은 가족구성 형태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때 핵가족이란 부부만 사는 경우(부부 단독), 부모와 미혼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부모+미혼 자녀), 부모님 중 한 분과 미혼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편부모+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경우로 정의한다.

먼저 부모+미혼 자녀 가구가 46.5%로 가장 높았으며, 이것이 전형적인

〈표 3-3〉 연도별 가족구성 형태별 변화 추이(통합표본)

(단위: 가구, %)

	전 체 (가구수)	핵가족 가구				1인가구	비핵가구
			부부단독	부모 + 미혼자녀	편부모+ 미혼자녀		
1차('09)	6,721	70.2	15.5	47.6	7.1	21.0	8.9
2차('10)	6,398	71.7	14.9	49.5	7.3	19.9	8.4
3차('11)	6,388	70.8	15.0	48.8	7.0	21.1	8.0
4차('12)	6,434	70.5	15.0	48.4	7.1	21.9	7.6
5차('13)	6,457	70.6	15.4	48.1	7.1	21.9	7.5
6차('14)	6,493	70.3	15.6	47.7	7.1	22.4	7.3
7차('15)	6,577	70.0	15.4	47.2	7.4	23.0	7.0
8차('16)	6,634	69.7	15.8	46.5	7.3	23.7	6.6

핵가족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부 단독 가구가 15.8%, 편부모+미혼 자녀 가구가 7.3%로 나타나고 있다. 각 연도별 핵가족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1차년도 70.2%에서 2차년도(71.7%)까지는 약간 증가하다 그 이후 조금씩 감소하여 8차년도에 69.7%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의 가구추계 자료의 경우 핵가족 가구의 비중이 2009년 62.4%, 2010년 61.7%, 2011년 61.1%, 2012년 60.5%, 2013년 59.9%, 2014년 59.2%, 2015년 58.6%, 2016년 57.9%로 각각 나타나고 있어 KLIPS의 핵가족 비중이 약 12%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가구주 및 가구원의 특성

본절에서는 KLIPS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다. KLIPS의 가구주는 “가구원 중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정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정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¹⁰⁾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제1절에서 언급한 가구에 대한 정의에서 보듯이 KLIPS의 경우 비혈연관계로만 이루어진 가구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1. 가구주의 특성

<표 3-4>에서는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별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표 3-4> 연도별 가구주의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 분포 추이(통합표본)

(단위: 명, %)

		1차 (‘09)	2차 (‘10)	3차 (‘11)	4차 (‘12)	5차 (‘13)	6차 (‘14)	7차 (‘15)	8차 (‘16)
전 체		6,513	6,203	6,176	6,241	6,241	6,166	6,332	6,445
성 별	남 성	79.0	78.5	78.5	77.9	77.8	77.5	77.6	77.0
	여 성	21.0	21.5	21.5	22.1	22.2	22.5	22.4	23.0
혼인 상태	미 혼	12.6	12.1	13.2	13.8	13.7	14.9	13.8	14.4
	기혼유배우	67.9	68.1	67.4	66.6	66.3	65.5	65.6	65.1
	기혼무배우	19.4	19.8	19.4	19.7	20.0	19.7	20.6	20.5
연령	30세 미만	6.8	6.9	7.2	6.3	6.0	6.8	5.2	5.4
	30대	20.4	19.8	19.8	19.5	18.7	18.6	17.4	17.0
	40대	25.7	24.7	24.1	23.9	23.7	22.9	23.2	22.4
	50대	21.1	21.7	22.1	22.7	23.0	22.7	23.4	23.4
	60세 이상	26.0	27.0	26.8	27.6	28.7	28.9	30.9	31.9
	평균(세)	49.9	50.3	50.4	50.8	51.4	51.3	52.3	52.7
교육 수준	무 학	4.8	4.6	4.3	4.2	4.2	4.0	3.8	3.6
	고졸 미만	25.8	25.3	23.9	23.2	22.8	21.8	21.9	21.5
	고 졸	30.8	30.3	30.5	30.3	29.9	29.4	29.5	29.0
	대제 및 중퇴	3.9	3.6	3.8	3.7	3.8	4.2	4.1	4.3
	(전문)대졸 이상	34.8	36.1	37.5	38.6	39.2	40.7	40.7	41.6

10) 인구주택총조사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2인 이상 함께 사는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 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가구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가계조사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해당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또한 사실상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사람을 가구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다. 8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주의 연령은 평균 52.7세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성별 비중은 남성이 77%로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1차년도 조사 이후 남성 가구주의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6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역시나 계속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비중이 전체 연령 계층 중 가장 높은 비중인 31.9%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50대(23.4%), 40대(22.4%) 순이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가구주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여 8차년도에는 41.6%까지 증가하였다.

2. 가구원의 특성

여기서는 개인 설문과 신규 조사자 설문에 응답한 15세 이상 가구원 13,520명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본다. <표 3-5>는 15세 이상 가구원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1차년도 조사 당시 여성의 비중이 50.3%로 남성에 비해 약간 높았으며, 조사 차수가 반복되면서 4차년도 이후부터는 50.3%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 8차년도 조사에서도 여성이 50.3%, 남성이 49.7%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치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평균연령은 45.6세로 나타났다. 8차년도 현재 60세 이상 고연령층의 비중은 22.4%로 1차년도(18%)에 비해 4.4%포인트 높아진 반면 15세 이상 20세 미만 연령층의 경우 1차년도(9.7%)에 비해 2.7%포인트가 하락한 7%로 나타났다. 조사 초기에는 개인 응답자의 주 연령대가 30대와 40대이지만 차수가 지날수록 30대와 40대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50대와 60대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8차년도에는 30대가 17.2%이고 60대 이상은 22.4%로 나타났다.

가구원들의 교육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졸 및 대졸 이상 학력소지자가 각각 26.7%와 2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무학력자의 비중은 2.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고학력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1차년도에 20%였던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중은 8차년도에 25.1%로 나타났다.

〈표 3-5〉 연도별 조사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통합표본)

(단위: 명, %)

		1차 (‘09)	2차 (‘10)	3차 (‘11)	4차 (‘12)	5차 (‘13)	6차 (‘14)	7차 (‘15)	8차 (‘16)
전 체		14,489	13,641	13,409	13,426	13,303	12,595	13,372	13,520
성별	남 성	49.7	49.3	49.8	49.8	49.7	49.7	49.7	49.7
	여 성	50.3	50.8	50.2	50.3	50.3	50.3	50.3	50.3
연령	15~19세	9.7	8.5	8.3	8.1	7.8	7.6	7.4	7.0
	20~24세	6.1	6.9	7.4	8.0	8.1	7.8	7.5	8.0
	25~29세	10.0	9.5	9.0	8.1	7.7	7.9	7.5	7.6
	30~39세	20.1	19.4	19.3	18.9	18.4	18.0	17.3	17.2
	40~49세	20.7	20.4	20.3	20.1	19.9	19.7	19.8	19.1
	50~59세	15.5	16.3	16.8	17.5	18.0	18.4	18.7	18.7
	60세 이상	18.0	18.9	18.9	19.4	20.0	20.7	21.8	22.4
	평균(세)	42.8	43.4	43.6	43.9	44.3	44.8	45.3	45.6
혼인 상태	미 혼	31.1	29.6	30.0	30.4	30.2	29.7	29.6	30.4
	기혼유배우	58.6	59.6	59.5	59.0	59.0	59.5	59.3	58.7
	기혼무배우	10.4	10.8	10.5	10.6	10.8	10.8	11.1	10.9
교육 수준	무 학	4.1	3.9	3.6	3.5	3.4	3.2	3.1	2.9
	고졸 미만	28.9	27.4	26.2	25.2	24.8	23.7	23.5	22.5
	고 졸	27.6	27.8	27.5	27.5	27.1	27.0	26.9	26.7
	대재 및 중퇴	9.2	9.7	10.2	10.3	10.6	10.6	10.4	10.8
	전문대졸	10.3	10.9	11.1	11.2	11.2	11.7	11.7	12.0
	대졸 이상	20.0	20.4	21.4	22.4	22.9	23.9	24.4	25.1

제3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

KLIPS의 조사 대상 가구에는 매년 가구원의 출생·결혼 등으로 인한 가구원의 진입 및 유학, 군 입대, 사망 등으로 인한 이탈이 발생하게 된다. 이 중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은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의 인구변동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서는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¹¹⁾

11) 이 절의 분석에서도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았다. KLIPS에서 부여되는 개인 단위의 가중치는 15세 이상의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1~8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 출

먼저, 출생아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3-6>과 같다. 1~8차년도 기간 동안 총 출생아는 1,590명이며, 각 연도별 출생아의 수는 1차년도 238명, 2차년도 248명, 3차년도 222명, 4차년도 192명, 5차년도 193명, 6차년도 142명, 7차년도 206명, 8차년도 149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6차와 8차년도의 경우에는 여아의 출생이 남아보다 많았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조사 연도에는 남아의 출생이 여아의 출생보다 많았다.

다음으로 1~8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 사망한 표본에 대한 특성을 살펴 보았다. 총 사망자는 561명으로 이 중에서 2차년도 사망자가 96명, 3차년도 87명, 4차년도 82명, 5차년도 90명, 6차년도 51명, 7차년도 82명, 8차년도 73명으로 나타났다(표 3-7 참조).

각 연도별 사망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3-7>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전체 사망자 중에서 남성이 57.8%(324명)로 여성 42.2%(237명)에 비해 15.6%포인트 정도 높다. 8차년도를 기준으로 사망 당시의 연령을 살펴보면, 사망 당시 50~59세 미만이었던 가구원의 비중은 9.6%이며, 60~69세는 11%, 70~79세는 26%, 80세 이상은 53.4%로 나타났다. 참고로

<표 3-6> 연도별 출생자의 특성(통합표본)

(단위: 명, %)

	전 체	남성	여성	남성 비율	여성 비율
1차('09)	238	131	107	(55.0)	(45.0)
2차('10)	248	129	119	(52.0)	(48.0)
3차('11)	222	119	103	(53.6)	(46.4)
4차('12)	192	106	86	(55.2)	(44.8)
5차('13)	193	108	85	(56.0)	(44.0)
6차('14)	142	65	77	(45.8)	(54.2)
7차('15)	206	113	93	(54.9)	(45.1)
8차('16)	149	74	75	(49.7)	(50.3)
	1,590	845	745	(53.1)	(46.9)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전체 대비 비중임.

생하는 가구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개인가중치가 부여될 수 없으며, 사망자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개인조사에서 당연히 누락되므로 역시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없다.

〈표 3-7〉 연도별 사망자의 특성(통합표본)

(단위: 명, %)

		전체	2차 (‘10)	3차 (‘11)	4차 (‘12)	5차 (‘13)	6차 (‘14)	7차 (‘15)	8차 (‘16)
전체		561	96	87	82	90	51	82	73
성별	남성	324 (57.8)	61 (63.5)	42 (48.3)	47 (57.3)	58 (64.4)	30 (58.8)	47 (57.3)	39 (53.4)
	여성	237 (42.2)	35 (36.5)	45 (51.7)	35 (42.7)	32 (35.6)	21 (41.2)	35 (42.7)	34 (46.6)
사망 당시 연령	50세 미만	42 (7.5)	9 (9.4)	7 (8.1)	7 (8.5)	8 (8.9)	6 (11.8)	5 (6.1)	0 (0.0)
	50~59세	40 (7.1)	7 (7.3)	7 (8.1)	5 (6.1)	5 (5.6)	1 (2.0)	8 (9.8)	7 (9.6)
	60~69세	80 (14.3)	16 (16.7)	10 (11.5)	12 (14.6)	20 (22.2)	9 (17.7)	5 (6.1)	8 (11.0)
	70~79세	174 (31.0)	30 (31.3)	28 (32.2)	21 (25.6)	27 (30.0)	18 (35.3)	31 (37.8)	19 (26.0)
	80세 이상	225 (40.1)	34 (35.4)	35 (40.2)	37 (45.1)	30 (33.3)	17 (33.3)	33 (40.2)	39 (53.4)
평균연령		74.4	72.5	74.5	74.9	72.7	71.5	76.0	78.5

〈표 3-8〉 연도별 사망자의 사망 원인(통합표본)

(단위: %)

	노환	질병	사고	기타
2차(‘10)	45.8	44.8	9.4	0.0
3차(‘11)	44.8	40.2	13.8	1.2
4차(‘12)	47.6	42.7	8.5	1.2
5차(‘13)	35.6	53.3	8.9	2.2
6차(‘14)	37.3	52.9	9.8	0.0
7차(‘15)	40.2	51.2	7.3	1.2
8차(‘16)	56.2	38.4	4.1	1.4

50세 미만의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망자의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2차년도 사망자는 72.5세였는데, 이후 증감을 되풀이하며 8차년도에는 78.5세로 나타났다. 표본수가 많지 않아

사망자의 연령이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고령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3-8>을 통해 8차년도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노환이 56.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질병이 38.4%, 사고 및 기타가 5.5%로 조사되었다.

제 4 장

가계경제

KLIPS에서는 가구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항목을 측정해 오고 있다. 통합표본 8차년도에서도 지난 조사에 이어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해 각 항목별 액수와 종류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장에서 다루게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절 가구소득 부문에서는 가구의 총소득 및 각 항목별 소득 분포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가구지출을 생활비와 저축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가구의 주거형태에 대해 살펴보고, 제4절에서는 가구의 자산을 크게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부채의 특성에 대해 다룰 것이다. 참고로 설문 구조 및 항목에 대한 설명은 98표본의 조사 차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해당하는 통합표본의 조사 차수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장에서는 통합표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2009년 통합표본 1차년도 구축함).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는 기본적으로 가구가 중치를 사용한 것이며, 예외적으로 분석 내용의 특성상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이를 밝혔다. 또한 1~8차년도의 연간총소득 및 월평균 생활비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적용한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제시하였다.

제1절 가구소득

KLIPS에서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등 6개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그중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은 세부 항목별로 조사되었다. 각 영역별 가구소득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소득은 가구원이 근로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의 총액을 의미하며,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자영업자의 소득 등도 포함된다.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이 포함된다. 다만, 자산의 가치가 변화하였더라도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주식의 시세는 높아졌지만 실제로 주식을 사고팔지 않은 경우)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부동산을 임대해 주고 받은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부동산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보험소득은 가구원이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및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험을 수급한 액수의 총액을 의미한다. 이전소득은 가구원이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친척·친지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보조금의 총액을 의미한다. 특별히 9차년도 조사부터는 친척·친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보다 세분화하여, 따로 사는 부모님(배우자 부모님 포함) 도움, 따로 사는 자녀의 도움, 그 외 친척·친지 보조금으로 나누어 물어보고 있다. 또한 13차년도(통합표본 2차년도) 조사부터는 근로장려금의 수급 여부를 묻기 시작하였고, 이와 더불어 19차년도(통합표본 8차년도) 조사부터는 2015년에 추가된 제도인 자녀장려금의 수급 여부도 함께 조사하였으며, 모두 이전소득 총액에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기타소득은 보험금 지급이나 퇴직금, 복권 탄 돈과 같이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소득의 총액을 의미한다. 기타소득 또한 9차년도

조사에서는 그 항목이 대폭 늘어났으므로, 연구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¹²⁾

한편, KLIPS에서 가구의 소득은 전년도 한 해 동안(19차년도(통합표본 8차년도)의 경우 2015년 한 해) 얻은 소득으로 세금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하며 연간 총액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다만, 1차년도의 경우 조사일 이전 1년간의 소득으로 1997년 4월부터 1998년 11월에 걸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1. 가구의 총소득

가구의 총소득은 전년도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 등 모든 항목별 가구소득을 합한 액수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와의 비교 가능성을 생각하여 기타소득 중에서 보험금과 기타소득 항목은 제외하였다. 또한 당해 연도에 분가한 가구의 소득은 온전한 지난해 1년간의 소득이 아니라 분가한 이후의 소득이기 때문에 낮게 추정된 소득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구의 소득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¹³⁾

<표 4-1>을 통해 연도별로 가구의 연간 평균 총소득의 추이를 살펴보면 연도를 거듭할수록 가구의 총소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차년도의 명목 연간 총소득은 4,781만 원(월평균 398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43만 원 정도 늘어났으며, 이를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소득으로 환산¹⁴⁾하면 7차년도에 비해 110만 원 정도 증가한

12) 8차년도에 조사된 기타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금-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받은 보험금(손해보험을 받은 금액 포함), (2) 보험금-저축성 보험의 만기지급금 및 중도해약으로 받은 금액, (3) 보험금-종신보험, (4) 퇴직금, (5) 증여·상속, (6) 축의금·조의금, (7) 복권이나 경마, 오락 경기 등의 당첨 상금/상으로 받은 상금, (8) 교통사고나 폭설·폭우 등 재해로 인해 받은 보상금, (9) 기타.

13) 성재민(2006),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소득자료 특성』, 『노동리뷰』 2006년 2월호(통권 14호) 참조.

14) 실질소득 = (명목소득/당해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 100으로 산출하였으며,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조사』의 물가지수(2015년 = 100 기준)를 사용하였다.

(2008년 86.1, 2009년 88.5, 2010년 91.1, 2011년 94.7, 2012년 96.8, 2013년 98.0, 2014년 99.3, 2015년 100)

〈표 4-1〉 연간 가구의 총소득(통합표본)

(단위: 만 원)

	1차 (’08)	2차 (’09)	3차 (’10)	4차 (’11)	5차 (’12)	6차 (’13)	7차 (’14)	8차 (’15)
명목소득	3,517 (0.015)	3,835 (0.015)	3,923 (0.013)	4,108 (0.012)	4,327 (0.013)	4,510 (0.013)	4,638 (0.013)	4,781 (0.014)
실질소득	4,086	4,336	4,309	4,337	4,471	4,600	4,671	4,781

주: 괄호 안의 수치는 가중치를 적용한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임.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소득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던 1차년도는 4,086만 원이며, 2차년도에 4,336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3차년도에는 4,309만 원으로 다시 감소하였다가 4차년도부터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은 <표 4-2>와 [그림 4-1]에서 보듯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 중 86.6%이며, 연평균 근로소득은 4,654만 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기타소득과 부동산소득이 각각 연평균 2,337만 원, 2,329만 원으로 비교적 가계소득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평균 소득액이 가장 낮은 소득원천은 금융소득으로 연간 평균 248만 원에 불과했다. 이전소득도 연평균 514만 원으로 높지 않다. 다만, 소득액 기준이 아닌 소득 유무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절반 이상의 가구(53%)가 이전소득이 있다고 응답해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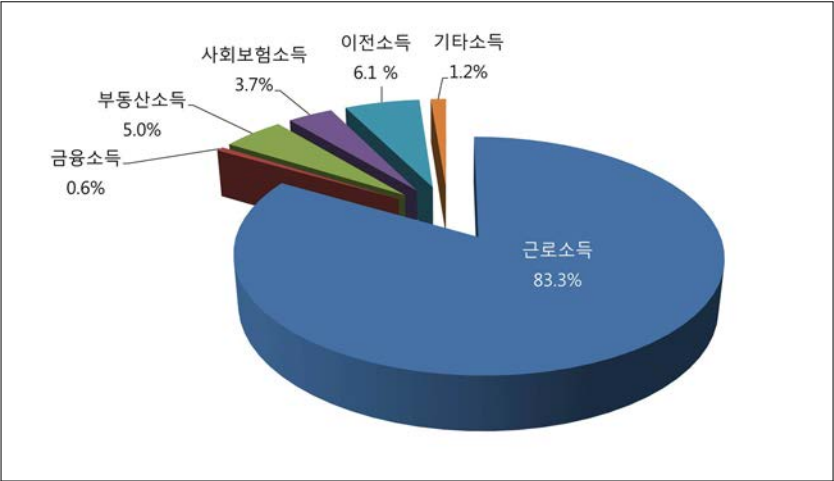
한편, 가구의 전체 소득액 대비 소득원천별 비중을 살펴보면, 역시 근로소득액이 가구총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3.3%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이전소득액이 가구총소득액에서 6.1%를 차지하여 둘째로 높았다. 절반 이상의 가구가 이전소득이 있으나 총소득액에서 기여하는 정도는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금융소득은 가구총소득 중 0.6%

〈표 4-2〉 8차('15) 소득원천별 연간 가구소득(통합표본)

(단위: 만 원, %)

	연평균 소득	해당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
근로소득	4,654	86.6
금융소득	248	11.0
부동산소득	2,329	9.6
사회보험소득	869	18.7
이전소득	514	53.0
기타소득	2,337	2.9

〔그림 4-1〕 8차('15) 가구총소득 대비 소득원천별 비중(통합표본)



로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가구지출

이 절에서는 19차년도(통합표본 8차년도) 조사가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지출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KLIPS에서 가구 지출은 작년 한 해(19차

년도(통합표본 8차년도)의 경우 2015년) 동안 소비한 생활비와 저축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생활비는 월평균 교육비, 주거비, 식품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각종 공과금 등 생활하는 데 드는 돈을 의미하며, 저축이나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은 제외된다. 동시에 혼수 장만, 교통사고 보상금 등 특별한 일로 인해 지불한 돈도 생활비에서 제외된다. 4차년도 조사부터는 1~3차년도 조사와는 달리 월평균 생활비 외에 세부항목별 생활비를 묻고 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외식비, 공교육비(학교등록금, 납입금 등), 사교육비(학원, 과외비 등),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포함), 주거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등), 경조사비, 보건의료비, 문화비(TV·케이블TV·위성TV 시청료 또는 취미, 여가 등에 들어가는 돈), 내구재(전자제품이나 가구) 구입비,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용돈, 피복비, 현금 및 각종 기부금,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대중교통비, 기타 생활용품비 등이다. 이 중 용돈 항목은 5차년도 조사에 새로 추가된 항목이고, 6차년도 조사에는 피복비 항목, 그리고 7차년도 조사에는 현금 및 각종 기부금,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대중교통비 항목이 추가되었다. 9차년도 조사부터는 용돈 항목을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 자녀 용돈, 그 외 가구원의 용돈으로 세분하여 질문하였다. 또한, 11차년도 조사부터는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를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로 각각 분리하여 조사하고 있다.

저축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일반저축, 개인연금, 적금, 보험, 계 등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저축 역시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4차년도 조사부터 세부항목별 저축액을 묻고 있는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예·적금, 개인연금, 보장성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저축성보험(재테크보험, 교육보험 등), 계, 기타로 구성되었다. 이후 9차년도 조사부터는 종신보험 항목을, 10차년도 조사부터는 적립식 펀드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하고 있다.

1. 생활비

<표 4-3>은 통합표본 1~8차년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를 제시하였다. 월평균 생활비는 전년도(7차년도)에 비해 6만 원 정도 상승하여

8차년도에는 23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생활비의 증가폭은 3차년도가 전년 대비 12만 원 증가로 가장 크게 상승하였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활비를 범주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50만 원 미만의 소비계층은 1차년도 9.4%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8차년도 조사에서는 3.7%까지 감소한 반면, 월 25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계층은 1차년도에는 29.6%였으나 차수가 지날수록 꾸준히 증가하여 8차년도에는 4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항목별 생활비 비중¹⁵⁾을 살펴보면(표 4-4 참조), 월평균 식비는 40만 원으로, 식비가 전체 생활비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16.6%)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교육비 부담 정도를 살펴보면, 월평균 공교육비는 11만 원, 사교육비는 월평균 15만 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월평균 용돈의 경우에는 같이 사는 부모님은 1만 원, 자녀는 12만 원, 그

〈표 4-3〉 연도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통합표본)

(단위: 가구, %)

	1차 (’08)	2차 (’09)	3차 (’10)	4차 (’11)	5차 (’12)	6차 (’13)	7차 (’14)	8차 (’15)
전 체	6,501	6,333	6,304	6,354	6,377	6,471	6,562	6,614
50만 원 미만	9.4	6.6	6.7	5.7	5.8	5.0	4.2	3.7
50만~100만 원 미만	14.3	13.6	13.0	11.9	11.6	11.5	11.4	10.8
100만~150만 원 미만	16.0	16.2	15.0	14.9	14.3	13.3	13.4	14.0
150만~200만 원 미만	15.9	16.0	13.9	14.1	13.6	14.9	14.4	13.4
200만~250만 원 미만	14.8	14.9	15.2	14.8	15.4	15.1	14.4	14.5
250만~300만 원 미만	9.8	10.1	10.3	10.6	10.1	10.0	11.1	11.2
300만 원 이상	19.8	22.5	25.9	28.0	29.2	30.3	31.1	32.5
월평균 생활비(만 원) (변동계수)	195 (0.010)	203 (0.010)	215 (0.010)	223 (0.010)	227 (0.010)	230 (0.010)	233 (0.010)	239 (0.010)

주: 괄호 안의 수치는 가중치를 적용한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임.

15) 한국노동패널 2, 4~19차년도(통합표본 1~8차년도) 조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의 평균 생활비 항목 외에도 각각의 생활비 항목별 액수를 함께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사용된 ‘전체 생활비’는 항목별 생활비의 합계를 기준(100%)으로 설정하고 분석한 것이다.

〈표 4-4〉 8차('15) 주요 항목별 생활비 비중(통합표본)

(단위: 만 원, %)

	항목별 월평균 생활비	생활비에서의 비중
식비	40	16.6
외식비	12	5.0
공교육비	11	4.8
사교육비	15	6.3
차량유지비	21	8.6
주거비	21	8.6
경조사비	7	2.9
보건의료비	6	2.6
문화비	10	4.1
내구재	3	1.2
통신비	13	5.4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	1	0.3
자녀 용돈	12	4.9
그 외 가구원의 용돈	23	9.5
피복비	8	3.3
현금 및 기부금	4	1.6
국민연금	11	4.5
의료보험	11	4.4
대중교통비	6	2.5
생필품구입비	5	2.1
기 타	2	0.7
전체 생활비	239	100.0

외 가구원은 23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의 액수가 적은 이유는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가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생필품 구입비는 월평균 5만 원으로 전체 생활비의 2.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비는 13만 원을 지출(전체 생활비의 5.4%)하여 꽤 높은 편에 속한다.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은 각각 11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저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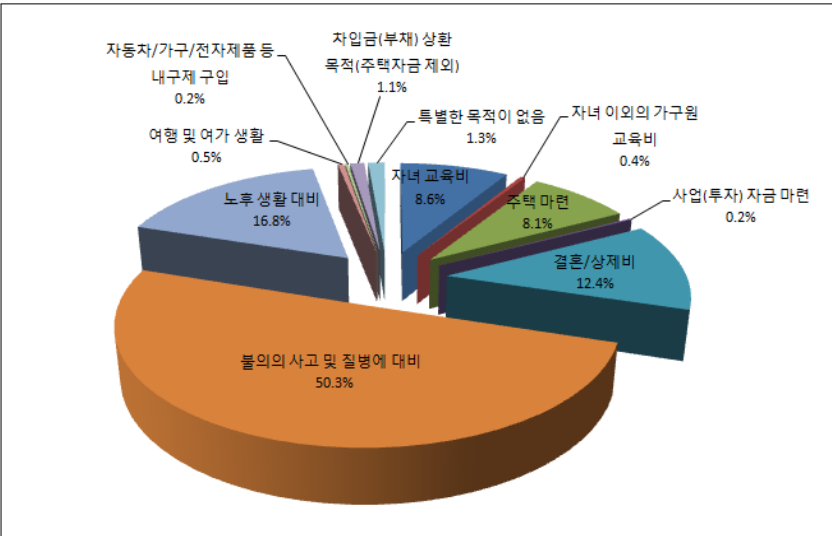
8차년도 조사가구 중에서 저축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72.4%이며, 월평균 저축액은 70만 4천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5 참조).

1~8차년도 기간 동안 저축을 한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1차년도는 55.1%로 다소 낮은 비중을 보였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6차년도에는 71.7%로 나타났다. 그러나 7차년도에는 소폭 감소한 70.6%였으나 8차년도에 72.4%로 다시 증가하였다.

〈표 4-5〉 연도별 가구의 저축 유무 및 월평균 저축액(통합표본)
(단위: 가구, %, 만 원)

	1차 (’08)	2차 (’09)	3차 (’10)	4차 (’11)	5차 (’12)	6차 (’13)	7차 (’14)	8차 (’15)
전 체	6,721	6,398	6,388	6,434	6,457	6,493	6,577	6,634
저축 안함	44.9	39.5	37.1	35.4	32.2	28.3	29.4	27.6
저축함	55.1	60.5	62.9	64.6	67.8	71.7	70.6	72.4
월평균 저축액	44.4	49.1	52.3	56.6	62.7	65.5	66.5	70.4

〔그림 4-2〕 8차(’15) 가구의 저축 목적 분포(통합표본)



월평균 저축액의 변화는 1차년도 44만 4천 원에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8차년도에는 70만 4천 원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8차년도에 저축을 한 가구의 저축 목적을 살펴보면 [그림 4-2]와 같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의의 사고 및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로 전체 응답가구 중 50.3%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노후 생활 대비’와 ‘결혼/상제비’가 각각 16.8%와 12.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세 가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4/5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교육비’는 8.6%,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을 하고 있다는 가구의 비중은 8.1%로 나타났다.

3.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이 항에서는 따로 사는 가족들과의 경제적 교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KLIPS는 4차년도 이후 따로 사는 부모님과과의 경제적 교류에 관해 조사해 왔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의 존재 여부, 부모님과 의 왕래 빈도, 경제적 교류 여부, 부모님과과의 경제적 교류 정도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따로 사는 부모님과과의 교류에 대해서만 파악이 가능할 뿐, 따로 사는 자녀들과의 교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9차년도 조사부터는 따로 살고 있는 자녀들과의 교류에 관한 설문을 추가하여, 가구의 사적 이전에 관한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조사하였다. 또한, 현금과 현물을 구분하지 않고 조사하던 8차년도 이전 조사와는 달리 9차년도부터는 현금 교류액과 현물 교류액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가 있었는지는 <표 4-6>을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가구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이 있었다는 응답이 28.8%였으며,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이 있었던 경우는 28.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받은 도움이 있다는 응답이 80.9%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대로 가구주의 부모님과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께 드린 경제적 도움은 각각 85.1%, 88.8%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따로 사는 자녀에게 준

도움은 38.9%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경제적 교류는 자녀 세대에서 부모 세대로 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제적 교류 액수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다. 즉 경제적 교류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드린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주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연간 평균 330만 8천 원,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158만 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따로 사는 자녀에게 준 금액은 405만 7천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가구주와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께 드렸던 금액은 각각 160만 4천 원, 118만 2천 원에 그쳤으며,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받은 금액 또한 298만 9천 원으로 큰 편차를 보였다. 이는 자녀 세대에서 부모 세대로 이전되는 소득의 경우 적은 액수를 정기적으로 보내는 형태인 데 반해, 부모 세대의 자녀 세대에 대한 지원은 결혼자금, 학자금과 같이 목돈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표 4-6> 8차('15)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여부(통합표본)

(단위: 가구, %)

	가구주의 부모님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		따로 사는 자녀	
	받은 도움	드리는 도움	받은 도움	드리는 도움	받은 도움	주는 도움
전 체	3,099		2,611		2,739	
없었음	71.2	15.0	71.6	11.2	19.2	61.1
있었음	28.8	85.1	28.4	88.8	80.9	38.9

<표 4-7> 8차('15)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액수(통합표본)

(단위: 만 원)

	가구주의 부모님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		따로 사는 자녀	
	받은 금액	드렸던 금액	받은 금액	드렸던 금액	받은 금액	주었던 금액
지난해 연간총금액	463.2	191.8	230.5	145.9	355.0	480.1
현 금	330.8	160.4	158.0	118.2	298.9	405.7
현 물	132.4	31.4	72.5	27.6	56.1	74.4

한편, 교류액을 보면 대체적으로 현물보다는 현금을 통한 교류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 부모님과 경제적 교류액이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과 경제적 교류액에 비해 현격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3절 주거형태 및 비용

이 절에서는 통합표본 8차년도 패널가구의 주거형태와 비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패널조사에서는 매년 주거와 관련해 입주형태 및 주택의 종류, 주택의 평수, 주거지의 시가 및 전·월세금 등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으며, 11차년도 조사부터는 현재의 거주지로 이사 오게 된 동기를 묻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입주형태는 자가·전세·월세·기타로 구분되며,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타로 구분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을 말하고,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200평(660m²)을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을 의미한다. 또한 다세대주택이란 동당 건축연면적이 200평(660m²)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을, 상가주택은 1·2층은 점포나 사무실이고 3층 이상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고층의 병용주택(빌딩)을 뜻한다.

자기 집인 경우, 단독주택은 대지면적과 연건평, 주거지의 시가 등을 기재하게 하였다. 전세인 경우 주택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해당 가구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기재 없이 실제로 사용하는 주거면적의 평수를 기재하게 하였고 전세금(임대보증금)과 월세금을 기재하게 하였다. 전세의 경우 월세금을 기재하게 한 것은 주택의 소유형태가 전세일지라도 전세금 외에 월마다 돈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만약 전세금 이외에 더 내는 돈이 월 10만 원 이상이라면 입주형태가 월세가 아닌지 재차 확인하게 하였다. 월세의 경우도 전세와 마찬가지로 실제 사용평수와 월세금을 기재하게 하였다.

1. 입주형태 및 주거비용

먼저 <표 4-8>을 통해 8차년도 입주형태의 분포를 살펴보면,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가 59.7%로 가장 높고, 이어서 전세 17.5%, 월세 16.8%로 나타났다. 1~8차년도 입주형태의 추이를 살펴보면, 자가 소유자의 비중이 6차년도까지는 58% 정도를 유지하다가 7차년도 58.5% 그리고 8차년도 59.7%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전·월세의 비중은 1차년도 37%에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며 8차년도에는 34.3%(0.9%포인트 감소)로 나타났다.

[그림 4-3]을 통해 거주지별 자가의 평균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지면적의 경우, 도 지역이 서울과 광역시의 약 2배로 높게 나타났으나, 연건평이나 시가는 서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이 타 지역에 비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정원이 나 마당, 차고 같은 대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반면, 실제 주거 공간은 가능한 한 넓게 확보하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도 지역의 대지면적은 평균 105.8평인 데 비해서 광역시는 55.6평, 서울은 44.7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인 연건평은 서울이 가장 넓은 53.1평인 데 비해서 광역시와 도 지역은 각각 37.5평, 31.7평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의 시가를 비교해 보면, 서울이 가장 높은 3억 9,385만 원인 데

<표 4-8> 연도별 가구의 입주형태 분포(통합표본)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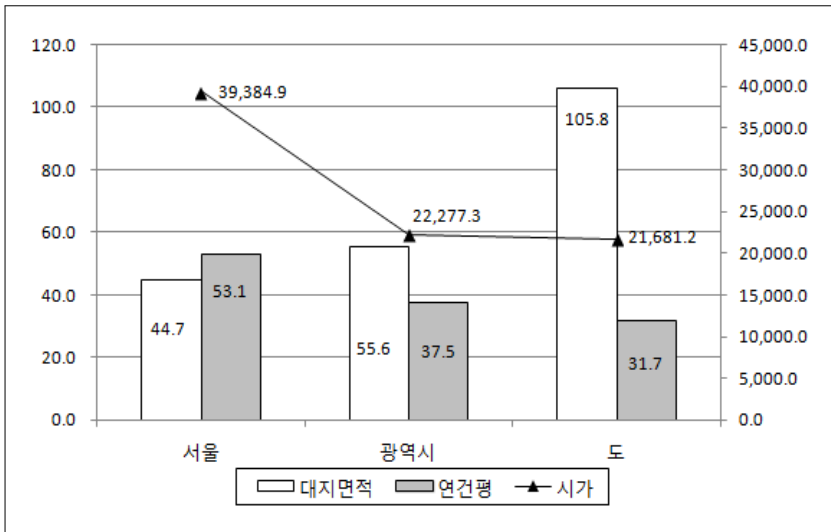
	1차 (’09)	2차 (’10)	3차 (’11)	4차 (’12)	5차 (’13)	6차 (’14)	7차 (’15)	8차 (’16)
전 체	6,721	6,397	6,387	6,431	6,456	6,489	6,577	6,631
자 가	57.6	57.6	57.8	58.0	57.9	58.1	58.5	59.7
전 세	23.0	23.4	20.9	19.9	19.7	19.8	19.2	17.5
월 세	14.0	13.1	15.1	15.5	15.8	15.6	16.0	16.8
기 타	5.5	5.8	6.3	6.5	6.7	6.6	6.2	6.0

주: ‘전체’는 가구의 입주형태를 응답한 가구수를 의미함(무응답 가구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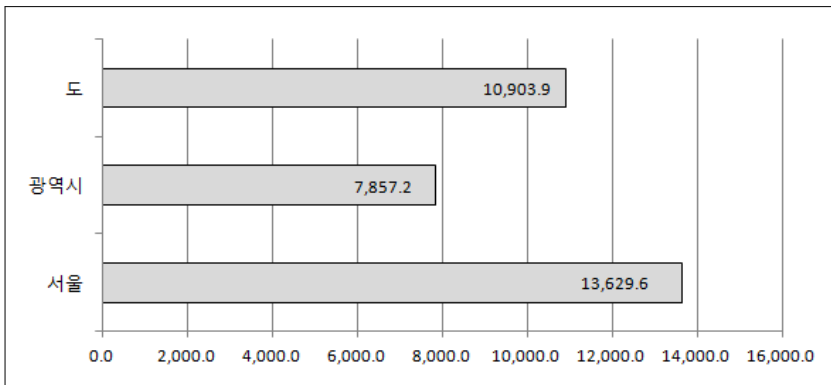
비해 광역시는 서울의 57% 정도에 해당하는 2억 2,277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도 지역의 경우에는 이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 2억 1,68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림 4-4] 및 [그림 4-5]는 거주지가 전세 혹은 월세인 경우 전·월세금을 비교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전세 거주 응답자의 평

[그림 4-3] 8차('16) 거주지별 자가의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통합표본)
(단위: 평,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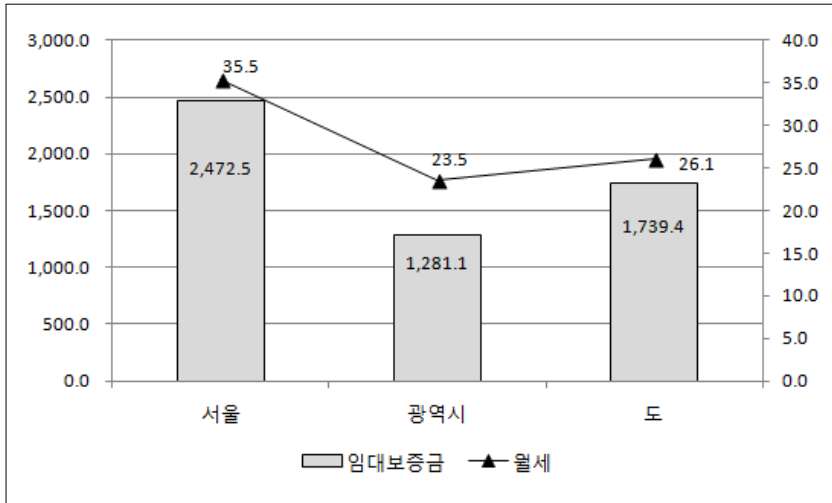


[그림 4-4] 8차('16) 거주지별 전세 거주자 임대보증금(통합표본)
(단위: 만 원)



〔그림 4-5〕 8차('16) 거주지별 월세 거주자 임대보증금 및 월세(통합표본)

(단위: 만 원)



균 임대보증금은 1억 3,630만 원으로 광역시(7,857만 원)보다 73% 정도 높고, 도 지역(10,904만 원)보다도 25%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월세 거주자의 거주지별 보증금/월세를 살펴보면, 월세는 서울이 월 35만 5천 원으로 가장 높았으나 도와 광역시가 각각 26만 1천 원과 23만 5천 원으로 두 지역 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월세에 약 임대보증금은 평균 2,473만 원으로 광역시(약 1.9배)나 도(약 1.4배)보다 높았다.

2. 주택의 종류

<표 4-9>는 연도별 가구의 주택 종류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8차년도 조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의 종류는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51.4%)이며, 다음으로는 단독주택이 21.9%를, 다세대주택이 12.1%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연립주택 비중은 9.6%이며 상가주택은 3.3%를 차지하였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주택 종류별 추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아파

〈표 4-9〉 연도별 가구의 주택 종류 분포(통합표본)

(단위: 가구, %)

	1차 (‘09)	2차 (‘10)	3차 (‘11)	4차 (‘12)	5차 (‘13)	6차 (‘14)	7차 (‘15)	8차 (‘16)
전 체	6,721	6,398	6,388	6,434	6,457	6,492	6,574	6,634
단독주택	29.6	27.4	27.0	25.9	24.9	23.7	22.5	21.9
아파트	45.7	48.2	48.6	49.0	49.8	50.4	51.3	51.4
연립주택	10.1	10.2	10.2	10.2	10.0	9.4	9.3	9.6
다세대주택	10.0	9.6	9.6	10.2	10.7	11.2	11.9	12.1
상가주택	3.5	3.2	3.4	3.3	3.2	3.2	3.0	3.3
기 타	1.1	1.5	1.2	1.4	1.5	2.1	2.0	1.7

주: ‘전체’는 가구의 주택 종류를 응답한 가구수를 의미함(무응답 가구 제외).

트 거주자가 1차년도 45.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8차년도에 이르러서는 5.7%포인트 증가한 51.4%인 반면, 단독주택의 거주자는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의 ‘주택총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단독주택 비중의 감소(2000년 49.9%→2016년 36.4%), 아파트의 비중 증가(2000년 36.8%→2016년 49.9%)라는 추세가 KLIPS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주거지의 선택

현재의 거주지로 이사하게 된 동기를 묻는 문항이 있다. 이는 지역 내 혹은 지역 간 이동이 발생할 경우 그 주된 동기를 관찰하기 위한 것이며, 이사를 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살아왔다’로 응답을 받는다. <표 4-10>은 8차년도 응답가구들이 현재 거주지로 이사 온 동기를 응답 빈도가 높은 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가장 주된 이사 동기 세 가지를 살펴보면, ‘내집 마련’이 29.6%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집값이나 전세금이 저렴해서’와 ‘평수를 넓히거나 줄이려고’가 각각 12.2%, 11%로 나타났다.

〈표 4-10〉 8차('16) 가구의 현재 거주지로의 이사 동기(통합표본)

이사 동기	비중(%)
내집 마련	29.6
집값이나 전세금이 저렴해서	12.2
평수를 넓히거나 줄이려고	11.0
취업/창업	7.5
현재 다니는 직장/학교의 통근 편의를 위해	6.7
신혼집 마련	5.9
환경 및 건강 때문에	5.0
보육 혹은 부모 봉양 때문에 가족/친지와 가까이 살기 위해	4.9
동일 직장 내 근무지 이동	4.6
어려서부터 살아왔다	3.2
인근의 편의시설 때문에(마트, 공원, 복지시설 등)	3.1
기타	2.7
집값이 오를 것이라 여겨져서	2.0
자녀 교육 때문에	1.8
전 체	100.0

제4절 자산 및 부채

이 절에서는 통합표본 8차년도 응답가구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패널조사에서 자산은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소득이나 지출 문항과는 달리 해당 연도의 현재를 기준(8차년도의 경우 2016년 현재)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먼저 부동산자산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제외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 임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의미하며, KLIPS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이나 건물, 임야, 토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있는지 여부(부동산 임대 여부)와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지 여부(부동산 임차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다. 금융자산에는 은행예금, 주

식, 채권, 신탁, 보험, 아직 타지 않은 계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포함된다. 패널조사에서 부채는 금융기관이나 비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 쓴 돈이 있는지 여부와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갯돈 등을 포함한다.

1. 부동산자산

먼저 부동산자산을 살펴보면, 8차년도 패널 응답가구 중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20.1%로 전년도에 비해 0.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1 참조).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자산에 대한 시가 총액 분포를 살펴보면, 8차년도의 경우 1억~3억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7.5%로 전년도에 이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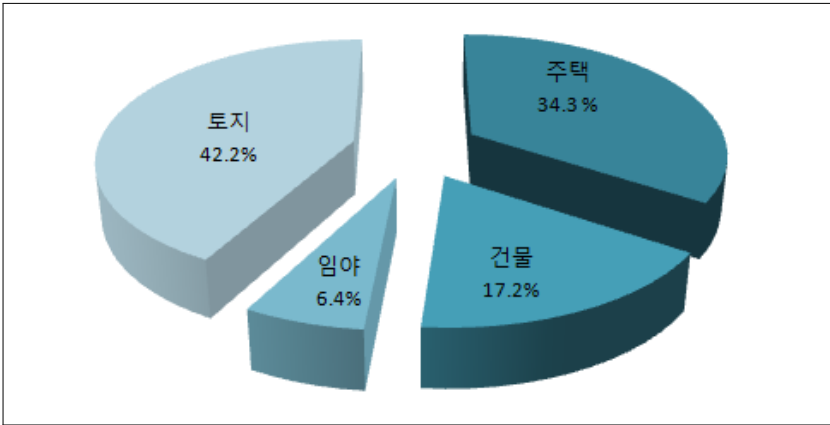
부동산 시가가 10억 원 이상인 가구는 1차년도에 6.2%였으나 2차년도에 4.4%로 1.8%포인트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여 5차년도 이후에는 6%

〈표 4-11〉 연도별 부동산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통합표본)

(단위: 가구, %)

	1차 (‘09)	2차 (‘10)	3차 (‘11)	4차 (‘12)	5차 (‘13)	6차 (‘14)	7차 (‘15)	8차 (‘16)
전 체	6,721	6,398	6,388	6,434	6,457	6,493	6,577	6,634
부동산 소유 여부								
없 음	77.0	78.3	78.8	78.0	79.1	78.7	80.1	79.9
있 음	23.0	21.7	21.2	22.0	21.0	21.3	19.9	20.1
1천만 원 미만	3.3	3.3	3.2	1.7	1.7	1.4	1.0	0.5
1천만~5천만 원 미만	16.1	15.7	12.5	15.4	12.1	12.1	11.4	11.8
5천만~1억 원 미만	21.0	18.6	18.4	17.9	17.8	19.6	15.7	15.4
1억~3억 원 미만	33.4	35.4	35.8	34.7	36.8	36.9	37.1	37.5
3억~5억 원 미만	11.7	13.6	13.4	16.0	15.8	14.8	16.6	17.5
5억~10억 원 미만	8.2	8.9	11.3	8.4	9.5	9.6	12.0	10.7
10억 원 이상	6.2	4.4	5.4	5.9	6.3	5.6	6.0	6.5
잘 모르겠음	0.1	0.1	-	0.0	-	-	0.3	0.1

[그림 4-6] 8차('16) 소유 부동산자산의 종류 분포(통합표본)



주: 이 항목은 복수설문이므로 각 %는 전체 응답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임.

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8차년도에는 6.5%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가가 3억~10억 원 미만인 경우는 1차년도에 19.9%이던 것이 꾸준히 증가하여 5차년도에 25.3%였으며, 이후 소폭 감소한 후 8차년도에는 28.2%로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8차년도 조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산의 종류에 대한 조사 문항은 가구당 최대 5개 종류까지 복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4-6]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산의 종류를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토지로 전체 응답 중 42.2%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주택이 34.3%, 건물이 17.2%, 임야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금융자산

<표 4-12>를 통해서 8차년도에 조사된 가구의 금융자산을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는 1차년도가 58.2%로 가장 낮은 비중이며 8차년도에는 77%로 나타나, 금융자산의 추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각 연도별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4차년도를 제외하고는 1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8차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315만 원이 증가하여 3,377

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8차년도 조사에서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의 금융자산 규모별 비중을 살펴보면, 1,000만~5,0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이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250만 원 미만인 가구가 6%, 250만~5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4.5%, 500만~1,0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1,000만~5,000만 원 미만인 가구를 기준으로 이보다 금융자산이 적은 가구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금융자산이 이보다 많다고 응답한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그림 4-7]을 통해서 금융자산의 종류별 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지속되어 온 완만한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의 절대적 비중 및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주식/채권/신탁과 같은 제2금융권의 금융자산 비중은 3차년도까지 증가하다가 4차년도에 감소한 다음,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8차년도에는 전년 대비 639만 원 상승한 5,361만 원이었다. 한편, 은행예금은 1차년도의 2,829만 원에서 2차년도에 약간 감소한 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8차년도에는 3,495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4-12〉 연도별 금융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통합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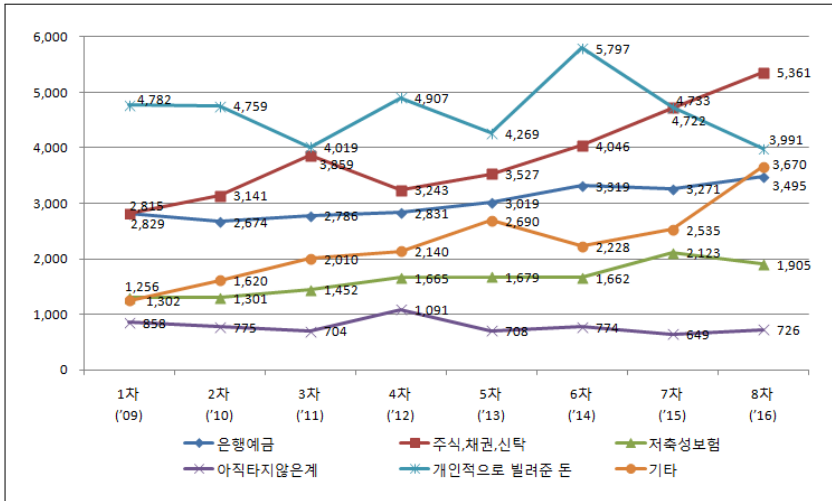
(단위: 가구, %)

	1차 (‘09)	2차 (‘10)	3차 (‘11)	4차 (‘12)	5차 (‘13)	6차 (‘14)	7차 (‘15)	8차 (‘16)
전 체	6,664	6,375	6,388	6,377	6,371	6,381	6,501	6,557
없음	41.8	38.0	37.3	35.9	34.6	27.2	26.3	23.0
250만 원 미만	6.3	6.3	6.0	5.7	6.6	6.8	5.8	6.0
250만~500만 원 미만	4.1	4.7	4.6	4.1	4.5	4.8	4.2	4.5
500만~1천만 원 미만	10.0	10.1	10.0	9.3	10.2	10.4	10.2	10.3
1천만~5천만 원 미만	27.5	29.8	30.2	32.8	31.4	34.3	35.8	36.1
5천만~1억 원 미만	6.0	6.5	6.7	7.1	7.3	9.9	10.4	11.4
1억 원 이상	4.4	4.6	5.3	5.1	5.4	6.6	7.4	8.7
평 균(만 원)	1,934	2,009	2,108	2,091	2,243	2,875	3,062	3,377

주: 금융자산 시가 총액의 평균은 금융자산이 0인 가구를 포함한 수치임.

〔그림 4-7〕 연도별 금융자산의 종류별 평균금액 추이(통합표본)

(단위: 만 원)



주: 해당 자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 후 계산함.

제2금융권의 금융자산과 은행예금의 차이를 살펴보면, 1차년도에는 은행예금이 2,829만 원으로 주식/채권/신탁(2,815만 원)보다 14만 원 정도 많았다. 그러나 2차년도부터 주식/채권/신탁이 은행예금을 추월하여, 이후 그 격차가 꾸준히 벌어지면서 3차년도에 가장 크며, 다시 4차년도에 격차가 작아진 이후 꾸준히 벌어지면서 8차년도에 1,866만 원으로 가장 커졌다.

저축성보험금은 1차년도 1,302만 원에서 8차년도 1,905만 원으로 나타났으나 뚜렷한 추세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계의 경우에는 그 액수도 크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변동폭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가구의 부채

8차년도 조사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43.7%를 차지하여 1차년도 조사(48.1%) 당시보다 4.4%포인트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3 참조).

반면 평균 부채 잔액의 추세를 살펴보면, 1차년도 3,396만 원에서 8차

〈표 4-13〉 연도별 부채 잔액 분포(통합표본)

(단위: 가구, %)

	1차 (’09)	2차 (’10)	3차 (’11)	4차 (’12)	5차 (’13)	6차 (’14)	7차 (’15)	8차 (’16)
전 체	6,680	6,394	6,365	6,410	6,422	6,461	6,555	6,612
부채 없음	51.9	56.1	55.8	55.1	54.9	55.3	55.4	56.3
500만 원 미만	4.5	2.3	3.0	2.6	2.3	2.1	2.1	1.9
500만~1천만 원 미만	3.7	3.6	3.5	3.0	2.8	2.6	2.2	2.2
1천만~5천만 원 미만	20.7	18.6	18.2	18.3	17.6	17.4	16.2	15.0
5천만~1억 원 미만	9.0	8.6	8.2	8.8	9.2	9.1	9.8	9.6
1억 원 이상	10.2	10.8	11.4	12.2	13.2	13.5	14.4	15.1
평 균(만 원)	3,396	3,487	3,641	4,118	4,268	4,348	4,489	4,683

주: 가구의 부채 잔액 평균은 0을 포함한 평균값임.

년도에는 4,683만 원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채가 없는 가구의 비중은 1차년도에 51.9%였다가 2차년도에는 4.2%포인트 증가한 56.1%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6차년도부터 다시 조금씩 증가하여 8차년도에는 전년 대비 0.9%포인트 증가한 56.3%로 조사되었다.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 잔액은 1억 원 이상인 경우가 15.1%, 1,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1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는 1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8차년도에는 15.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5절 자녀 교육비

KLIPS는 자녀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항목을 측정해 오고 있다. KLIPS 조사가 처음 실시된 1차년도(1998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이용 여부, 이용하는 종류와 이용 횟수, 이용 시간, 그리고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월평균 수업료 등의 항목을 최대 다섯 가지까지 조사하였으며, 자녀의 사교육과 탁아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 정도를 ‘매우 부담된다’에서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들 항목에 대해서 2차년도(1999년)에는 조사가 되지 않았고, 3차년도(2000년) 이후부터는 조사 대상이 재수생 이하 자녀로, 그리고 7차년도(2004년) 조사부터는 대학(원)생 자녀까지 확대하였다.

한편, 7차년도 조사에서 신설된 대학(원)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 항목은 학교 또는 회사 등을 통해 제공받는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가구가 부담한 정규학교 등록금과 그 외 지출비용(학원비, 교재비, 생활비, 기타 교육관련 잡비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11차년도 조사부터는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등록금 외 지출비용 중 취업준비 등을 위한 사교육비를 따로 묻고 있다. 그리고 16차년도(통합표본 5차)부터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0세~만 5세 이하 자녀와 만 6세~재수생 자녀로 구분하였고, 0세~만 5세 이하 자녀에게는 보육 및 양육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우선 각 가구의 자녀 유무와 자녀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표 4-14>와 같다. 0세~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36.2%였으며, 1명인 경우가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만 6세~재수생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75.5%였으며, 1명인 경우가 56.3%였으나 2명인 경우도 43.3%를 차지하였다. 이에 반해 15.8%의 가구만이 대학생 자녀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대학생 자녀는 1명인 경우가 7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표 4-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0세~만 5세 이하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 원이고 자녀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 6천 원인 것으로, 만 6세~재수생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 9천 원이고 자녀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9천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교육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0세~만 5세 이하의 경우는 31.1%이고 만 6세~재수생은 74.9%에 달했으며, 특히 만 6세~재수생을 둔 가정의 대부분이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연평균 1,192만 7천 원의 교

〈표 4-14〉 8차('16) 가구 내 자녀 유무 및 자녀수(통합표본)

(단위: %)

		0세~만 5세 이하	만 6세~재수생	대학생 이상
자녀 유무	있음	36.2	75.5	15.8
	없음	63.8	24.5	84.2
자녀수	1명	70.0	56.3	74.7
	2명	28.2	43.3	24.9
	3명 이상	1.9	0.4	0.4

〈표 4-15〉 8차('16) 자녀의 사교육비 및 부담 정도(통합표본)

(단위: %)

		0세~만 5세 이하(월평균)	만 6세~재수생 (월평균)	대학생 이상 (연평균)
(사)교육비 부담 정도	매우 부담된다	5.4	27.7	52.4
	약간 부담된다	25.7	47.2	31.5
	보통이다	33.5	18.9	12.9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19.5	5.0	3.0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15.9	1.3	0.1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만 원)		43.0	60.9	1,192.7(579.1)
자녀당 평균 (사)교육비(만 원)		32.6	41.9	948.3(460.5)

주: 괄호 안의 값은 연간 정규학교 등록금임.

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당 연평균 948만 3천 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생 이상 자녀의 총 교육비 중 정규학교 등록금만 살펴보면, 가구당 연평균 579만 1천 원, 자녀당 연평균 460만 5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비 부담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경우보다도 많은 83.9%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에는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중도 절반 이상(52.4%)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가구는 대학 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 5 장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KLIPS는 98표본의 1차년도(1998년)부터 매년 만 15세 이상의 모든 개인에 대해서 경제활동참가 여부, 취업형태, 구직활동 등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조사 항목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2016년도 통합표본 제8차 KLIPS에 나타난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와 1차년도(2009년)부터 8차년도(2016년)까지 8년간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2009년 추가표본을 포함한 통합표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개인 응답자들을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제2절에서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직업별 인구학적 분포를, 제3절에서는 미취업자들의 구직방법과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1절 경제활동상태

<표 5-1>은 1~8차년도 기간 동안 조사된 개인 원표본 사례수 추이를 제시하였다. 개인 종단면 가중치는 원표본 개인에 대해서만 0을 초과하는 값이 부여되므로, 이 표는 종단면 가중치를 0보다 크게 부여받은 개인 표

〈표 5-1〉 연도별 분석 자료의 사례수(통합표본)

(단위: 명)

		전 체	개인 자료	신규 자료
1차('09)		14,470	14,470	
2차('10)		13,472	13,148	324
3차('11)		13,133	12,847	286
4차('12)		13,025	12,795	230
5차('13)		12,820	12,613	207
6차('14)		12,088	12,068	20
7차('15)		12,735	12,399	336
8차('16)	종단 사례수	12,773	12,572	201
	횡단 사례수	13,485	13,143	342

주: 1~8차년도 사례수는 종단면 가중치 0을 초과한 값을 부여받은 사례수이며, 8차년도는 종단 사례수와 횡단 사례수를 같이 제시함. 횡단 사례수는 횡단면 가중치 0을 초과한 값을 부여받은 사례수를 나타냄.

본수다. 개인 원표본 사례수도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넘어가면서 급격히 줄었으나 그 이후로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다가 7차년도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횡단면 가중치는 조사 원칙에 따라 조사된 모든 개인 표본에 부여되므로 종단 개인 원표본보다 많은데, 8차년도의 경우 712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LIPS의 경제활동상태 구분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상태 구분과는 다소 다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상태는 15세 이상으로 조사 대상 기간¹⁶⁾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 수입이 있는 일을 했으면 취업자로, 일은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하여, 이들을 묶어 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였다. 반면 KLIPS는 조사일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으면 취업자로 보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취업자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분된 미취업자 중 지난 1주(또는 4주)간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하였다. 이로 인해 조사일 이전 주에는 구직활동을 했지만 조사일이 있는 주에 일자리를 구해 조사 당시 일하고 있는 사람은 통계청 조사에서는 실업자로 분류되지만 KLIPS에서는 취업자로 분류된

16) 조사일 바로 전 주(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요일~토요일))가 조사 대상 기간이다.

다.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만 고려하면 되는 횡단면 조사와 달리, 종단적으로 바뀌는 모든 일자리 변동 상황을 기록해야 하는 KLIPS의 특성상 미취업자와 구분되는 의미로서 취업자를 정의할 때 현재 일하고 있는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오류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류법을 적용하였다.

<표 5-2>는 조사 연도별로 경제활동상태를 요약하였다. 먼저 취업자는 조사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조금이라도 일을 한 사람(취업자)”, 혹은 “가족 또는 친지를 위해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한 사람(무급가족종사자)”이 포함된다. 1차년도 조사 당시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54.1%로 나타난 취업자 비중은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여 8차년도의 경우 56.4%로 조사되었다. 실업자¹⁷⁾의 비중은 1차년도에 2.3%에서 2차년도에 하락하였다가 8차년도에는 1.3%를 기록하였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8차년도 현재 42.3%를 기록했다.

[그림 5-1]과 [그림 5-2]는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실업률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활조사)와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경활조사와 비교해 볼 때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은 약 4~5%포인트 정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실업률은 2009년 통합표본 1차년도 4.5%로 경활의 3.6%보다 0.9%포인트 높았으나, 2010년부터는 오히려 경활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¹⁸⁾

17) 현재 공식 통계에서 사용되는 실업자의 정의는 크게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시한 기준과 OECD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ILO 기준은 “지난 1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지난주 취업 가능했던 자”로 규정한 데 반해, OECD 기준은 “지난 1개월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지난주 취업 가능했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 OECD 기준으로 실업률을 공표하고 있다. KLIPS에서는 두 지표 모두 이용 가능하다.

1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차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상호(2015), 「노동패널 고용지표의 신뢰성 검토」, 『노동패널자료 연구(I)-패널자료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참조.

〈표 5-2〉 연도별 경제활동상태 비교(통합표본)

(단위: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1차('09)	54.1 (54.1)	2.3 (2.6)	43.6 (43.3)
2차('10)	55.4 (55.4)	1.4 (1.6)	43.2 (43.1)
3차('11)	56.4 (56.4)	1.5 (1.8)	42.1 (41.8)
4차('12)	56.5 (56.5)	1.6 (1.9)	41.9 (41.6)
5차('13)	56.6 (56.6)	1.4 (1.6)	42.1 (41.8)
6차('14)	56.9 (56.9)	1.4 (1.6)	41.7 (41.5)
7차('15)	56.4 (56.4)	1.3 (1.6)	42.4 (42.0)
8차('16)	56.4 (56.4)	1.3 (1.6)	42.3 (42.0)

주: 1) ILO 기준 실업자 정의. 괄호 안은 OECD 기준 실업자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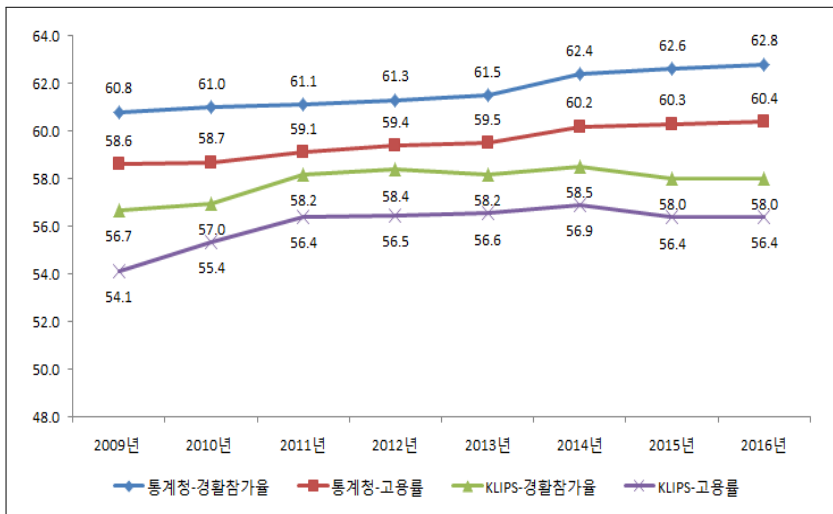
2) 합쳤을 때 100.0이 안 되거나 넘는 경우는 모두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100.0이 되는 경우들임.

3) 비중은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100.0이 되도록 계산되어 있으므로, 실업자는 15세 이상 인구 중 실업자 비중이지 실업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님.

4) 각 연도 종단면 가중치를 이용하여 계산.

〈그림 5-1〉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비교(2009~2016년)

(단위: %)



주: 1)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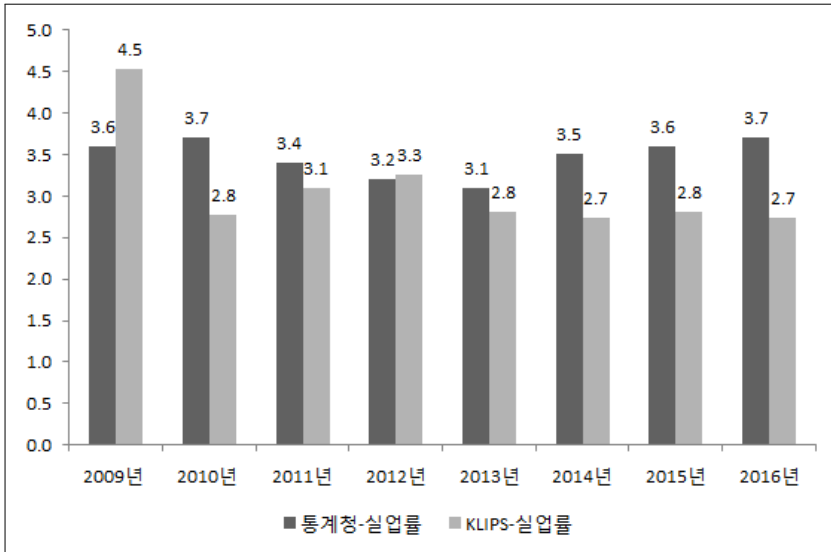
2) 고용률 = 취업자/15세 이상 인구×100.

3) 실업자를 OECD 정의에 근거해 산출했을 경우 계산되는 경제활동인구 비율.

4)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각 차수를 해당 연도로 표시하였음.

[그림 5-2] 연도별 실업률 비교(2009~2016년)

(단위: %)



주: 1) 실업률 = 실업자(OECD 기준)/경제활동인구 × 100.

2)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각 차수를 해당 연도로 표시하였음.

제2절 취업자의 특성

<표 5-3>과 <표 5-4>는 산업별로 KLIPS와 경찰조사의 취업자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KLIPS에서도 경찰조사와 마찬가지로 1차, 2차 산업 비중은 소폭 감소하고, 3차 산업 비중은 소폭 증가한 추이로 볼 때 KLIPS와 경찰조사의 취업자 분포는 큰 격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는 KLIPS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직업별 종사자 분포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전문관리직, 사무직, 생산직은 증가하는 추세이고,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은 감소 추세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은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농림어업직, 생산직은 약간 감소 추세를 보이며, 서비스판매직은 2010년 약간 감소 추

〈표 5-3〉 KLIPS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2009~2016년)

(단위: %)

	1차 산업 (농림어업)	2차 산업 (광공업)	3차 산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2009	5.2	17.7	77.1
2010	5.0	18.2	76.8
2011	5.1	18.4	76.5
2012	4.8	18.4	76.8
2013	4.7	17.7	77.6
2014	4.6	17.7	77.8
2015	4.4	17.3	78.3
2016	5.0	16.8	78.2

주: 1) 각 연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2)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3) 1차 산업: 농업 및 임업, 어업을 포함.

2차 산업: 광업 및 제조업을 포함.

3차 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그리고 가사서비스업을 포함.

4)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각 차수를 해당 연도로 표기.

5) 합쳐서 100.0을 넘거나 안 되는 것은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100.0이 되는 경우임.

〈표 5-4〉 경찰조사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2009~2016년)

(단위: %)

	1차 산업 (농림어업)	2차 산업 (광공업)	3차 산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2009	7.0	16.4	76.6
2010	6.6	17.0	76.4
2011	6.4	16.9	76.7
2012	6.2	16.7	77.1
2013	6.1	16.8	77.2
2014	5.7	17.0	77.4
2015	5.2	17.4	77.5
2016	4.9	17.2	77.9

주: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표 5-5〉 KLIPS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2009~2016년)

(단위: %)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2009	23.4	16.6	22.1	4.9	33.1
2010	23.8	16.3	21.7	4.8	33.5
2011	23.6	16.3	22.2	4.7	33.1
2012	24.7	15.6	22.5	4.4	32.8
2013	24.6	16.7	22.1	4.3	32.4
2014	24.6	17.4	21.8	4.1	32.2
2015	25.2	16.5	22.1	4.0	32.3
2016	25.0	17.4	21.4	4.7	31.6

주: 1) 각 연도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2)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름.

3) 전문관리직에는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등을 포함. 서비스판매직에는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농림어업직에는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등을 포함. 생산직에는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 근로자 등을 포함.

4) 합쳐서 100.0을 넘거나 안 되는 것은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100.0이 되는 경우임.

〈표 5-6〉 경찰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2009~2016년)

(단위: %)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2009	21.2	15.3	23.4	6.5	33.7
2010	21.5	15.7	22.5	6.0	34.2
2011	21.5	16.5	22.1	5.9	34.1
2012	21.3	16.6	22.5	5.8	33.8
2013	21.4	16.8	22.4	5.7	33.7
2014	21.6	16.8	22.6	5.3	33.7
2015	21.5	17.0	22.5	4.8	34.3
2016	21.6	17.2	22.5	4.6	34.1

주: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름.

세를 보였다가 22%대에 머물렀다. 직업별 분포를 <표 5-6>에 제시된 경찰조사의 직업별 종사자 비중과 비교해 살펴보면, 연도별 추이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8차년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취업자의 산업·직업 및 인구학적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자. <표 5-7>은 취업자의 산업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은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20.5%로 가장 높고 여성은 공공서비스업의 비중이 29.4%로 가장 높다. 그다음으로는 남녀 모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종사자의 비중이

<표 5-7> 8차('16)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산업 분포(통합표본)

(단위: %)

		농림 어업	제조업	전기가 스수도 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 박업	운수및 통신업	금융 부동산 사업서 비스업	공공서 비스업	기타
성별	남 성	5.5	20.5	0.8	12.9	16.9	11.9	15.2	10.6	5.8
	여 성	4.6	13.8	0.2	1.9	23.9	3.9	13.4	29.4	9.0
연령	15~29세	3.7	18.0	0.2	4.3	25.4	6.4	13.7	20.9	7.3
	30~39세	0.6	20.7	0.9	5.5	15.3	8.3	17.6	26.3	4.7
	40~49세	1.3	16.5	0.4	9.9	19.1	9.9	14.3	21.3	7.4
	50~59세	4.9	20.2	0.7	9.1	23.4	8.6	10.8	15.0	7.3
	60세 이상	16.3	11.2	0.4	10.2	15.8	8.1	18.0	11.2	8.9
교육 수준	고졸 미만	18.3	15.4	0.0	11.0	19.8	6.4	11.0	8.9	9.3
	고졸	3.1	23.5	0.6	9.7	25.5	8.2	11.9	9.8	7.8
	대제/중퇴	1.4	14.1	0.5	6.3	34.5	9.3	10.8	17.2	6.0
	전문대졸	2.5	16.9	0.2	6.7	19.4	10.1	16.0	23.0	5.3
	대졸 이상	2.1	14.5	1.0	6.5	12.3	8.8	18.6	29.8	6.6

주: 1)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름.

2) 운수 및 통신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포함.

3) 금융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포함.

4) 공공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포함.

5) 기타: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25.4로 가장 높고, 30대는 공공서비스업(26.3%), 40대도 공공서비스업(21.3%), 50대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3.4%), 60대 이상에서는 금융 및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18.0%)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 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 및 건설업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그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금융 및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서비스업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표 5-8>은 취업자의 직업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분포에서 서비스판매자는 여성(14.4%)이 남성(6.1%)의 2배가 넘는 정도로 더 많이 종사하고 있는 데 비해서,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 정도 더 많이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는 전문관리직 종사자 비중이 높은 반면, 50~60세 이상은 생산직 종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는 농림어

<표 5-8> 8차('16)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 분포(통합표본)

(단위: %)

		고위임 직원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준전 문가	사무종 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 사자	농림어 업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관련 기능종 사자	장치,기 계조작 및조립 종사자	단순노 무종사 자
성별	남 성	2.1	19.6	14.1	6.1	10.4	5.3	14.3	16.4	11.7
	여 성	0.8	26.4	20.6	14.4	13.2	4.1	4.2	4.3	12.1
연령	15~29세	0.0	32.7	21.9	10.2	13.6	3.7	4.9	6.1	6.9
	30~39세	0.1	37.7	27.0	5.8	9.7	0.2	6.5	8.3	4.7
	40~49세	2.0	27.2	20.3	9.3	11.1	1.0	10.4	10.3	8.4
	50~59세	2.4	13.5	13.0	11.7	14.0	4.5	13.1	14.4	13.4
	60세 이상	2.1	7.3	4.3	10.2	9.0	15.8	12.0	14.3	25.1
교육 수준	고졸 미만	0.1	1.9	1.5	16.3	7.1	17.3	17.8	12.4	25.7
	고졸	0.6	7.2	11.0	11.9	16.3	2.9	14.0	20.5	15.7
	대재/중퇴	0.0	15.8	16.1	11.3	23.1	1.0	8.5	9.4	14.9
	전문대졸	1.5	30.9	21.4	7.6	12.3	2.4	7.6	10.5	6.0
	대졸 이상	3.4	44.3	28.2	4.8	7.1	1.9	3.9	3.1	3.4

주: 1)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에 따름.

2) 군인은 제외하였음.

업직을 제외하면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관리직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고졸 미만의 경우 전문관리직 종사자가 겨우 2.0%에 불과하지만, 대졸 이상은 47.7%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생산직에는 고졸 미만의 경우 55.9%인 반면, 대졸 이상의 경우에는 10.4%만 종사하고 있었다.

제3절 미취업자

1. 구직활동

구직방법은 구직자들이 직업탐색 과정에서 어떠한 수단을 이용하는지를 보여준다. 구직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 최대 3개까지 사용한 구직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여기서는 이들 구직방법 중 가장 주된 구직방법을 중심으로 미취업자의 구직행위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그림 5-3]은 미취업자의 가장 주된 구직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등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59.4%를 차지하였으며, 친구·친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그다음으로 많은 14.5%를 차지하였다. 전 일자리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응답이 9.4%, 신문, TV 등의 광고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가 4.4% 순으로 나타났다.

이제 좀 더 분석적으로 미취업자들이 구직을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연결망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자. 이러한 구분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여기서는 공식적 구직방법, 비공식적 구직방법, 직접 접촉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¹⁹⁾ 공식적 채널에 의한 구직방법으로

19) 이 외에도 연결망의 종류에 따라 사적 연결망을 이용한 방법, 제도적 연결망을 이용한 방법, 직접 지원으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KLIPS 5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의 제6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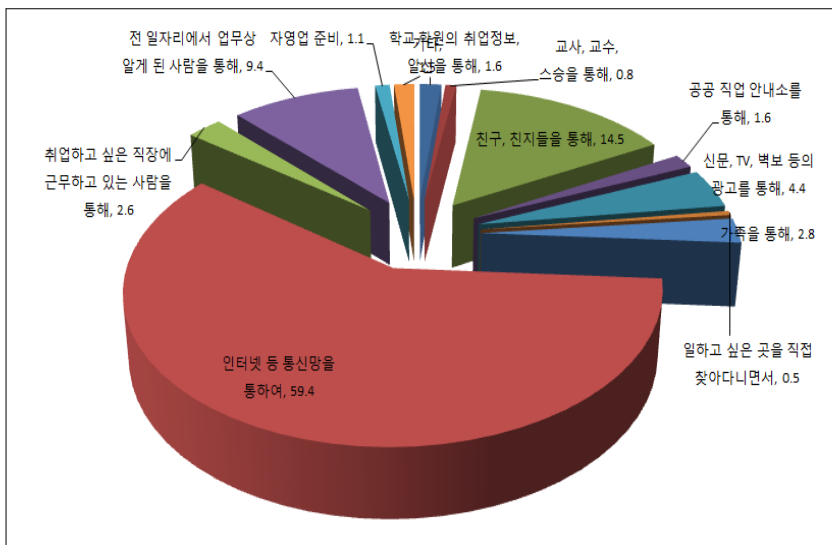
는 학교·학원·스승의 소개, 공·사설 직업안내소, 신문, TV와 같은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이용 등이 해당된다. 비공식적 채널에 의한 구직방법으로는 가족·친구·친지의 소개,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 전 일자리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직접 접촉이라 함은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원하는 경우다.

<표 5-9>는 이러한 구분법에 따라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로 구직방법의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결과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공식적 방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8차년도 들어 여성보다는 남성의 공식적 방법 사용 비중이 높아졌다.

연령별 구직방법의 비중을 살펴보면, 40대와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모든 연령층에서 공식적 방법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는 70%대 이상 수준으로 공식적 방법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거의 공식적 방법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림 5-3] 8차('16) 미취업자의 구직방법(통합표본)

(단위 : %)



〈표 5-9〉 8차('16) 특성별 구직방법(통합표본)

(단위: %)

		공식적 방법	비공식적 방법	직접 접촉	전 체
성 별	남 성	73.4	25.8	0.8	100.0
	여 성	63.7	36.3	-	100.0
연 령	15~29세	91.3	8.7	-	100.0
	30~39세	77.0	23.0	-	100.0
	40~49세	31.0	69.0	-	100.0
	50~59세	58.6	41.4	-	100.0
	60세 이상	32.2	60.6	7.2	100.0
교육수준	고졸 미만	28.5	64.2	7.2	100.0
	고졸	55.7	44.3	-	100.0
	대재/중퇴	83.2	16.9	-	100.0
	전문대졸	84.3	15.7	-	100.0
	대졸 이상	76.2	23.8	-	100.0

주: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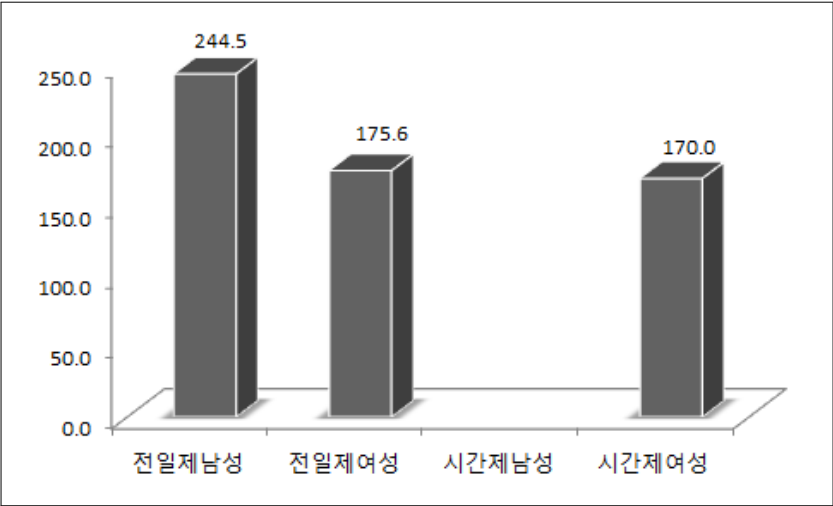
2. 희망 일자리의 특성

미취업자가 구직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하는 일자리의 고용형태와 근로 시간 형태, 희망임금,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자주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였다. 여기서는 희망임금, 구직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그림 5-4]에서 구직자가 평균적으로 희망하는 임금수준을 성별·근로시간 형태별로 살펴보면, 전일제를 선호하는 남성은 244만 5천 원으로 가장 높은 임금을 희망하였으며, 전일제를 선호하는 여성은 175만 6천 원을 희망하였다. 시간제를 선호하는 경우 여성은 170만 원을 희망하였으나, 미취업자 중 남성의 경우는 시간제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에서는 미취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자주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림 5-4] 8차('16) 성별·근로시간 형태별 평균 희망임금(통합표본)
(단위: 만 원)



<표 5-10> 8차('16) 미취업자가 구직 시 주로 겪는 어려움(통합표본)
(단위: 점)

	남 성	여 성	전 체
1.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2.0	2.1	2.0
2. 취업 또는 창업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른다.	2.4	2.5	2.4
3. 학력, 기능, 자격이 맞지 않는다.	3.2	3.2	3.2
4. 경험이 부족하다.	2.7	2.7	2.7
5. 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다.	2.2	2.4	2.3
6. 근무환경이나 근로시간이 맞지 않다.	2.9	2.9	2.9
7. 나이가 너무 많다.	3.1	3.3	3.2
8.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1.8	2.7	2.0
9.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	3.7	3.7
10. 장애인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4.4	4.1	4.3

주: 1) 최소 1점부터 최대 5점까지의 평균 점수임.
2) 설문지 상의 응답 항목 구성은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런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그렇지 않다'로 되어 있음. 따라서 점수가 작을수록 문항에 동의한다는 뜻임.
3)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이 표에는 이와 관련된 열 가지 항목의 내용과 각각의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 점수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평균 점수는 ‘(1) 매우 그렇다’부터 ‘(5)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점 척도로 산출되었으므로, 점수가 낮을수록 해당 항목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일자리 자체 부족’ 및 ‘사업자금 부족’ 항목에 대해 평균 2.0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취업 또는 창업 정보 부족’(2.4점)을 지적하였다. 여성의 경우 성차별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보다는 일자리 자체 부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6 장

임금근로자의 특성

본장에서는 임금근로자 일자리의 특성들을 살펴본다. 임금근로자와 관련된 주요 설문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취업과 퇴직, 산업과 직업, 기업의 형태 및 규모, 고용형태와 근로계약 유무 및 기간, 근로시간 형태, 종사상지위, 근로시간 및 임금, 사회보험 가입 여부 및 수급 현황, 노동조합 관련 사항 등이 조사되었다. 본장은 통합표본을 이용하여 작성되었다.

<표 6-1>은 1~8차(2009~2016)년도 동안 조사된 임금근로자의 규모

<표 6-1> 임금근로자수와 비중(통합표본)

(단위: 명, %)

	임금근로자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
	표본수	남성(%)	여성(%)	
1차('09)	5,189	60.8	39.2	69.8
2차('10)	5,083	59.8	40.2	70.7
3차('11)	5,148	59.9	40.1	72.2
4차('12)	5,212	59.4	40.6	72.6
5차('13)	5,205	59.4	40.6	72.9
6차('14)	5,076	59.3	40.7	73.6
7차('15)	5,345	59.0	41.0	74.0
8차('16)	5,483	58.2	41.8	74.3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를 보여주고 있다. 8차(2016)년도에 조사된 임금근로자는 5,483명으로,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 비율은 1차(2009)년도 69.8%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8차(2016)년도에는 74.3%이다.

제1절 임금근로자의 특성

본절에서는 8차(2016)년도에 조사된 임금근로자의 특성별 분포를 살펴본다. 본절의 모든 분포는 임금근로자 5,483명을 대상으로 계산되었으며, 근로시간 및 월평균임금은 변동계수(CV)도 제시하였다.

먼저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졸자의 비중이 35.7%로 가장 높았고, 대졸자의 비중이 30.0%로 그 뒤를 이었다. 여성의 경우 고졸 미만과 전문대졸의 비중이 전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2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30대가 26.3%로 그 뒤를 이었다. 여성의 경우 20대의 비중이 전체보다 특히 높았는데(18.3%),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진출 시기가 빠름을 시사한다. 반면 30~40대의 비중이 전체보다 낮은 것은 출산과 육아 등으로 노동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을 시사한다.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기타서비스업이 31.6%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광공업이 21.1%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전기·가스 및 수도업은 0.7%로 비중이 가장 낮았다. 한편, 산업별 분포의 남녀 간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남성은 광공업(25.9%), 기타서비스업(21.3%), 건설업(13.9%)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여성은 기타서비스업(46.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1.5%), 광공업(14.4%)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생산직이 3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전문관리직이 26.9%로 그 뒤를 이었다. 여성의 경우 전문관리직(30.4%), 서비스직(24.2%), 사무직(22.7%)의 비중이 전체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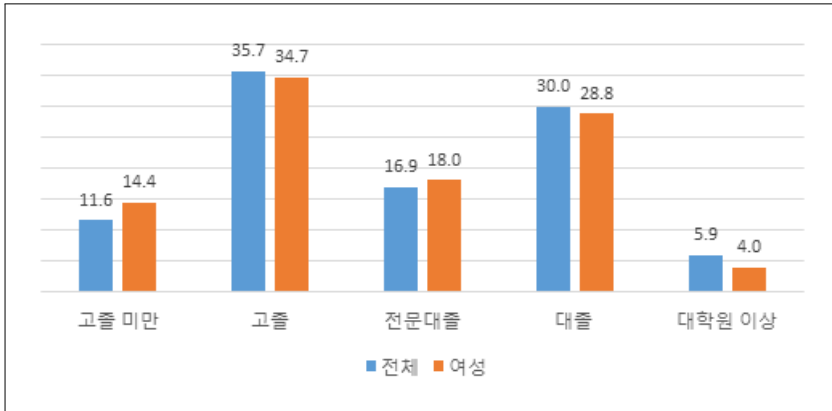
종업원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10인 미만이 31.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10~29인이 18.8%로 둘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여

성은 10인 미만에서 남성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여성 36.1%, 남성 27.5%).

기업형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민간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76.1%), 정부기관이 그 뒤를 이었다(8.4%). 남녀 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한편, 교대제로 근무하는 사람은 전체의 8.5%였으며, 남성(9.8%)이 여성(6.6%)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교대제는 2조 2교대제가 가장 보

[그림 6-1] 임금근로자의 학력 분포(통합표본,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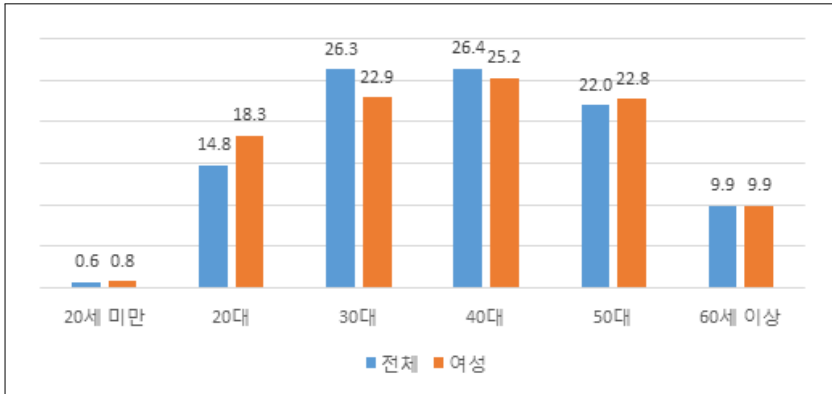
(단위: %)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그림 6-2] 임금근로자의 연령 분포(통합표본, 2016년)

(단위: %)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표 6-2〉 임금근로자의 특성별 분포(통합표본, 2016년)

(단위: %)

		전 체	남성	여성
산 업	농림어업	0.7	0.6	0.9
	광공업	21.1	25.9	14.4
	건설업	8.8	13.9	1.8
	전기·가스 및 수도업	0.7	0.9	0.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6.9	13.5	21.5
	운수통신업	8.0	10.4	4.7
	금융 및 부동산업	6.4	6.8	5.8
	공공서비스업	5.7	6.5	4.7
	기타서비스업	31.6	21.3	46.0
직 종	전문관리직	26.9	24.3	30.4
	사무직	20.7	19.3	22.7
	서비스직	17.8	13.1	24.2
	농림어업직	0.3	0.4	0.1
	생산직	34.3	42.9	22.5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	31.0	27.5	36.1
	10~29인	18.8	19.4	17.9
	30~99인	17.7	18.0	17.2
	100~299인	10.3	9.8	11.2
	300~499인	3.4	3.3	3.5
	500인 이상	18.8	22.1	14.2
기업 형태	민간회사	76.1	78.2	73.3
	외국인회사	1.0	1.4	0.5
	공기업	5.9	5.6	6.5
	법인단체	5.3	3.5	7.8
	정부기관	8.4	7.8	9.2
	비소속	2.5	2.8	2.1
	기 타	0.7	0.8	0.6
교대제 유무 및 형태	교대제 안함	91.5	90.2	93.4
	2조 2교대제	4.6	5.4	3.5
	3조 3교대제	2.2	2.3	2.0
	기타 교대제	1.7	2.1	1.1
종사상 지위	상용직	74.7	78.2	69.8
	임시직	16.4	11.4	23.3
	일용직	8.9	10.4	6.9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결측치는 계산에서 제외.

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이 74.7%, 임시·일용직이 25.3%인 반면에, 통계청의 2015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조사된 임시·일용직의 비중은 34.5%이다.²⁰⁾ KLIPS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 지위 비중의 차이는 조사 기준의 차이 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퇴직금 유무 등 여러 기준들을 적용하는 반면에 KLIPS에서는 고용계약 기간 이외의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상용직과 일용직의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남성이 여성보다 상용직의 비중이 높은 것은 남성의 고용안정성이 여성보다 높음을 시사하며, 일용직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일용직 대부분이 산업 특성상 남성이 많은 건설업에 속하기 때문일 것이다.

제2절 근로시간

8차(2016)년도 KLIPS에서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해 현재 일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있는지와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정규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구분하여 각각의 주당 근로시간과 주당 평균근로일수를 조사하며,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주당 평균근로시간 및 주당 평균근로일수를 조사한다. 또한, 초과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초과근로수당 지급 여부 및 지급방식, 월평균초과근로수당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1. 평균근로시간

우선 평균근로시간의 연도별 추이부터 살펴보자. 평균근로시간은 정규근로시간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당 정규근로시간과 주당 초과근로시간을 합산하였으며, 정규근로시간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주당 평균근로시

20) 통계청(2015), 「경제활동인구조사」.

간으로 조사되었다.

<표 6-3>은 임금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이 1차(2009)년도 46.7시간에서 8차(2016)년도 43.5시간으로 꾸준히 감소해 왔음을 보여준다. 한편, 남성의 평균근로시간이 여성보다 길었으며, 8차(2016)년도의 남녀 간 평균근로시간 차이는 4.9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6-4>는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보여준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각각 44.2시간으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긴 반면, 19세 미만을 제외하면 20대가 36.6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40대에서 남성과 여성의 근로시간 격차가 큰 것은 여성의 육아 부담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 한편, 남성은 40~50대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여성은 30대와 60세 이상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학력이 낮을수록 근로시간이 짧은 경향이 나타났다. 고졸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1.5시간이었으며, 대졸자는 44.3시간,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자는 43.2시간이었다. 반면에 고졸 미만의 학력을 보유한 자는 주당 40.4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5.3시간으로 나타나 임시직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38.3시간보다 약 7.0시간 길었다. 또한

<표 6-3>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통합표본)

(단위: 시간)

	전 체	남성	여성
1차('09)	46.7 (0.004)	48.4 (0.005)	44.0 (0.007)
2차('10)	46.9 (0.004)	48.7 (0.005)	44.2 (0.007)
3차('11)	46.2 (0.004)	48.1 (0.005)	43.3 (0.007)
4차('12)	45.2 (0.004)	47.0 (0.005)	42.5 (0.007)
5차('13)	44.8 (0.004)	46.8 (0.005)	42.0 (0.007)
6차('14)	44.7 (0.005)	46.9 (0.006)	41.5 (0.008)
7차('15)	43.8 (0.004)	45.7 (0.005)	40.9 (0.007)
8차('16)	43.5 (0.004)	45.5 (0.005)	40.6 (0.006)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괄호 안의 숫자는 변동계수임.

남녀 모두 상용직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은 임금근로자의 산업·직종·종업원 규모별 주당 평균근로시간 분포를 분석한 것이다. 먼저 산업별로는 광공업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5.8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농림어업이 38.1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나 그 차이는 7.7시간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48.7시간을, 여성은 광공업에서 44.3시간을 근무하여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으로 조사되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의 남녀 간 차이가 가장 큰 산업은 농림어업으로 12.6시간의 차이를 보였다.

직종별로는 농림어업직이 45.3시간으로 가장 긴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전문관리직이 42.1시간으로 가장 짧은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기록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의 남녀 간 차이가 가장 큰 직종은 농림어업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주당 9.4시간을 더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업원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100~299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5.6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남녀 간 차이는 4.8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것

<표 6-4>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평균근로시간(통합표본, 2016년)
(단위: 시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남 성	여 성
연령별	19세 미만	43.5	45.5	40.6
	20~29세	36.6	39.2	34.2
	30~39세	42.5	43.9	41.2
	40~49세	44.2	46.0	40.9
	50~59세	44.2	46.4	41.1
	60세 이상	43.9	45.4	42.0
학력별	고졸 미만	40.4	44.1	35.3
	고졸	41.5	43.6	39.6
	전문대졸 이하	44.2	46.4	41.1
	대졸 이하	44.3	46.9	41.2
	대학원 이상	43.2	44.7	40.9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표 6-5〉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근로시간(통합표본, 2016년)
(단위: 시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남 성	여 성
상용직	45.3	46.7	43.2
임시직	38.3	43.2	34.9
일용직	37.3	38.7	34.4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표 6-6〉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평균근로시간(통합표본, 2016년)
(단위: 시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남 성	여 성
직종별	전문관리직	42.1	44.1	40.0
	사무직	42.9	44.6	40.9
	서비스직	43.9	47.5	41.3
	농림어업직	45.3	47.1	37.7
	생산직	44.7	46.1	40.9
산업별	농림어업	38.1	44.5	31.9
	광공업	45.8	46.5	44.3
	건설업	42.6	42.9	39.8
	전기·가스 및 수도업	43.8	44.8	39.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45.6	48.7	43.0
	운수통신업	44.9	46.4	40.1
	금융 및 부동산업	45.6	48.0	41.6
	공공서비스업	41.2	43.5	36.7
	기타서비스업	40.7	43.4	39.0
종업원 규모별	10인 미만	43.8	45.8	41.6
	10~29인	43.6	45.6	40.4
	30~99인	44.8	46.8	41.8
	100~299인	45.6	47.7	42.9
	300~499인	45.1	48.2	41.0
	500인 이상	44.2	45.5	41.1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으로 조사된 사업장은 10~29인 사업장으로(43.6시간), 남녀 간 차이는 5.2시간이었다. 대체로 종업원 규모가 클수록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2. 초과근로시간

여기서는 임금근로자 중 정규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초과근로의 유무, 초과급여 지급방식 및 월평균 초과급여에 관한 사항을 분석한다.

<표 6-7>에서 알 수 있듯이, 정규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임금근로자 중 27.6%가 초과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과근로가 대단히 보편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과근로를 한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8.5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초과근로를 한다고 응답한 임금근로자 중 초과급여가 지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56.7%였다. 초과급여 지급방식을 살펴보면, 88.7%가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고 응답하였으며, 9.4%는 ‘초과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고 응답하였다. 시간당 평균 초과급여는 1만 4,600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6-7> 임금근로자의 초과근로(통합표본, 2016년)

(단위: %)

초과근로를 안함		72.4
초과근로를 함		27.6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시간)		8.5
초과급여 지급 안함		43.3
초과급여 지급함		56.7
초과급여 지급방식	시간에 따라 계산	88.7
	일정 금액	9.4
	기준 없음	1.9
	시간당 평균 초과급여(천 원)	14.6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초과근로를 한 임금근로자의 평균 초과근로시간임.

제3절 임 금

KLIPS에서는 세후소득을 중심으로 임금 지급주기와 산정방식, 수준과 내용, 그리고 성과급 적용 여부와 해당 성과급제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임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종사상 지위, 인구학적 특성, 사업체 특성별로 살펴볼 것이다.

1. 임금 지급주기 및 임금 산정방식

<표 6-8>에서 임금근로자의 95.7%가 ‘한 달’을 주기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매일 지급받는다’와 ‘수시로 지급받는다’라고 응답한 임

<표 6-8> 임금 지급주기 및 임금 지급방법(통합표본, 2016년)

(단위: %)

		전 체	남 성	여 성
임금 지급주기	한 달	95.7	94.8	97.1
	보름/주	0.3	0.4	0.3
	매 일	2.7	3.3	1.9
	수 시	1.2	1.5	0.7
	기 타	0.0	0.0	0.1
임금 산정방식	연봉계약제	15.2	18.8	10.2
	월 급	72.7	68.8	78.1
	주급/격주	0.0	0.0	.
	일 당	6.5	8.3	4.1
	시간급제	2.9	1.8	4.5
	도급제	0.2	0.2	0.3
	실적급	2.3	2.1	2.7
	기 타	0.2	0.1	0.2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표 6-9〉 임금근로자 특성별 성과급제 실시 여부(통합표본, 2016년)

(단위: %)

		성과급제 있음	성과급제 없음
성 별	남 성	21.9	78.1
	여 성	13.5	86.5
산 업	농림어업	6.0	94.0
	광공업	24.2	75.8
	건설업	6.8	93.2
	전기·가스 및 수도업	32.7	67.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1.9	88.1
	운수통신업	20.9	79.1
	금융 및 부동산업	32.1	67.9
	공공서비스업	34.9	65.1
	기타서비스업	14.8	85.2
직 종	전문관리직	22.2	77.8
	사무직	24.6	75.4
	서비스직	16.4	83.6
	농림어업직	7.3	92.7
	생산직	12.7	87.3
종사상 지위	상용직	23.1	76.9
	임시직	6.2	93.8
	일용직	1.5	98.5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	4.3	95.7
	10~29인	9.9	90.1
	30~99인	14.8	85.2
	100~299인	22.0	78.0
	300~499인	31.9	68.1
	500인 이상	41.5	58.5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금근로자는 각각 2.7%, 1.2%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94.8%, 여성의 97.1%가 ‘한 달’ 주기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연봉계약제의 비중이 15.2%로, 월급제의 비중은 72.7%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각각 68.8%, 78.1%로 월급

제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연봉제의 비중은 남성이 18.8%, 여성이 10.2%로 남성이 여성의 약 2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9>는 성과급제 실시 여부를 임금근로자 특성별로 분석한 것이다. 성과급제를 적용받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남성 21.9%, 여성 13.5%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산업별로는 공공서비스업이 34.9%로 가장 높았고, 농림어업은 6.0%로 가장 낮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직종별로는 전문관리직의 22.2%가 성과급제를 적용받는 반면, 생산직은 12.7%만이 성과급제를 적용받았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직과 일용직 모두 상용직에 비해 성과급제의 적용비율이 매우 낮았다. 종업원 규모에 따라서는 500인 이상 사업장의 41.5%가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규모가 작을수록 실시비율이 낮아져 10~29인 사업장은 9.9%, 10인 미만 사업장은 4.3%만이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월평균임금

KLIPS에서는 임금 산정방식에 따른 항목별 임금수준과 “현재 이 일지에서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월평균임금을 세후소득으로 조사하고 있다.

<표 6-10>에서 KLIPS에서 조사된 월평균실질임금이 1차(2009)년도 222만 9천 원에서 8차(2016)년도 248만 3천 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성의 1차(2009)년도 월평균실질임금 154만 4천 원은 당시 남성(266만 8천 원)의 57.9%에 불과했으며, 8차(2016)년도의 181만 9천 원도 남성(296만 원)의 6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임금의 변동은 「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²¹⁾에서 조사된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의 2016년 월평균명목임금은 395만 5천 원인 것에 비해 KLIPS는 250만 7천 원으로 조사되었다. KLIPS에서 조사된 월평균명목임금이 낮은 이유는 첫째, KLIPS는 세금 공제 후의 임금을 조사하는 반면에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는 사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금대장에 의거한 세전 임금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

21) 고용노동부(2016), 「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표 6-10〉 월평균임금 비교(통합표본)

(단위: 만 원, %)

	전 체		남 성		여 성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임금	실질임금
1차('08)	197.1 (0.011)	222.9	236.0 (0.013)	266.8	136.6 (0.015)	154.4
2차('09)	204.1 (0.010)	224.2	244.5 (0.012)	268.6	144.0 (0.015)	158.1
3차('10)	214.4 (0.011)	226.4	259.1 (0.013)	273.5	147.9 (0.015)	156.1
4차('11)	223.3 (0.010)	230.7	268.7 (0.012)	277.7	156.9 (0.015)	162.1
5차('12)	232.3 (0.011)	237.0	279.6 (0.013)	285.2	163.2 (0.015)	166.5
6차('13)	238.5 (0.011)	240.2	283.8 (0.013)	285.8	172.1 (0.020)	173.4
7차('14)	244.4 (0.011)	244.4	292.3 (0.013)	292.3	175.2 (0.015)	175.2
8차('15)	250.7 (0.012)	248.3	298.8 (0.014)	296.0	183.7 (0.015)	181.9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괄호 안의 숫자는 변동계수임.

3) 실질임금 = 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100 (2010년=100)²²⁾

다. 둘째, 「사업체노동력조사」와 KLIPS는 조사대상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KLIPS는 가구조사로 가구에 속하는 모든 개인들의 임금을 조사하므로 1인 이상 사업장뿐만 아니라 임시직과 일용직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반해 2015년 「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의 월평균 명목임금은 비농부문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²³⁾의 모든(상용, 임시·일용) 근로자가 조사대상이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는 근로자 1~4인 규모의 사업체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표 6-11〉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을 연령과 교육수준별로 보여 준다. 연령별 월평균임금은 남성의 경우 40대가 36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여성의 경우 30대가 221만 5천 원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19세 이하를 제외하면 남성의 경우 20대가 181만 3천 원으로, 여성의 경우 60세 이상이 102만 7천 원으로 가장 낮았다.

22) 2009년 88.5, 2010년 91.1, 2011년 94.7, 2012년 96.8, 2013년 98.0, 2014년 99.3, 2015년 100.0, 2016년 101.0

23) 「매월노동통계조사」는 1998년까지는 비농전산업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가 조사대상이었으나, 1999년부터는 5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조사하였고, 2007년부터는 조사 명칭을 「사업체노동력조사」로 변경하여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모든 근로자로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조사하고 있다.

월평균임금은 교육수준별로 뚜렷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졸자의 월평균임금은 308만 4천 원으로 고졸자의 212만 6천 원보다 45.1%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졸 미만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143만 6천 원으로 고졸자의 67.5%에 불과했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고용형태별로도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표 6-12>에서 볼 수 있듯이, 상용직의 월평균임금은 285만 3천 원인 데 비해 임시직은 상용직의 50.5%, 일용직은 54.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1>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임금(통합표본, 2016년)

(단위: 만 원)

		전 체	남 성	여 성
연 령	19세 이하	127.0	128.5	125.5
	20~29세	179.9	181.3	178.7
	30~39세	270.6	298.5	221.5
	40~49세	295.0	360.0	196.9
	50~59세	269.1	343.6	172.1
	60세 이상	152.3	187.9	102.7
학 력	고졸 미만	143.6	178.5	111.4
	고졸	212.6	254.4	151.9
	전문대졸 이하	250.0	292.0	198.0
	대졸 이하	308.4	356.4	236.7
	대학원 이상	401.3	449.3	275.3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임금수준은 “현재 이 일자리에서 ____님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에 대한 응답 내용을 사용하여 계산함.

<표 6-12>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통합표본, 2016년)

(단위: 만 원)

		월평균 임금	
		평균액	상대임금
종사상 지위	상용직	285.3	-
	임시직	144.2	50.5
	일용직	155.7	54.6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상대임금은 상용직 근로자를 100으로 하여 계산.

<표 6-13>은 산업별과 직종별, 그리고 기업체 특성별 임금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산업별로는, 전기·가스 및 수도업이 345만 원으로 가

<표 6-13> 임금근로자의 산업별·직종별 및 사업체 특성별 임금(통합표본, 2016년)
(단위: 만 원)

		전 체	남 성	여 성
산 업	농림어업	180.1	290.3	71.6
	광공업	295.8	345.3	172.5
	건설업	263.4	268.5	207.3
	전기·가스 및 수도업	345.0	390.0	121.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91.2	236.9	151.0
	운수통신업	278.9	296.5	224.0
	금융부동산업	303.2	331.8	256.6
	공공서비스업	286.7	328.1	205.9
	가사서비스업	224.4	279.9	188.6
직 종	전문관리직	303.5	373.5	225.9
	사무직	294.2	346.1	233.3
	서비스직	188.5	254.3	139.3
	농림어업직	193.1	222.3	73.1
	생산직	217.3	251.4	126.5
종업원규모	10인 미만	178.3	208.7	145.0
	10~29인	224.4	258.2	171.6
	30~99인	253.2	296.8	187.8
	100~299인	272.7	322.6	210.6
	300~499인	297.4	354.3	221.6
	500인 이상	388.7	452.3	246.0
기업형태별	민간회사	242.1	288.8	172.8
	외국인회사	404.5	426.6	312.3
	공기업	321.3	415.7	209.0
	법인단체	250.4	333.9	198.3
	정부기관	291.0	325.3	249.7
	소속이 없음	157.7	183.8	109.0
	기타	234.4	248.7	209.3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임금수준은 “현재 이 일자리에서 ____님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에 대한 응답내용을 사용하여 계산함.

장 높은 임금수준을 보였고, 금융부동산업과 광공업이 각각 303만 2천 원과 295만 8천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분포는 남녀 간 차이가 있는데, 남성의 월평균임금은 전기·가스 및 수도업(390만 원), 광공업(345만 3천 원), 금융부동산업(331만 8천 원) 순으로 높은 반면, 여성은 금융부동산업(256만 6천 원), 운수통신업(224만 원), 건설업(207만 3천 원) 순으로 높았다.

임금수준은 직종별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의 임금수준은 다른 직종에 비해 적어도 35% 이상 높았다.

종업원 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높은 임금수준을 보였는데, 5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은 388만 7천 원, 10인 미만 사업장과 10~29인 사업장의 임금은 각각 178만 3천 원과 224만 4천 원으로 조사되었다.

기업형태별로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외국인회사가 404만 5천 원으로 가장 높은 임금수준을 보였고, 공기업이 321만 3천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민간회사는 242만 1천 원으로 소속 없음과 기타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임금수준을 보였다.

제4절 비정규직 근로자

KLIPS는 고용형태에 대한 설문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2002년부터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비정규직 관련 문항들을 설문에 반영하고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1998년부터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와 자기선언적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 유무 등을 조사해 왔으며, 2002년부터는 임금근로자의 호출근로(혹은 일용대기근로) 여부와 취업자의 근로지속성 여부, 향후 근로지속가능 기간,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이유, 파견 및 용역근로 여부, 독립도급근로 여부, 가내근로 여부 등을 조사해 왔다. 또한, 4차(2012)년도부터는 2009년 부가조사의 고용형태에 대한 다양한 문항들이 설문에 포함

되어 조사되었다. 본절에서는 상술한 조사항목들을 이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실태를 살펴보도록 한다.²⁴⁾

1. 비정규직의 규모

<표 6-14>는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의 분포를 보여준다. 2002년 노사정 합의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근로자는 임금근로자의 35.6%였다. 27.5%의 한시적근로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9.9%의 시간제근로자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전형근로자는 전체의 13.4%를 차지했으며, 그중 가장 비중이 높은 유형은 7.4%의 일일근로자였다. 간접고용에 해당되는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는 각각 1.3%, 3.1%였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 중 비정규직 비중은 대부분의 고용형태에서 여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중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여성의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남성 중 비전형근로자

<표 6-14>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통합표본, 2016년)

(단위: %)

	전 체	남 성	여 성
정규직	64.4	68.6	59.1
비정규직	35.6	31.4	40.9
한시적근로자	27.5	23.5	32.5
시간제근로자	9.9	5.8	15.1
비전형근로자	13.4	14.8	11.6
파견근로자	1.3	0.9	1.7
용역근로자	3.1	3.5	2.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6	2.6	2.7
가정내근로자	0.3	0.2	0.4
일일근로자	7.4	9.4	4.9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비정규직의 각 고용형태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므로 그 비중의 합이 반드시 100이 되지 않음.

24) KLIPS는 5차(2013)년도까지는 별도의 기준을 이용하여 비정규직을 분류해 왔으나, 6차(2014)년도부터는 노사정 합의문의 기준에 따라 비정규직을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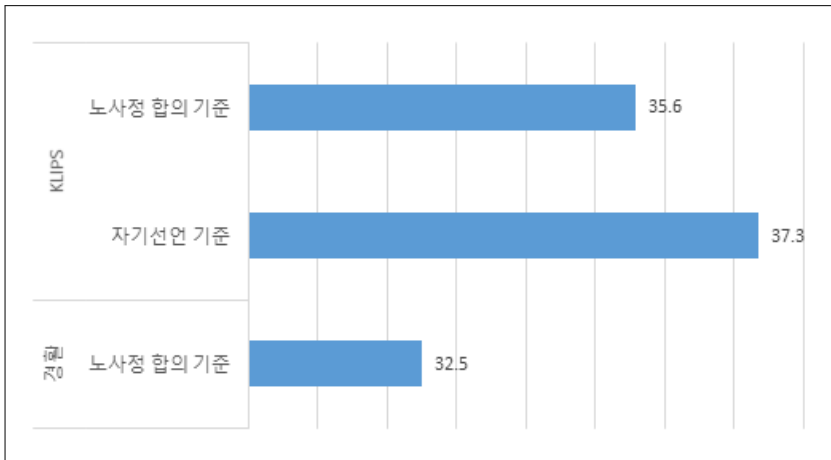
비중은 여성보다 높았으며, 특히 일일근로자 비중은 여성의 약 2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KLIPS에서 관측된 8차(2016)년도 임금근로자 중 한시적근로자의 비중은 27.5%로 경활의 18.8%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큰 차이는 첫째, 고연령층의 높은 한시적근로자 비중, 둘째, 일일근로자에 대한 설문 차이, 셋째, 비표본 오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²⁵⁾

[그림 6-3]은 KLIPS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하여 보여준다. KLIPS에서는 여러 조사항목을 이용하여 2002년 노사정 합의문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구할 수 있으며, 또한 자기선언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구할 수 있다. KLIPS의 2002년 노사정 합의문에 근거한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 비중은 35.6%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32.5%와 비교적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선언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비중은 37.3%로 나타났다.

[그림 6-3]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통합표본, 2016년)

(단위: %)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비정규직 비중은 2015년 8월 비농가부문 조사결과임.

2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홍민기 외(2015), 『노동패널자료 연구(I)』, 제3장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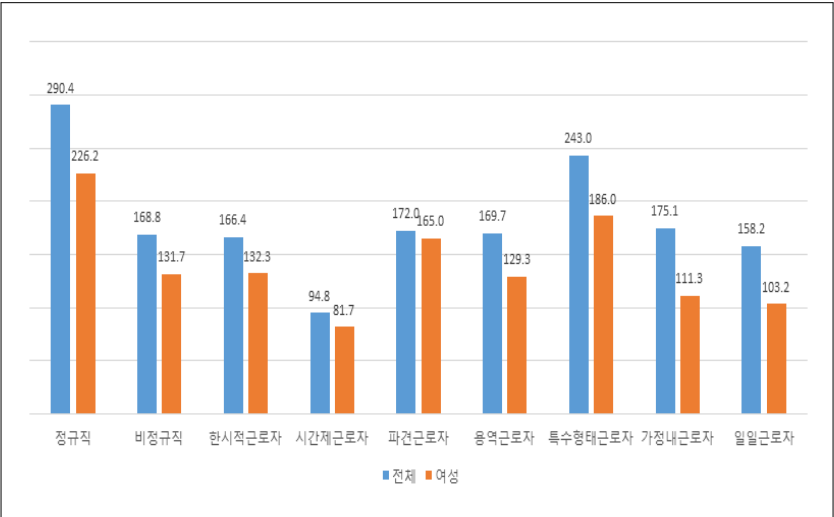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그림 6-4]는 노사정 합의에 따른 비정규직의 임금을 고용형태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임금(168만 8천 원)은 정규직 근로자(290만 4천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중 월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월평균임금(243만 원)도 정규직 근로자의 83.7%에 그쳤다.

여성의 월평균임금은 모든 고용형태에서 남성보다 낮았으며, 특히 여성 일일근로자의 월평균임금(103만 2천 원)은 전체 일일근로자(158만 2천 원)의 5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그림 6-4]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임금(통합표본, 2016년)

(단위: 만 원)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월평균 임금은 명목임금.

제 7 장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KLIPS는 유형 설문과 취업자용 설문을 통해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한다.

주요 설문항목으로는 종사상 지위, 사업체의 규모, 월평균 소득과 연간 매출액, 근로시간의 규칙성, 주당 근로시간과 평균근로일수, 사업체의 창업 및 운영 등과 관련된 특성들이 있다. 특히 2002년부터는 사업체의 창업자본금 및 화폐가치에 대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어 비임금근로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5년부터

〈표 7-1〉 각 연도별 비임금근로자의 수와 비중(통합표본)

(단위: 명, %)

	비임금근로자			취업자 대비 비임금근로자(%)
	표본수	남성(%)	여성(%)	
1차('09)	2,598	59.4	40.6	30.2
2차('10)	2,467	59.4	40.6	29.3
3차('11)	2,364	60.5	39.5	27.8
4차('12)	2,393	61.4	38.6	27.4
5차('13)	2,353	60.3	39.7	27.1
6차('14)	2,249	61.6	38.4	26.4
7차('15)	2,255	61.3	38.7	26.0
8차('16)	2,244	61.3	38.7	25.7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는 적자를 보는 경우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묻는 문항이 추가되었다. 본장에서도 제6장과 마찬가지로 통합표본이 사용되었다.

1차(2009)년도부터 8차(2016)년도까지 각 조사에서 파악된 비임금근로자의 수는 <표 7-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1절 종사상 지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는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된다. 여기서 고용주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한 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근로자로, 자영업자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로, 무급가족종사자는 급여를 받지 않고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주당 18시간 이상 하는 근로자로 각각 정의된다.

먼저 <표 7-2>에서 8차(2016)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살펴보자. 고용주가 27.2%, 자영업자가 55.6%, 무급가족종사자가 17.2%였다.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1~3차(2009~2011)년도 동안 약 53%로 유지되었고, 4차(2012)년도에 57.1%로 증가한 이후 7차(2015)

<표 7-2> 비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비교(통합표본)

(단위: %)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1차('09)	27.7	53.0	19.3
2차('10)	26.8	54.2	19.0
3차('11)	27.9	53.8	18.3
4차('12)	25.0	57.1	17.8
5차('13)	25.0	56.9	18.0
6차('14)	24.3	57.2	18.5
7차('15)	25.9	57.1	17.0
8차('16)	27.2	55.6	17.2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년도까지 유지되었다. 8차(2016)년도에는 소폭 감소하였다.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1차(2009)년도의 19.3%에서 완만히 감소하고 있으며, 8차(2016)년도의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통계청의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조사된 20.7%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7-3>은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과 산업별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먼저 성별에 따른 종사상 지위는 남성의 경우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순으로 각각 62.3%, 32.0%, 5.8%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여성의 경우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주 순

〈표 7-3〉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산업별 종사상 지위 분포(통합표본, 2016년)
(단위: %)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성 별	남 성	32.0	62.3	5.8
	여 성	19.6	45.0	35.4
연 령	20~29세	26.3	32.7	41.0
	30~39세	36.6	51.8	11.7
	40~49세	34.1	52.5	13.4
	50~59세	28.4	51.4	20.1
	60세 이상	16.2	66.9	17.0
학 력	고졸 미만	10.1	66.0	23.9
	고졸	25.5	56.1	18.3
	전문대졸 이하	41.0	46.7	12.3
	대졸 이하	42.6	47.3	10.2
	대학원 이상	51.6	41.1	7.4
산 업	농림어업	5.8	62.3	31.9
	광공업	45.7	33.5	20.8
	건설업	33.1	55.2	11.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2.9	46.4	20.8
	운수통신업	16.5	82.3	1.2
	금융 및 부동산업	24.0	68.0	8.0
	기타서비스업	31.4	59.3	9.3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결측치는 계산에서 제외.

으로 각각 45.0%, 35.4%, 19.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자영업자의 비중은 60대 이상에서 66.9%로 가장 높았고 20대에서 32.7%로 가장 낮았다.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는 교육수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고용주의 비중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산업별²⁶⁾ 종사상 지위의 분포를 살펴보자. 광공업(45.7%)에서는 고용주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다른 산업에서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수통신업(82.3%)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았다.

제2절 근로시간

본절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 주당 평균근로시간, 주당 평균근로일수 등과 관련된 특성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설문문항으로는 우선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를 묻는 “이 일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십니까?”가 있다. 여기서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 함은 일거리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사업 또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이며, 불규칙적이라 함은 일거리가 아예 없어 사업 또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불규칙적인 경우는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로 다시 세분하여 조사되었다. 한편, 주당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와 관련된 사항은 “이 일자리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십니까?”와 “일주일에 보통 몇 시간이나 일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각각 조사한다.

1. 근로시간의 규칙성과 주평균 근로일수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 및 주평균 근로일수의 분포가 <표 7-4>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를 살펴보면,

26) 2007년 개정 산업표준분류.

〈표 7-4〉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 및 주평균 근로일수(통합표본, 2016년)
(단위: %, 일)

		규칙적	불규칙적		주평균 근로일수(일)
			계절영향 없음	계절영향 있음	
전 체		69.1	10.5	20.4	5.7
종사상 지위	고용주	89.0	7.2	3.8	5.8
	자영업자	63.0	12.9	24.1	5.6
	무급가족종사자	59.2	7.3	33.5	5.8
산 업	농림어업	15.9	6.8	77.3	5.6
	광공업	86.4	8.8	4.7	5.5
	건설업	45.1	18.4	36.6	5.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83.9	8.2	7.9	6.1
	운수통신업	70.1	18.6	11.3	5.2
	금융 및 부동산업	83.4	14.1	2.5	5.3
	공공서비스업	83.7	11.8	4.5	5.5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규칙적인’ 경우가 69.1%, 불규칙적인 경우가 30.9%였고, 특히 불규칙적이고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20.4%로 받지 않는 경우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를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고용주의 89.0%가 규칙적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자영업자는 63.0%가 규칙적이라고 응답했다.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며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경우는 고용주(3.8%)보다 자영업자(24.1%)와 무급가족종사자(33.5%)에서 훨씬 높은 비중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종사자의 84.1%, 건설업 종사자의 54.9%가 근로시간이 규칙적이지 않다고 응답했고,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77.3%, 36.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8차(2016)년도에 조사된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일수는 5.7일이었고, 자영업자의 경우 5.6일로 가장 짧아서 주당 평균근로일수가 가장 긴 무급가족종사자보다 약 0.2일이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별로 분석해 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6.1일, 농림어업이 5.6일로 주당 평균근로일수가 가장 길

었고, 건설업과 운수통신업이 5.2일로 가장 짧았다.

2. 주당 근로시간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1차(2009)년도에 52.0시간이었으나 2~6차(2010~2014)년도 동안 50시간 전후를 유지했고, 7차(2015)년도에 소폭 감소하여 8차(2016)년도에는 48.5시간으로 조사되었다.

<표 7-5>에서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살펴보면 고용주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차(2016)년도에는 고용주의 경우 51.4시간, 자영업자의 경우 47.3시간,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47.7시간으로 조사되었다.

<표 7-6>은 주당 평균근로시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비임금근로자의 59.1%가 주당 44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며,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8.5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43.5시간보다 약 5.0시간 더 긴 것이다.

성별에 따른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 3.2시간 더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근로자와 비교하면 남성 비임금근로자는 남성 임금근로자보다 약 4.2시간을 더 일하고 있으며, 여성 비임금근로자는 여성 임금근로자보다 약 5.9시간을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5>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근로시간(통합표본)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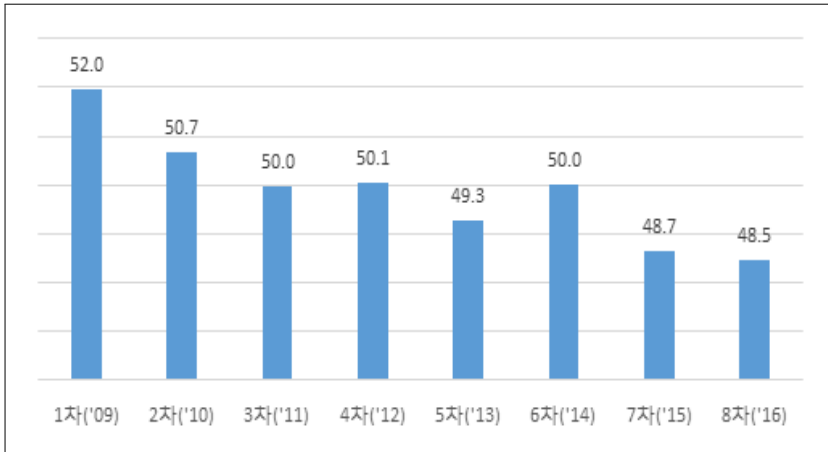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1차('09)	52.0 (0.008)	55.4 (0.013)	50.5 (0.012)	51.3 (0.019)
2차('10)	50.7 (0.008)	54.9 (0.014)	49.3 (0.011)	48.7 (0.018)
3차('11)	50.0 (0.008)	53.0 (0.015)	49.3 (0.012)	47.2 (0.019)
4차('12)	50.1 (0.008)	53.6 (0.014)	49.5 (0.011)	46.9 (0.020)
5차('13)	49.3 (0.008)	52.6 (0.014)	48.4 (0.012)	47.6 (0.020)
6차('14)	50.0 (0.009)	53.2 (0.016)	48.8 (0.012)	49.5 (0.021)
7차('15)	48.7 (0.008)	51.9 (0.015)	47.6 (0.011)	47.1 (0.022)
8차('16)	48.5 (0.008)	51.4 (0.013)	47.3 (0.012)	47.7 (0.019)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괄호 안의 숫자는 변동계수임.

〔그림 7-1〕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통합표본)

(단위: 시간)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표 7-6〉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통합표본, 2016년)

(단위: %, 시간)

		1~18 시간	19~35 시간	36~43 시간	44~54 시간	55~70 시간	71시간 이상	주당 평균 근로시간
전 체		2.6	15.2	23.0	25.0	27.8	6.3	48.5
성별	남 성	1.5	11.9	22.9	28.2	29.2	6.3	49.7
	여 성	4.5	20.4	23.2	20.1	25.7	6.1	46.5
연령	20~29세	.	19.5	29.3	17.3	31.0	2.9	46.7
	30~39세	6.6	9.7	24.4	25.8	27.4	6.1	48.0
	40~49세	1.8	13.2	24.2	24.4	29.9	6.6	49.4
	50~59세	1.4	8.7	21.5	29.4	31.2	7.9	51.6
	60세 이상	3.6	26.3	22.9	20.9	21.9	4.4	44.3
학력	고졸 미만	3.8	24.3	18.3	21.6	27.1	5.0	46.1
	고 졸	0.6	11.8	20.5	28.5	30.1	8.5	51.2
	전문대졸	1.7	10.8	26.0	24.6	29.6	7.3	50.6
	대 졸	4.6	11.9	29.5	24.9	25.3	3.8	46.3
	대학원 이상	8.9	15.7	44.6	14.2	15.9	0.7	40.2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연령별로 볼 때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은 51.6시간을 일하는 50~59세였고, 가장 짧은 것은 44.3시간을 일하는 60세 이상이었다. 한편, 교육수준별로 볼 때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은 51.2시간을 일하는 고졸자들이었고, 가장 짧은 것은 40.2시간을 일하는 대학원 이상의 근로자였다.

<표 7-7>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산업 및 사업체 규모에 따라 분석한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종사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9.0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71시간 이상 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9.0%로 나타나 다른 산업에 비해 장시간 근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업원 규모가 커질수록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5~9인 사업장 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3시간인 반면 10인 이상 사업장은 47.3시간으로 약 5.0시간의 차이를 보였다.

<표 7-7>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통합표본, 2016년)
(단위: %, 시간)

		1~18 시간	19~35 시간	36~43 시간	44~54 시간	55~70 시간	71시간 이상	주당 평균 근로시간
산업	농림어업	3.9	34.0	21.4	15.0	24.4	1.3	41.9
	광공업	2.0	13.9	23.3	34.1	22.9	3.8	47.0
	건설업	1.4	10.5	33.9	37.8	13.2	3.1	45.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0.8	7.6	10.1	19.3	43.1	19.0	59.0
	운수통신업	2.2	7.6	21.6	29.3	32.7	6.7	51.0
	금융 및 부동산업	0.3	19.6	48.4	21.7	8.5	1.5	42.4
	기타서비스업	4.7	18.9	20.1	22.0	26.1	8.2	46.9
종업원 규모	1~4인	1.1	9.3	17.7	25.3	31.3	15.2	54.3
	5~9인	.	8.2	32.9	16.2	33.8	8.9	52.3
	10인 이상	.	9.3	39.5	29.5	11.4	10.4	47.3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제3절 월평균소득

<표 7-8>은 1~8차(2009~2016)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명목소득(이하 월평균소득)과 월평균실질소득을 연도별로 보여준다.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명목소득은 1차(2009)년도 252만 5천 원에서 6차(2014)년도에 310만 5천 원으로 증가했으나, 7차(2015)년도에 305만 원으로 소폭 감소한 후 8차(2016)년도에 327만 9천 원으로 회복되었다.

월평균소득을 성별에 따라 분석해 보면, 남녀 간 소득격차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8차(2016)년도에 조사된 여성의 월평균소득은 228만 8천 원으로 남성의 373만 8천 원에 비하면 61.2%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표 <7-9>는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을 연령과 교육수준별로 정리

<표 7-8> 월평균소득 비교(통합표본)

(단위: 만 원)

	전 체		남 성		여 성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임금	실질임금
1차('09)	252.5 (0.028)	285.5	283.7 (0.032)	320.8	180.3 (0.052)	203.9
2차('10)	262.8 (0.028)	288.6	291.1 (0.033)	319.7	195.6 (0.050)	214.8
3차('11)	279.2 (0.031)	294.8	312.3 (0.036)	329.7	197.3 (0.046)	208.3
4차('12)	283.9 (0.030)	293.4	317.1 (0.035)	327.6	199.2 (0.048)	205.8
5차('13)	299.3 (0.028)	305.2	338.4 (0.032)	345.2	206.8 (0.047)	210.9
6차('14)	310.5 (0.028)	312.7	347.6 (0.032)	350.1	218.1 (0.052)	219.7
7차('15)	305.0 (0.027)	305.0	344.5 (0.031)	344.5	210.4 (0.045)	210.4
8차('16)	327.9 (0.032)	324.8	373.8 (0.037)	370.2	222.8 (0.042)	220.6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괄호 안의 숫자는 변동계수임.

3) 실질소득=명목소득/소비자물가지수*100,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100).²⁷⁾

4) 적자를 보는 경우는 표본에서 제외.

27) 1998년 70.9, 1999년 71.5, 2000년 73.1, 2001년 76.1, 2002년 78.2, 2003년 80.9, 2004년 83.8, 2005년 88.1, 2006년 86.1, 2007년 90.3, 2008년 94.5, 2009년 97.1, 2010년 100, 2011년 104, 2012년 106, 2013년 108, 2014년 109, 2015년 110.

〈표 7-9〉 비임금근로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월평균 명목소득(통합표본, 2016년)
(단위: %, 만 원)

		월평균 소득 분포					월평균 소득액 (만 원)
		적자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전 체		1.9	13.0	19.8	20.7	44.6	327.9
연 령	20~29세	15.9	7.5	25.0	14.8	36.7	252.4
	30~39세	1.6	5.4	21.3	26.2	45.5	342.9
	40~49세	2.3	3.7	16.4	22.4	55.2	380.2
	50~59세	1.5	6.9	15.7	22.0	53.9	385.9
	60세 이상	1.1	31.8	26.8	15.8	24.5	212.6
학 력	고졸 미만	1.1	34.5	28.0	15.5	20.9	182.0
	고 졸	1.9	6.5	18.7	25.6	47.3	330.4
	전문대졸 이하	0.6	7.5	10.0	22.0	59.8	384.4
	대졸 이하	3.9	4.4	16.3	17.6	57.8	465.4
	대학원 이상	.	3.6	28.4	15.1	53.0	342.9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월평균 소득 계산 시 '적자'인 응답자 제외.

한 것이다. 먼저 연령별 월평균소득을 보면, 50대가 385만 9천 원으로 가장 높았으나, 월평균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0대가 55.2%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60대 이상에서는 100만 원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31.8%로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별 월평균소득을 살펴보면, 대졸 이하 학력까지는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소득이 증가했으나, 대학원 이상 학력은 오히려 월평균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졸 미만 학력과 그 이상 학력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졸 미만 학력의 월평균소득은 182만 원으로 전체 평균의 55.5%에 불과했다. 또한 월평균소득 300만 원 이상의 비율은 다른 학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에 100만 원 미만의 비율은 4배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0>에는 사업체 특성과 종업원 규모별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정리되어 있다. 먼저 산업별로 월평균소득을 살펴보면, 광공업 종사자의 월평균소득이 441만 8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 종사자가 412만 9천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농림어업의 월평균소득은 165만 원으로 나타나 농림어업 종사자의 월평균소득이 특히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은 종업원 규모가 클수록 증가했다. 1~4인 사업장의 비임금근로자는 월평균소득이 430만 4천 원인 반면에 10인 이상 사업장은 746만 1천 원이었다.

<표 7-11>은 8차(2016)년도에 조사된 적자액 규모이다.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응답한 비임금근로자는 1.6%로 낮은 비중을 보였고, 월평균 적자액은 230만 6천 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7-10>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월평균 소득(통합표본, 2016년)
(단위: %, 만 원)

		월평균 소득 분포					월평균 소득액 (만 원)
		적자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산 업	농림어업	3.8	46.0	19.4	8.0	22.8	165.0
	광공업	2.3	4.1	11.6	19.1	62.9	441.8
	건설업	5.4	2.1	10.3	28.4	53.8	412.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3	8.2	19.1	23.0	48.4	338.5
	운수통신업	1.9	3.7	25.8	30.0	38.5	318.9
	금융 및 부동산업	.	9.1	15.5	21.3	54.1	380.4
	기타서비스업	1.1	10.5	25.0	19.9	43.5	333.5
종업원 규모	0명(자영업자)	1.4	18.9	25.7	22.5	31.5	240.4
	1~4인	2.8	1.1	9.5	19.4	67.1	430.4
	5~9인	3.7	.	5.7	13.7	76.9	698.8
	10인 이상	2.5	.	0.4	6.2	90.9	746.1

주: 1)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월평균 소득 계산 시 '적자' 응답자 제외.

〈표 7-11〉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적자액(통합표본, 2016년)
(단위: %, 만 원)

월평균 적자의 분포						월평균 적자액 (만 원)
적자 아님	적자임	100만 원 미만	100만~ 200만 원 미만	200만~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98.4	1.6	0.6	98.9	0.1	0.4	230.6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제4절 사업체의 창업

KLIPS는 비임금근로자의 고용주와 자영업자 중 새롭게 일자리를 가진 경우(유형 7) 사업체의 창업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표 7-12>를 통해 창업의 주체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가족 또는 친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은 경우는 6.1%로 창업한 경우 89.8%에 비해 매우 낮았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주보다 창업의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창업을 통해 사업체를 시작한 응답자가 사업비용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 알아보자. <표 7-13>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74.4%가 본인, 가족 또는 친지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으며, 정부의 보조를 받은 비율은 매우 낮았다. 이를 종사상 지위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고용주의 경우 본인, 가족 또는 친지를 통한 자본금 조달의 비중이 61.6%, 은행 등 금융

〈표 7-12〉 사업체의 창업 여부와 상속 여부(통합표본, 2016년)
(단위: %)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창 업	89.8	81.1	94.5
가족 및 친지로부터 물려받음	6.1	12.4	2.8
기 타	4.1	6.5	2.8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표 7-13〉 종사상 지위별 자본금 구성비(통합표본, 2016년)

(단위: %)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본인 또는 가족, 친지	74.4	61.6	81.8
동업자	1.5	1.4	1.6
은행 등의 융자	16.5	22.9	12.8
다른 개인으로부터 빌려서	1.6	0.7	2.1
사채업자	.	.	.
정부의 보조	0.7	1.8	0.0
기 타	5.2	11.6	1.5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기관의 융자의 비중이 2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 자금조달방식에 있어 본인, 가족 또는 친지에 의존하는 비중이 고용주보다 20.2% 높은 81.8%로 나타났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융자에 의존하는 비중은 10.1% 낮은 12.8%로 나타났다.

제 8 장

경제활동상태의 동태적 변화

제8장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상태를 동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패널자료는 동일한 개체를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조사하여 얻는 자료이므로 동일한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상태가 시간에 걸쳐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패널자료가 아니면 얻기 어려운 것으로, 다른 자료들과 구분되는 패널자료의 장점이다.²⁸⁾ 노동시장 분석은 특히 동태적인 측면이 중요하므로 패널자료의 이와 같은 장점이 잘 활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8장은 KLIPS의 제17, 18, 19차에 응답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제활동상태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본장에서는 전국단위의 분석 표본을 가급적 많이 확보하기 위해 통합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8-1>은 개인들의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요약한 것이다. 표에 제시된 값들은 흔히 이행확률로 언급되고 있으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원래의 확률에 100을 곱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행확률을 읽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18차년도에 취업상태에 있던 100명 가운데 다음 기인 19차년도에도 취업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의 수는 93.6명이며, 반면 실업으로 옮겨간 사람 수는 0.9명, 그리고 비경제활동상태로 옮겨간 사람의

28) 횡단면 자료에서 회고적 조사를 통해 패널조사와 유사한 추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고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회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회고 오차의 문제는 더욱 커지므로 종단 분석에 사용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표 8-1〉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단위: %)

이전상태	이후상태	17차('14)→18차('15)	18차('15)→19차('16)
취업	취업	92.3	93.6
	실업	1.5	0.9
	비경제활동	6.2	5.5
실업	취업	56.8	54.6
	실업	12.5	18.3
	비경제활동	30.7	27.1
비경제활동	취업	11.2	10.2
	실업	1.4	1.6
	비경제활동	87.4	88.2

주: 17→18차 계산에는 17차 종단면 가중치를, 18→19차 계산에는 18차 종단면 가중치를 활용.

수는 5.5명이다. 이를 확률로 해석해도 좋다. 즉 취업에서 실업으로의 이행확률은 0.9%이며 취업지속확률은 93.6%이다.

이제 이러한 경제활동상태에서의 변화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표 8-2>는 이를 요약하여 보여준다. 표에서 보듯이 남성과 여성은 경제활동상태 변화에 있어 매우 구분되는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특징들은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던 현상들이다. 즉 취업상태의 변화에 있어서 여성의 취업지속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상당히 낮은 반면, 취업에서 비경제활동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취업지속 가능성은 18→19차의 경우 95.4%인데 여성의 경우는 91.0%이다. 반면 취업에서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은 여성의 경우 7.9%로 남성 3.8%의 두 배를 웃돈다.

이제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연령별로 살펴보자. <표 8-3>은 이를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연령집단별로 이행률을 비교하여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취업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30대와 40대에서 가장 높고, 여기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진다는 사실이다. 특히 20대의 취업지속 가능성이 18→19차 기준 86.1%로 가장 낮다. 반면 40대가 취업상태에서 계속 머물 확률은 95.8%로 가장 높다. 30대와 50대의 취업지속

〈표 8-2〉 성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단위: %)

	이전상태	이후상태	17차('14)→18차('15)	18차('15)→19차('16)
남성	취업	취업	94.6	95.4
		실업	1.3	0.8
		비경제활동	4.1	3.8
	실업	취업	64.6	51.7
		실업	15.7	19.7
		비경제활동	19.7	28.6
	비경제활동	취업	12.6	11.5
		실업	1.8	3.5
		비경제활동	85.6	85.0
여성	취업	취업	88.9	91.0
		실업	1.8	1.1
		비경제활동	9.4	7.9
	실업	취업	44.6	57.7
		실업	7.5	16.8
		비경제활동	48.0	25.5
	비경제활동	취업	10.6	9.7
		실업	1.2	0.8
		비경제활동	88.2	89.5

가능성은 각각 94.4%, 94.2%로 40대에 근접할 정도로 높다.

비경제활동상태에 계속 머물 가능성은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작아진다. 20대의 경우 이행률이 18→19차의 경우 76.1%인 반면, 30대 83.8%, 40대 83.0%, 50대 85.5%, 그리고 60세 이상의 경우 96.8%이다. 청년의 비경제활동확률이 가장 낮다는 것은 이들이 다른 경제활동상태로 쉽사리 옮겨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실업자가 취업이나 비경제활동로 전환하는 확률이 17→18차, 18→19차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이지만, 실업자의 표본수가 적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

연령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20대, 30대 청년 노동시장이 매

〈표 8-3〉 연령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단위: %)

	이전상태	이후상태	17차('14)→18차('15)	18차('15)→19차('16)
20대	취업	취업	85.2	86.1
		실업	4.4	2.3
		비경제활동	10.4	11.6
	실업	취업	59.0	51.4
		실업	13.3	27.1
		비경제활동	27.8	21.4
	비경제활동	취업	17.9	18.9
		실업	4.0	5.0
		비경제활동	78.1	76.1
30대	취업	취업	94.8	94.4
		실업	1.2	1.0
		비경제활동	4.0	4.6
	실업	취업	63.0	64.3
		실업	10.5	4.8
		비경제활동	26.6	30.9
	비경제활동	취업	19.5	15.2
		실업	1.4	1.0
		비경제활동	79.1	83.8
40대	취업	취업	94.1	95.8
		실업	1.2	0.7
		비경제활동	4.8	3.5
	실업	취업	64.4	54.4
		실업	11.6	24.4
		비경제활동	24.1	21.3
	비경제활동	취업	13.9	14.8
		실업	1.2	2.2
		비경제활동	84.9	83.0
50대	취업	취업	93.8	94.2
		실업	1.0	0.9
		비경제활동	5.2	4.9

〈표 8-3〉의 계속

	이전상태	이후상태	17차('14)→18차('15)	18차('15)→19차('16)
50대	실업	취업	33.8	57.7
		실업	18.0	4.0
		비경제활동	48.1	38.4
	비경제활동	취업	12.2	13.1
		실업	1.0	1.1
		비경제활동	86.8	85.8
60대	취업	취업	88.0	91.3
		실업	0.8	0.5
		비경제활동	11.2	8.2
	실업	취업	27.4	39.5
		실업	13.5	22.7
		비경제활동	59.2	37.9
	비경제활동	취업	3.5	2.9
		실업	0.1	0.3
		비경제활동	96.5	96.8

우 역동적이라는 사실이다. 취업이나 실업 또는 비경활에 계속 머물 가능성은 매우 낮고 다른 노동력 상태로 손쉽게 이동하고 있어서 이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가기 위해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표 8-4〉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시간에 걸친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학력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에서 읽을 수 있는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전문대졸을 제외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중졸 이하자의 경우 취업상태에 그대로 머무는 사람이 18→19차 기준 100명 가운데 90.7명이나 고졸자의 경우 취업상태에 그대로 머무는 사람이 100명 가운데 93.6명으로 높아지며, 대졸 이상 학력집단의 경우 95.5명으로 높아진다.

실업으로부터의 이동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표본이 적어 결과 수치가 매우 크게 변동하므로 통계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

비경제활동상태에 지속적으로 머물 확률은 18→19차 기준 중졸 이하

〈표 8-4〉 학력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단위: %)

	이전상태	이후상태	17차('14) → 18차('15)	18차('15) → 19차('16)
중졸이하	취업	취업	91.0	90.7
		실업	0.8	0.7
		비경제활동	8.3	8.6
	실업	취업	10.4	37.5
		실업	25.3	17.1
		비경제활동	64.3	45.4
	비경제활동	취업	5.9	4.3
		실업	0.0	0.2
		비경제활동	94.1	95.5
고졸	취업	취업	93.0	93.6
		실업	1.1	1.0
		비경제활동	6.0	5.4
	실업	취업	64.4	61.9
		실업	14.9	9.4
		비경제활동	20.8	28.7
	비경제활동	취업	9.9	10.0
		실업	1.2	1.6
		비경제활동	88.9	88.4
전문대졸	취업	취업	91.1	93.0
		실업	3.5	1.4
		비경제활동	5.4	5.6
	실업	취업	42.0	67.0
		실업	8.0	12.2
		비경제활동	50.1	20.8
	비경제활동	취업	17.9	15.5
		실업	2.3	3.8
		비경제활동	79.8	80.6
대졸이상	취업	취업	93.8	95.5
		실업	1.0	0.6
		비경제활동	5.2	3.9
	실업	취업	65.8	55.8
		실업	12.1	17.4
		비경제활동	22.1	26.9
	비경제활동	취업	17.7	17.1
		실업	1.8	2.3
		비경제활동	80.6	80.6

에서 95.5%, 고졸에서 88.4%로 높고 나머지 학력집단들에서는 유사하게 나타난다. 전문대졸의 경우 80.6%, 그리고 대졸 이상의 경우 80.6%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에서 취업으로의 이행률은 중졸 이하의 경우 4.3%에 불과하나, 고졸의 경우 10.0%로 높아지며,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의 경우도 각각 15.5%, 17.1%로 높게 나타났다.

제 9 장

청년세대 이행기 삶의 자신감 및 사회
인식*

본장에서는 KLIPS 제19차(2016)년도 청년층 부가조사의 일환으로 수집된 청년세대의 주관적 인식을,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삶에 대한 자신감과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생애 과정에 있어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점에 있는 청년들은 장기화되고 있는 고용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이전세대와는 달리 자립기반 형성의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실정이며, 적은 수의 괜찮은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과 상관없는 요인에 의해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현실에 절망하고 있다.

이에 본장에서는 사회·경제적인 격차가 이행기 삶에 대한 청년들의 주관적인 자신감이나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과 같은 주관적 인식의 격차로 연계되어 나타나는가에 주목하였다. 제1절에서는 다섯 가지 항목(인간관계, 연애 및 결혼, 일자리, 내 집 마련, 출산 및 양육)으로 측정된 이행기 삶의 자신감의 수준과 세대 내 차이를 분석하고, 제2절에서는 네 가지 항목(패자부활, 공정성, 세대 간 연대, 세대 자존감)으로 측정된 한국사회 인식 수준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 본장의 일부 내용은 「2017년 한국노동패널학술회(2017. 10. 27.)」 기획 세션의 ‘청년세대 이행기 삶의 자신감 수준과 영향요인’으로 발표된 바 있으며, 본장에서 분석된 자료는 청년층 부가조사 응답자(15~34세) 3,225명 중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이들을 제외한 2,563명이다.

제1절 청년세대 이행기 삶의 자신감

1. 청년세대의 이행기 삶의 자신감 수준 : 다섯 가지 항목 비교

KLIPS 제19차(2016)년도 청년층 부가조사에서는 친구·동료 등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인간관계), 원하는 연애 및 결혼하는 것(연애 및 결혼), 원하는 일자리를 갖는 것(일자리), 내 집 마련 등 원하는 주거에서 사는 것(내 집 마련),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출산 및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5점 척도(‘매우 자신 없다 1’~‘매우 자신 있다 5’)로 측정하였다.

<표 9-1>은 이들 다섯 가지 삶의 자신감 항목에 대한 청년들의 응답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청년들 10명 중 6명 이상은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신감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4~5명 정도는 원하는 연애 및 결혼과 일자리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내 집 마련이나 출산 및 양육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다른 항목들에 비해 낮고, 자신감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와 같은 항목 간 응답 분포의 차이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하여 5점 척도로 측정된 응답 값을 항목별로 평균을 산출하여 [그림 9-1]과 같이 비

<표 9-1> 이행기 삶의 자신감 : 다섯 가지 항목 응답 분포

(단위: %)

	매우 자신 없다	별로 자신 없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자신 있다	매우 자신 있다
인간관계	0.9	4.5	32.4	54.4	7.8
연애 및 결혼	1.9	11.4	39.3	40.0	7.4
일자리	2.1	16.0	39.0	38.7	4.2
내 집 마련	3.5	20.1	39.7	32.6	4.1
출산 및 양육	4.3	16.3	38.7	36.6	4.1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9차조사(2016년)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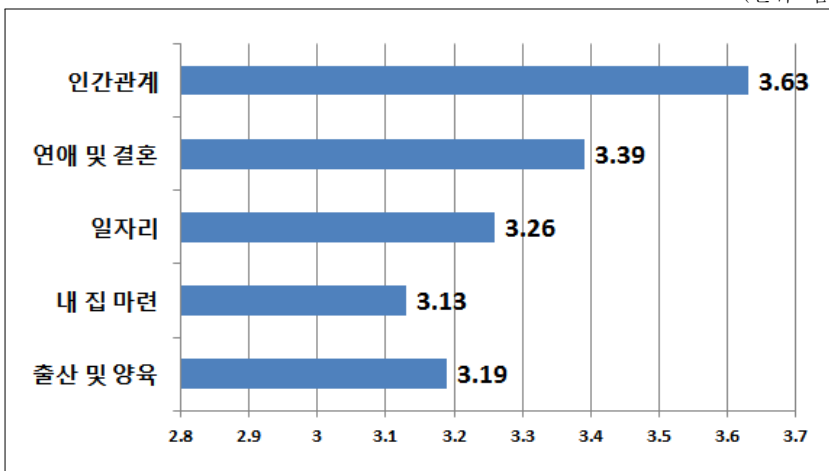
제시된 바와 같이, 다섯 가지 이행기 삶의 자신감 항목 중 청년들의 자신감 수준이 가장 높은 항목은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3.63점)이고, 원하는 연애 및 결혼(3.39점), 원하는 일자리(3.26점), 출산 및 양육(3.19점), 내 집 마련(3.13점) 순으로 높다.

이는 청년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은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경제적 기반이 전제되어야 하는 원하는 주거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마련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청년들이 이행기 삶의 과정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현재 정부의 지원 정책이 집중되어 있는 일자리보다도 원하는 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 욕구가 다른 어떠한 항목들보다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청년들이 인식하는 삶의 자신감 수준의 차이는 비단 항목에 따라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동일 항목에 대한 청년세대 내의 차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소득, 자산,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다중격차(multi disparities)가 청년세대에서 집약적이고 압축적으로

[그림 9-1] 이행기 삶의 자신감 수준 : 다섯 가지 항목 비교

(단위 : 점)



주 : 5점 척도('매우 자신 없다 1' ~ '매우 자신 있다 5'로 측정).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9차조사(2016년)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나타난다는 사실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격차가 앞으로 삶에 대한 희망 격차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 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다음에서는 청년들의 특성을 크게 네 가지(사회·인구학적 특성, 취업 특성, 경제적 여건 특성, 심리·정서 특성)로 나누고, 각 특성에 따른 이행기 삶의 자신감의 차이를 분석하고 세대 내 격차를 살펴보았다.

2. 청년 특성별 이행기 삶의 자신감 차이

<표 9-2>는 청년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다섯 가지 항목의 삶의 자신감 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먼저 성별에 따른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연애 및 결혼과 내 집 마련 항목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의 삶의 자신감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다른 세 항목과는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연애 및 결혼과 내 집 마련에 대한 자신감 수준이 더 높다. 이는 전통적으로 신혼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남성에게 있어 왔기 때문에 여성보다는 남성이 이에 대한 부담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즉 사회·문화적 영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연령에 따른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대 초반 청년들에 비해 20대 중후반 청년들이 다섯 가지 항목 모두에 대해 낮은 자신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간관계와 연애 및 결혼에 대해서는 25~30세 미만의 연령대에서 자신감 수준이 가장 낮고, 일자리와 내 집 마련 그리고 출산 및 양육에 대해서는 20~25세 미만의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자신감 수준을 보였다. 즉 학교를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20~25세 연령대에서 일자리에 대한 자신감 수준이 가장 낮고, 결혼적령기라는 25~29세 연령대에서는 오히려 연애와 결혼에 대한 자신감 수준이 가장 낮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다섯 가지 항목 모두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자신감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수준에 따른 자신감 수준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연애 및 결혼에 대한 자신감에 대해 고졸 이하 청년들의 자신감은 평균 3.19점인 데 반해

〈표 9-2〉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이행기 삶의 자신감

(단위: 점)

		인간관계	연애 및 결혼	일자리	내 집 마련	출산 및 양육
전체		3.63	3.39	3.26	3.13	3.19
성별	남성	3.63	3.33	3.28	3.09	3.15
	여성	3.63	3.45	3.25	3.17	3.23
연령	20세 미만	3.68	3.35	3.33	3.14	3.13
	20~25세 미만	3.63	3.29	3.20	3.00	3.06
	25~30세 미만	3.54	3.28	3.24	3.08	3.10
	30세 이상	3.69	3.57	3.32	3.26	3.37
교육 수준	고졸 이하	3.46	3.19	2.99	2.88	3.02
	전문대 재학	3.62	3.43	3.27	3.20	3.25
	전문대 졸업	3.66	3.30	3.27	3.01	3.10
	4년제대 재학	3.66	3.52	3.40	3.27	3.33
	4년제대 졸업	3.74	3.39	3.34	3.17	3.16
	석사재학 이상	3.82	3.71	3.60	3.34	3.32

주: 성별, 연령, 교육수준에 따른 자신감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t-test, GLM-test 결과). 단, 성별 인간관계, 일자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자신감 차이는 제외.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9차조사(2016년)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석사재학 이상 청년들의 자신감은 평균 3.71점으로 높다.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신감 수준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동일 학력수준이라면 졸업생보다는 재학생의 자신감 수준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차이에 이어 <표 9-3>에서는 취업 특성에 따른 이행기 삶의 자신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취업여부와 취업자의 취업 형태 그리고 임금근로자의 정규직 여부에 따라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삶의 자신감의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미취업자가 취업자에 비해 다섯 가지 항목 모두의 자신감 수준이 낮고,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비임금근로자에 비해 삶의 자신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자립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상태로 본다면,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자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은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임금근로자로 일하는 청년들이 비임금근로자로 일하는 청년들에 비해 자신감 수준이 낮다는 결과는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청년들이 삶의 자립기만을 마련할 수 있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지 못함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임금근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장시간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라면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신감을 갖기 어렵다.

임금근로 청년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이에 대한 현실을 바로 알 수 있다. 제시된 바와 같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에 비해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자신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그 격차는 상당한 수준이다. 특히 일자리에 대한 자신감 수준의 격차는 다섯 가지 항목 중 가장 크다.

취업특성별 차이에 이어 <표 9-4>에서는 경제적 여건 특성에 따른 이행기 삶의 자신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경제적 여건 특성으로 가구소득 수준과 경제적 독립 여부에 따른 다섯 가지 항목의 삶의 자신감 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적지 않은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9-3> 취업 특성별 이행기 삶의 자신감 차이

(단위: 점)

		인간관계	연애 및 결혼	일자리	내 집 마련	출산 및 양육
전체		3.63	3.39	3.26	3.13	3.19
취업 여부	취업	3.69	3.47	3.39	3.21	3.27
	미취업	3.56	3.31	3.12	3.04	3.10
취업 형태	임금	3.67	3.45	3.38	3.19	3.26
	비임금	3.91	3.63	3.54	3.43	3.37
정규직 여부	정규	3.73	3.57	3.51	3.32	3.38
	비정규	3.58	3.30	3.13	3.03	3.09

주: 1) 취업형태는 취업자만을, 정규직 여부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함 (이하 표 동일).

2) 취업여부, 취업형태, 정규직 여부에 따른 다섯 항목의 자신감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함(t-test 결과).

먼저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다섯 가지 항목의 삶의 자신감 수준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교육수준에 따른 비교 결과와 같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자신감의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소득 격차에 따른 자신감 수준 또한 큰 격차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구조 속에서 경제적 격차는 이미 청년들의 심리적 격차로 나타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경제적 여건 특성으로서 경제적 독립 여부에 따라서도 다섯 가지 항목의 삶의 자신감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KLIPS 제19차 청년층 부가조사에서는 청년들에게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제적 독립 여부를 측정하였다.²⁹⁾ 스스로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청년들이 비독립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에 비해 다섯 가지 항목 모두에서 자신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여건 특성에 이어 다음에서는 청년들의 심리·정서 특성에 따른 이행기 삶의 자신감 수준을 살펴보았다. <표 9-5>에서는 심리·정서

<표 9-4> 경제적 여건 특성별 이행기 삶의 자신감 차이

(단위: 점)

		인간관계	연애 및 결혼	일자리	내집마련	출산 및 양육
전체		3.63	3.39	3.26	3.13	3.19
연평균 가구 소득 수준	3천만 원 미만	3.48	3.24	3.10	2.87	2.98
	3천~4천만 원 미만	3.59	3.35	3.18	3.08	3.19
	4천~5천만 원 미만	3.68	3.48	3.29	3.22	3.28
	5천~7천만 원 미만	3.67	3.45	3.32	3.21	3.25
	7천만 원 이상	3.74	3.46	3.42	3.29	3.29
경제적 독립	독립	3.71	3.61	3.38	3.28	3.41
	비독립	3.56	3.21	3.17	3.00	3.01

주: 가구소득, 경제적 독립 여부에 따른 다섯 항목의 자신감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함(GLM-test, t-test 결과).

29) ____님께서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였습니까? (1)예 (2)아니오.

특성으로서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의 수준에 따라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자신감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KLIPS 제19차 청년층 부가조사에서는 각각 11개 항목으로 구성된 내용을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매우 그렇다 5’)로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을 측정하였으며³⁰⁾, 본장에서는 측정된 합산 값의 평균을 산출하여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 수준을 세 가지 수준으로 재범주화(보통 이상, 보통, 보통 이하)하여 비교·분석하였다.

<표 9-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 수준이 높을수록 다섯 가지 항목 모두에 대한 자신감 수준도 높으며, 사회적 지지나 자존감 수준이 보통 미만의 경우와 보통 이상인 경우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교육수준이나 가구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청년들 주변 사람들의 심리·정서적 지지, 그리고 그러한 환경하에서 청년 스스로의 자존감 형성이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갖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됨을 시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 수준과 자존감에 따른 다섯 가지 항목의 자신감 수준을 비교해 보면, 사회적 지지 수준이 보통 미만인 경우와 보통 이상인 경우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항목은 연애 및 결혼이며, 그다음으로 큰 격차를 보이는 항목이 일자리이다. 그러나 자존감 수준의 경우 일자리에 대한 자신감 차이가 가장 크고, 그다음이 연애 및 결혼이

30) 사회적 지지 측정 11개 항목:

① 주위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② 주위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준다. ③ 주위 사람들이 나를 염려해 준다. ④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한 정보와 충고를 해준다. ⑤ 내가 많은 일을 해야 할 때, 주위 사람들이 도와준다. ⑥ 고민이나 감정 등을 털어놓고 싶을 때, 주위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 준다. ⑦ 주위 사람들과 종종 다툰다. ⑧ 주위 사람들이 나의 신경을 건드린다. ⑨ 주위 사람들이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못 이해한다. ⑩ 주위 사람들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못마땅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 ⑪ 주위 사람들이 나를 불쾌해하거나 화난 태도로 대한다. (부정적 기술 항목 역산,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0.80$)

자존감 측정 11개 항목:

①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다. ② 때때로 내가 무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③ 가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④ 나를 제대로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⑤ 나에게도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⑥ 내게는 자랑할 만한 점이 별로 없다. ⑦ 때때로 내가 아주 쓸모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⑧ 내 자신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다. ⑨ 전반적으로 나는 실패자인 것 같다. ⑩ 가끔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든다. ⑪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부정적 기술 항목 역산, 신뢰도계수 Cronbach's $\alpha=0.83$)

〈표 9-5〉 심리·정서 특성별 이행기 삶의 자신감 차이

(단위: 점)

		인간관계	연애 및 결혼	일자리	내 집 마련	출산 및 양육
전체		3.63	3.39	3.26	3.13	3.19
사회적 지지	보통 미만	3.02	2.67	2.59	2.54	2.54
	보통	3.27	3.15	3.01	2.98	3.01
	보통 이상	3.71	3.47	3.34	3.19	3.26
자존감	보통 미만	3.11	2.80	2.64	2.56	2.68
	보통	3.33	3.10	3.05	2.96	2.98
	보통 이상	3.74	3.52	3.39	3.24	3.30

주: 1)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은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매우 그렇다 5’)로 측정
한 값을 보통(3)을 기준으로 미만과 이상으로 재범주화하여 분석(이하표 동일).

2) 사회적 지지, 자존감에 따른 다섯 항목의 자신감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함(GLM-test 결과).

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보면,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행기 삶에 대한 자신감, 특히 일자리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자존감 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자리 지원정책은 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청년세대 사회 인식

1.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 네 가지 항목 비교

이행기 삶에 대한 다섯 가지 항목의 측정과 더불어 KLIPS 제19차(2016)년도 청년층 부가조사에서는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네 가지 항목(① 패자부활, ② 공정성, ③ 세대 간 연대, ④ 세대 자존감)에 대한 동의 정도(‘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매우 동의한다 5’)로 측정하였다.

〈표 9-6〉 항목별 응답 분포

(단위: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패자 부활	우리 사회는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3.8	20.7	40.0	32.8	2.7
	열심히 일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	3.2	17.3	35.9	40.4	3.2
공정 성	우리 사회는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고 있다.	4.7	24.3	41.2	28.4	1.4
	사회성취에 있어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보다 내 노력이 더 중요하다.	2.6	16.4	33.9	41.9	5.2
세대 간 연대	우리 사회가 이만큼 오기까지는 기성세대의 희생과 노력이 컸다.	0.6	8.4	33.5	51.5	6.0
	40~50대와 비교했을 때, 청년세대가 사회·경제적으로 기회가 더 많다.	7.0	28.1	38.9	24.4	1.6
세대 자존 감	청년세대는 우리 사회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	5.9	30.6	44.8	17.9	0.8
	우리 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청년세대가 살 만한 나라이다.	10.1	34.1	40.9	14.4	0.5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9차조사(2016년)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표 9-6>에 제시된 네 가지 항목과 여덟 가지 하위 항목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청년세대의 자존감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 청년들은 동의하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40% 전후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다시 말해,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의 청년들은 우리 사회가 청년세대에 대해 갖는 관심과 지원 수준이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며, 결과적으로 청년세대가 살 만한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년들의 인식이 ‘헬조선’과 같은 신조어로 압축되어 표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청년들은 대체로 개인이 노력하면 계층 상승의 여지가 있으며, 부모의 배경보다는 자신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며 기성세대의 희생과 노력으로 한국사회가 발전해 왔다는 데 40% 이상 동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청년들이 기성세대의 공헌에 대한 인정, 그리고 개인의 노력과 그 노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인정에 대한 가치를 높게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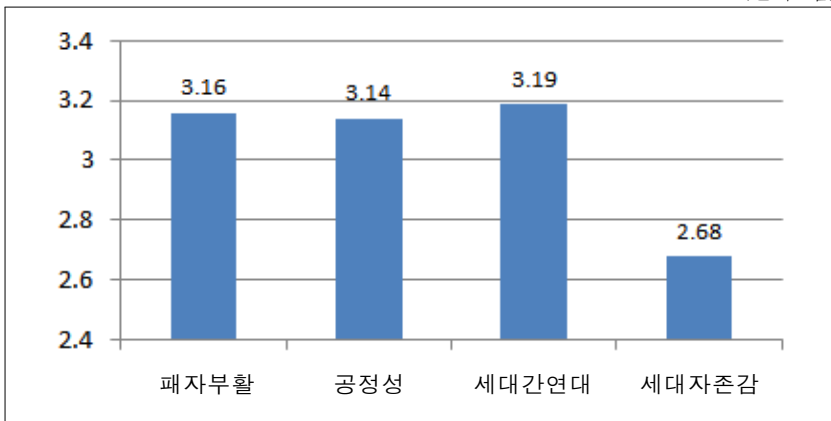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내용을 항목 간 보다 명확하게 비교해 보기 위하여 5점 척도로 측정된 응답 값을 항목별로 평균을 산출하여 [그림 9-2]와 같이 살펴보았다.

[그림 9-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네 가지 항목 중 세 가지 항목, 즉 패자부활(3.16점), 공정성(3.14점), 세대 간 연대(3.19점)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수준은 크게 차이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항목에 비해 청년세대 자존감(2.68)은 눈에 띄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년들이 바라보는 한국사회가 실패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라는 하나, 그러한 기

[그림 9-2]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 : 네 가지 항목 비교

(단위: 점)



주: 5점 척도('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 '매우 동의한다' 5)로 측정.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제19차조사(2016년)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회는 쉽게 주어지지 않으며, 구조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서는 청년세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수준이 낮아 청년들이 살아갈 만한 나라가 아니라고 여기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청년세대 전체에서 세대를 인식하는 공통된 견해로서 우리 사회의 청년세대 스스로의 자존감 수준이 보통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청년세대 전체의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수준이 이와 같다면, 청년들 개인 수준에서 인식하는 한국사회는 어떠한가? 이에 다음에서는 청년들 특성에 따른 한국사회의 인식 수준을 앞서 이행기 삶의 자신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들의 특성을 네 가지(사회·인구학적 특성, 취업 특성, 경제적 여건 특성, 심리·정서 특성)로 나누고, 각 특성에 따른 한국사회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2. 청년 특성별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차이

<표 9-7>은 청년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네 가지 항목의 한국사회 인식 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먼저 성별, 연령, 교육수준에 따라 한국사회의 패자부활, 공정성, 세대 간 연대, 세대 자존감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교육수준에 따른 패자부활, 공정성, 세대 간 연대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이들 세 항목 공통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사회가 패자부활의 기회나 공정성 그리고 세대 간 연대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은 있으나, 항목에 따라 구체적인 수치의 높낮이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패자부활에 대한 인식은 전문대 재학생 집단(3.14점)에서, 공정성과 세대 간 연대에 대한 인식은 4년제 대학 재학생 집단(3.12점, 3.18점)에서 고졸자 집단 다음으로 낮으며, 동시에 전체 집단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고졸 이하 청년들, 그리고 대학 졸업자에 비해 재학생들의 인식수준이 낮은 결과는 청년세대 내에서도 낮은 연령

〈표 9-7〉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사회 인식 차이

(단위: 점)

		패자부활	공정성	세대 간 연대	세대 자존감
전체		3.16	3.14	3.19	2.68
성별	남성	3.16	3.14	3.19	2.69
	여성	3.16	3.13	3.19	2.68
연령	20세 미만	3.26	3.24	3.21	2.78
	20~25세 미만	3.17	3.14	3.18	2.67
	25~30세 미만	3.12	3.09	3.15	2.64
	30세 이상	3.16	3.15	3.23	2.71
교육 수준	고졸 이하	3.03	3.03	3.13	2.64
	전문대 재학	3.14	3.15	3.19	2.68
	전문대 졸업	3.23	3.17	3.23	2.78
	4년제대 재학	3.18	3.12	3.18	2.66
	4년제대 졸업	3.25	3.24	3.26	2.71
	석사재학 이상	3.25	3.17	3.27	2.78

주: 교육수준에 따른 패자부활, 공정성, 세대 간 연대 인식은 차이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함(GLM-test 결과).

층의 청년들이 고용 여건 악화라는 환경에 대한 민감도와 그에 따른 불안 및 심리적 압박감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차이에 이어 <표 9-8>에서는 취업 특성에 따른 네 가지 항목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해보았다. 취업 특성으로서 취업여부와 취업자의 취업형태 그리고 임금 근로자의 정규직 여부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취업여부에 따른 공정성과 세대 간 연대, 취업형태에 따른 패자부활과 공정성, 임금근로자의 정규직 여부에 따른 네 가지 항목의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업자가 미취업자에 비해 공정성과 세대 간 연대 인식 수준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비임금근로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패자부활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비해 패자부활, 공정성, 세대 간 연

〈표 9-8〉 취업 특성별 사회 인식 차이

(단위: 점)

		패자부활	공정성	세대 간 연대	세대 자존감
전체		3.16	3.14	3.19	2.68
취업 여부	취업	3.19	3.17	3.22	2.71
	미취업	3.13	3.09	3.16	2.66
취업 형태	임금	3.17	3.16	3.21	2.70
	비임금	3.38	3.33	3.31	2.80
정규직 여부	정규	3.26	3.24	3.26	2.75
	비정규	3.10	3.08	3.15	2.65

주: 취업여부에 따른 공정성과 세대 간 연대, 취업형태에 따른 패자부활과 공정성, 정규직 여부에 따른 네 가지 항목의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t-test 결과).

대, 세대 자존감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년들이 한국사회를 바라보고 인식하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앞서 <표 9-6>과 <표 9-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대 자존감은 다른 항목들과는 달리 청년세대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유일한 항목이며,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항목이다. 그러나 정규직 여부에 따라 나누어 보면 비정규직 청년들이 인식하는 청년세대 자존감은 정규직 청년들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미취업 청년들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취업특성별 차이에 이어 <표 9-9>에서는 경제적 여건 특성에 따른 네 가지 항목의 인식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패자부활, 공정성, 세대 간 연대, 세대 자존감에 대한 인식은 경제적 여건 특성으로 가구소득 수준과 경제적 독립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네 가지 항목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연평균 4천만~5천만 원 미만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하의 소득수준에서는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인식을, 그 이상의 소득수준에서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인식을 나타내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연평균 4천만~5천만 원 미만 소득층의 청년들이 연평균 3천만~4천만

〈표 9-9〉 경제적 여건 특성별 사회 인식 차이

(단위: 점)

		패자부활	공정성	세대 간 연대	세대 자존감
전체		3.16	3.14	3.19	2.68
연평균 가구 소득 수준	3천만 원 미만	2.99	3.01	3.11	2.56
	3천~4천만 원 미만	3.15	3.13	3.21	2.72
	4천~5천만 원 미만	3.13	3.11	3.18	2.67
	5천~7천만 원 미만	3.23	3.15	3.20	2.73
	7천만 원 이상	3.29	3.26	3.26	2.75
경제적 독립	독립	3.21	3.18	3.25	2.73
	비독립	3.11	3.10	3.14	2.64

주: 가구소득, 경제적 독립 여부에 따른 네 가지 항목에서의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GLM-test, t-test 결과).

원 미만의 소득층의 청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이다.

가구 소득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적 독립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즉 독립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비독립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 비해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가구의 전체 소득과 더불어 본인의 경제적 자립 정도에 따라서도 사회를 인식하는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경제적 여건 특성에 이어 다음에서는 청년들의 심리·정서 특성에 따른 한국사회의 인식 수준을 살펴보았다. <표 9-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년들의 패자부활, 공정성, 세대 간 연대, 세대 자존감에 대한 인식 수준은 심리·정서 특성으로서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의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 수준이 높을수록 네 가지 항목에 대한 인식 수준도 높다.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이 비단 취업상태나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정서적 지지와 스스로의 자존감 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갖는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년들이 한국사회에 갖는 긍정적 인식의 형성이 경제적 자립 여건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심리·정서적 지지와 함께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9-10〉 심리·정서 특성별 사회 인식 차이

(단위: 점)

		패자부활	공정성	세대 간 연대	세대 자존감
전체		3.16	3.14	3.19	2.68
사회적 지지	보통 미만	2.65	2.64	2.81	2.42
	보통	3.00	2.97	3.00	2.75
	보통 이상	3.21	3.19	3.24	2.70
자존감	보통 미만	2.74	2.80	2.98	2.51
	보통	3.01	3.03	2.95	2.64
	보통 이상	3.24	3.20	3.25	2.72

주: 사회적 지지, 자존감에 따른 네 가지 항목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함(GLM-test 결과).

그렇다면 청년들의 심리·정서 특성인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 수준은 청년들의 특성, 특히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에서는 청년들의 세 가지 특성(사회·인구학적 특성, 취업 특성, 경제적 여건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3. 청년 특성별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의 차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은 청년세대의 이행기 삶의 자신감과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수준에 큰 차이를 가져오는 심리·정서 특성이다. 이들 특성이 청년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취업이나 경제적 여건과 같은 상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표 9-11〉은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사회적 지지 및 자존감 수준을 분석한 결과이다. 성별과 연령 그리고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 수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연령에 따른 사회적 지지 수준과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지 수준과 자존감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수준에 따라서는 30세를 기점으로

로 30세 미만에서는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에 큰 차이가 없으나, 30세 이상 청년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의 구성을 고려해 볼 때, 20대 청년들이 30대 초반 청년들에 비해 주변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는 경험이 적고, 다른 이들과의 원만한 갈등해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³¹⁾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과 자존감 수준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공통적으로 고졸 이하와 전문대 재학 사이의 격차와 4년제 졸업과 석사 재학 사이의 격차가 다른 범주 간 격차에 비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학과 대학원이라는 고등교육 경험의 차이가 청년들의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음

〈표 9-11〉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사회적 지지 및 자존감 차이

(단위: 점)

		사회적 지지	자존감
전체		3.63	3.51
성별	남성	3.61	3.51
	여성	3.64	3.50
연령	20세 미만	3.60	3.48
	20~25세 미만	3.61	3.47
	25~30세 미만	3.61	3.51
	30세 이상	3.66	3.54
교육수준	고졸 이하	3.49	3.31
	전문대 재학	3.62	3.50
	전문대 졸업	3.66	3.54
	4년제대 재학	3.68	3.60
	4년제대 졸업	3.66	3.56
	석사재학 이상	3.86	3.73

주: 연령별 사회적 지지, 교육수준별 사회적 지지 및 자존감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t-test, GLM-test 결과).

31) 앞서 각주 30)에서 기술한 사회적 지지 및 자존감 측정의 각 11개 항목 참조.

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 <표 9-12>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 이어 취업 특성별 사회적 지지 및 자존감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취업 특성으로서 취업여부, 취업형태, 정규직 여부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 수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취업형태에 따른 사회적 지지 수준을 제외한 모든 검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취업여부에 따른 사회적 지지 및 자존감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취업자가 미취업자에 비해 사회적 지지 및 자존감 수준이 높고,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청년들이 비임금 형태로 일하는 청년들에 비해 자존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규직 임금근로 청년들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에 비해 사회적 지지 및 자존감 수준이 높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고용 기회의 확대와 좋은 일자리의 제공,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규직과의 차별 완화 및 정규직 전환 기회의 제공 등 고용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선 현시점의 미취업 청년과 비정규직 청년들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취업특성에 이어 <표 9-13>에서는 경제적 여건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및 자존감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경제적 여건 특성으로서 가구소

<표 9-12> 취업 특성별 사회적 지지 및 자존감 차이

(단위: 점)

		사회적 지지	자존감
전체		3.63	3.51
취업 여부	취업	3.65	3.55
	미취업	3.60	3.46
취업 형태	임금	3.64	3.54
	비임금	3.61	3.48
정규직 여부	정규	3.68	3.58
	비정규	3.60	3.46

주: 취업형태에 따른 사회적 지지를 제외한 두 가지 항목의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t-test 결과).

득 수준과 경제적 독립 여부에 따른 사회적 지지 및 자존감 수준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분석되었다.

먼저 연평균 가구소득별 사회적 지지 및 자존감 수준을 살펴보면, 가구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과 자존감 수준도 높다.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비독립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 비해 사회적 지지 및 자존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세대의 경제적 격차가 심리적 격차로 이미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9-13〉 경제적 여건 특성별 사회적 지지 및 자존감 차이

(단위: 점)

		사회적 지지	자존감
전체		3.63	3.51
연평균 가구 소득 수준	3천만 원 미만	3.54	3.41
	3천~4천만 원 미만	3.58	3.46
	4천~5천만 원 미만	3.64	3.54
	5천~7천만 원 미만	3.67	3.52
	7천만 원 이상	3.70	3.60
경제적 독립	독립	3.66	3.57
	비독립	3.60	3.45

주: 가구소득, 경제적 독립 여부에 따른 두 가지 항목에서의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GLM-test, t-test 결과).

◆ 執筆陣

- 김유빈(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지은(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신선옥(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해정(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 김기홍(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제19차(2016)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 | | |
|-----------|--|
| ▪ 발행연월일 | 2017년 12월 26일 인쇄
2017년 12월 29일 발행 |
| ▪ 발 행 인 | 김 승 택 원장직무대행 |
| ▪ 발 행 처 | 한국노동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
| ▪ 조판 · 인쇄 | 거목정보산업(주) (044) 863-6566 |
| ▪ 등 록 일 자 | 1988년 9월 13일 |
| ▪ 등 록 번 호 | 제13-155호 |

ISBN 979-11-260-0161-3

정가 7,000원